

우리 문화

M A G A Z I N E

우리문화 · 2002년 송년호(제16권 6호 통권164호) · 등록번호: 마-02746(1984.7.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우 121-715) · 값 3,000원



2002 송년호

우리 문화

2002 · 송년호

2002년 송년호(제16권 6호 통권 164호)
 등록 / 마 02746(1984. 7. 12)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소 /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화 / 02-704-2311~3
 FAX / 02-704-2377
 인터넷 / www.kccf.or.kr
 발행겸 편집인 / 이수 홍
 사무총장 / 하 만 기
 기획편집 / 컬처플러스(02-2264-9028)
 인쇄제작 / 크리홍보(주)(02-737-5377)
 발행일 / 2002년 12월 1일
 정가 / 3,000원

※「우리문화」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겨울 참새가 인사드리고 있군요.
 우리문화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표지 일러스트 정진웅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
 한국 출판미술협회 운영위원.
 국제 어린이 도서협의회 회원.
 1988년부터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2 ◆ 특집 · 문화원의 어제와 오늘



53 ◆ 행사 · 제17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44 ◆ 문화강좌 · 금석문



56 ◆ 행사 · 문화의 날



2 ◆ 특집 I · 문화원의 어제와 내일

- 한국문화의 흐름과 지방문화원
- 문화원 활동, 새롭게 가다듬어
- 문화원은 어떤 존재인가
- 문화의 세기에 대응하는 문화원의 구실
- 문화원 40년사와 그 진로
- 지역문화의 현주소
- 여럿이면서 하나인 문화를 위하여
- 문화상생
- 전국문화원연합회 40년의 발자취

- 장을병
- 이흥재
- 황도훈
- 양중해
- 이기화
- 허백영
- 안용산
- 고종현
- 이종인

41 ◆ 한 편의 시 · 할머니

안정자

42 ◆ 문화정보 · 2003년 문화인물

편집부

43 ◆ 문화현장 · 국토중단스케치

편집부

44 ◆ 문화강좌 · 금석문

이인화

49 ◆ 특집 II · ‘우리문화 역사만들기’ 사업추진 현황

강민철

53 · ‘우리문화 역사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며

박영대

56 ◆ 행사 · 전국문화원연합회 창립40주년 기념식 및 제 17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편집부

59 ◆ 행사 · 문화의 날

편집부

61 ◆ 양띠의 해

김지영

64 ◆ 겨울풍경

편집부

65 ◆ 리포터

문화원

69 ◆ 전국문화원뉴스

편집부

73 ◆ 시간안내

편집부

78 ◆ 문화원 네트워크 · 전국에 215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편집부

문화원의

어제와 내일



한국문화의 흐름과 지방문화원



장을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

I. 한국문화의 원류

한국문화의 원래 특성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문화의 특성을 말할 때 흔히 거론되기로는 ‘은근과 끈기’이다. 한국문화는 별로 웅대하지는 않으면서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것, 산뜻하고 빼어나게 곱지는 않더라도 보일 듯 말 듯 은근한 아름다움을 지니며, 끊길 듯 끊길 듯 하면서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정신문화가 은근과 끈기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한민족이 살아온 역사와 무관하지 않는 것 같다. 바로 우리 한민족은 강대국들 숲에 끼여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어떠한 강대국의 침략에도 버티어 올 수 있었던 그러한 역사의 발자취 속에서 ‘은근과 끈기’라는 문화적 특성을 키워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분명 우리 한국문화를 의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은근과 끈기’로 특징지워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 한국문화를 예술적인 측면이나 생활양식면에서 볼 때 ‘청아와 소박’으로 규정짓는 사람도 있다. 한국문화는 고려청자나 이조백자에서 엿볼 수 있듯이 깨끗하고 우아하며 요란스럽게 화려하지 않는 소박함을 지니고 있다. 바로 한국문화가 지닌 예술면이나 생활양식면에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아와 소박’은 의식적인 측면에서 본 ‘은근과 끈기’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듯 싶다.

예술면이나 생활면에서 ‘청아하고 소박’함을 지니고 있기에 의식적으로는 ‘은근과 끈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란스러우면서도 화사한 색채속에서나 빼어나고 두드러진 아름다움 속에서는 ‘은근과 끈기’를 떠올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빼어나게 곱지는 않으면서 ‘청아와 소박’함을 지니고 있기에 ‘은근과 끈기’를 연상할 수 있으리라. 우리 한국문화의 특성을 ‘은근과 끈기’ 내지 ‘청아와 소박’으로 표현해서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우리네 일상생활에 쓰였던 뚝배기는 한번 달구어지면 좀처럼 식지 않고 온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네 고전악기인 거문고나 대금은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면서도 결단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은근과 끈기’ 혹은 ‘청아와 소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II. 한국문화의 변질

어느 나라의 경우이든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문화는 변한다’ 고들 한다. 그런데 어떤 나라의 문화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이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나라의 문화는 외풍에 의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내동댕이치면서 변질되는 수도 있다. 스스로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수용하는 주체적인 문화변화의 형태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를 내동댕이치면서 변화에 휩쓸리는 비주체적인 문화변질의 형태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도 시대변화에 따라 문화는 변화를 거듭해왔을 터인데, 과연 한국문화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왔는지, 아니면 외풍에 휩쓸려 정체성을 내동댕이치면서 비주체적인 변질을 겪어 왔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19세기 후반 외래문화가 휘몰아쳤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취사선택을 통해 스스로 조절하면서 외래문화를 수용했다면 한국문화는 정체성을 지니면서 변화를 수용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었을 터인데, 무작정 외래문화의 수용을 거부하는 쇄국정책으로 일관했었다.

그러나 외래문화의 수용을 거부하는 쇄국정책도 종래에는 버티어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 타율적인 개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타율적인 개방으로 내닫다 보니 한국문화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처지에 있기 어려웠고, 오히려 스스로의 정체성을 내동댕이치면서 외래문화의 영향권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문화는 외풍에 휩쓸려 변질되는 수모를 감수하는 경향이 짙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이행되는 과정속에서 이 땅에

서는 강대국들 사이에 각축전이 벌어지기에 이르렀고, 중국에 가서는 일제의 독점적인 지배로 귀착되기에 이르렀다. 일제가 한반도를 독점적으로 지배하자, 일본문화는 물밀 듯 밀려오기에 이르렀고, 한국문화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일제 지배세력은 일본문화를 침투시키기 위해 ‘우리 한국문화를 조직적으로 파멸시키는 문화말살정책을 자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네 향토문화의 핵을 이루는 집단축제문화가 모두 단절 또는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김예식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원의 역할’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편 「향토사와 지역문화」수서원 1998, p.91). 무엇보다 한국문화는 일제의 식민통치로 인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했고, 변질되는 수모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다음으로 1945년 8·15 해방과 더불어 밀려온 구미문화(歐美文化)로 한국문화는 또다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맞이한 해방이 우리네 자주적인 노력으로 쟁취한 해방이 아니라, 연합국들에 의해서 안겨진 타율적인 해방이었기에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복원할 처지에 있지를 못했다. 숨겨져있는 내면적인 가치보다는 겉모양이나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구미문화의 범람으로, ‘은근과 끈기’ 내지 ‘청아와 소박’을 숭상하고 있던 한국의 전통문화가 복원될 수 있는 여지는 드물었다. 오히려 자주성 내지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었기에 한국문화라면 무조건 고무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천시하거나 배척하는 풍조마저 없지 않았다.

더욱이 1948년 8월 한국정부의 수립으로 우리 문화를 가다듬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지만, 1950년의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한국문화를 가다듬을 수 있는 여유는 없었다. 오히려 일제하에서의 수난과 해방후의 혼란속에서 겨우 지탱해왔던 우리네 문화유산마저도 파괴 내지 손상시키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1960년대 중반 우리안에서 조국근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지만, 해방 직후부터 ‘자치능력의 결핍’으로 열등감에 젖어있던 국민들이라, 자주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원래 우리네 국민성은 서둘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매사에 ‘빨리빨리’라고 서두는 조금성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시에 모든 것을 이룩하려는 성취욕구(成就慾求)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이다.

조국근대화가 아니라, 서구화를 근대화
로 오인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문화를 소
중히 여기고 보듬어 안으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우리문화를 내동댕이쳐버리는 경
향으로 내달았다. 여기서 투박하고 소박
하지만 우아하고 은근함을 지니는 떡배기
나 옹기는 내동댕이쳐졌고, 그 자리를 냄
비나 양재기로 메워지기에 이르렀다. 냄
비나 양재기는 쉽게 데워지는가 하면 곧장 식어버리는 속
성을 지니는데, 우리의 문화는 떡배기문화 대신 냄비문
화로 대체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변질이나 생활양식의 변화는 우리 국민
들의 심성마저 바꿔놓기에 이르렀다. 원래 우리네 국민
성은 서둘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는
데, 이제는 매사에 ‘빨리빨리’라고 서두는 조금성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시에 모든 것을 이룩하려는 성취욕
구(成就慾求)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은근히 이
어져가는 우리네 국악 대신 재즈가 범람하자, 우리네 심
성마저 시끄러워지고 악을 쓰기에 이르렀다. 사소한 일
에도 악을 쓰고 걸핏하면 핏대를 올려 싸움질을 일삼는
성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Ⅲ. 한국문화의 재발견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한
국사회 안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
다. 새삼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보려는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자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이러한 내적 변화의 동인은
어디에서 온것일까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우리도 이제는 기아선상에서 벗어나 일인당 국민
소득이 1,000달러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우
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1977년
이었다) 어느 나라 국민이든 인간은 배부르고 등따시면
자기 것을 찾고 소중히 여기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여기
서 한국인도 우리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에

이르렀고, 우리 것을 보듬어 안으려는 생
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국민들은 종래에는 구미문화
에 대해 이질감을 느꼈을망정 거부감까지
는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네 정치체
제가 독재적인 유신체제나 전두환 군부독
재체제로 이행해서 인권을 짓밟고 민주주
의를 압살했는데도 우방이라고 믿어왔던

구미선진국가들은 우리네 정치체제가 독재화하는데 대
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자세였다. 특히 1980년 5
월 전두환 군부독재체제가 출현했을 때, 주한미군 사령
관이었던 위킴은 한국민을 ‘들쥐론’으로 설명해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킨 일도 있었다. 이렇게 되자 한국민들
은 민주화도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이룩할 수밖에
없다고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민주화도 한국민들의 자율
적인 노력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는 자각은 자연히 우리
것,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바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민들은 우리것, 한
국의 전통문화를 재발견하려는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다
는 것이다. 외국의 문화유적보다는 한국의 문화유적을
찾아나섰고, 한국의 전통음악인 민요를 읊조리기 시작
했으며, 전통적인 도자기를 발굴하고 재창조하기에 이
르렀다.

우리 것, 한국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다듬어 보려는 노
력은 한국민들에게 모든 문제를 자율적인 결정으로 해결
지우려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확립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달리 표현하면 한국의 민족주의가 새롭게
활기를 되찾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었다. 이
러한 분위기는 1990년대 초까지 그대로 이어져 나갔다.

Ⅳ. 세계화에 올바른 순응

불행히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문화를 되찾으
려던 분위기는 사뭇 수그러들고 말았다. 정확히 살펴보
면 1993년부터 ‘국제화’가 소리높이 외쳐지더니 1994년



으로 접어들면서는 '세계화'로 그 용어가 바뀌었다. 세계화의 새 흐름속에서 우리 고유의 한국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한낱 시대착오적인 사고로 물리는 경향마저 없지 않았다. 한국의 전통문화나 고유문화가 또다시 천대받고 내몰릴 위기에 처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거센 흐름속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나 고유문화를 보존, 발전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변화를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자세로 낙인찍힐 수도 있었다.

세계화는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하나의 촌락으로 보고 국가들 사이의 담을 허물어뜨리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초래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세계화라고 하는 현상이 도래한 직접적인 계기는 1990년 소련의 붕괴였다. 그 이전까지, 말하자면 미·소 강대국들이 이데올로기 대립을 빚고 있던 시기에는 세계가 두 블럭으로 갈라져서 서로간 힘의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미·소 강대국들 사이에 힘의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에는 약소국가들이 국경을 유지하며 편히 지낼 수 있었다. 미·소 강대국들은 제각기 약소국가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보살피주기도, 껴안아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0년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미국의 독점적인 지배현상이 빚어졌다. 미국을 견제해줄 대항세력인 소련이 붕괴되자, 미국은 무견제의 독점적인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원래 힘이나 권력은 견제를 받지 않고 독점화되면 그 지배권을 거침없이 행사해서 횡포를 부리기 마련이다. 요컨대 소련의 붕괴로 미국은 독점적인 지배권

을 행사할 수 있었고, 독점적인 지배권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경이 없는 세계화가 바람직스러웠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미국은 아무런 방해 없이 스스로의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나섰다. 우루과이라운드나 그린라운드나 WTO체제의 구축 등은 이러한 조치들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었다. 요컨대 세계화란 유일강대국의 세계지배를 효율화하기 위한 그들의 논리나 구호였지, 약소국가인 우리들의 논리나 구호는 결단코 아니었다.

오늘날 세계의 추세는 세계화로 향해서 거세게 흘러가고 있으니, 우리로서도 그러한 추세를 외면하거나 거역할 수 없음을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우리네 속담에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세계화의 격류속에서도 우리를 가다듬으면서 살아남을 공리를 해야만 한다. 살아남을 공리도 하지 않은 채 세계화의 흐름에 휩쓸려 넘어가면, 우리는 스스로의 주체성을 상실해 버리고 허수아비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의 주체성을 유지해 나갈 공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는 민족주의란 한낱 낡은 이념이고 효용성이 없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크게 보아 민족주의에는 침략적·팽창적·공격적인 민족주의와 저항적·방어적·자기수호적인 민족주의가 있는데, 선진국에서 볼 수 있던 침략적·팽창적·공격적인 민족주의는 낡은 이념이고 불필요해졌을는지 모르지만, 약소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저항적·방어적·자기수호적인 민족주의는 아직도 의미가 있고 유효한 이념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V. 한국문화의 저력

세계화의 추세속에서 그러한 흐름에 무턱대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의 주체성을 상실해 버리고, 우리문화를 내동댕이칠 위험성에 직면한다. 우리네 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면서 세계화의 흐름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이

**정치적인 면이나
문화시설의 편중현상을 보면
문화의 지방화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상당한 수준의
문화적 지방화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우리의 주체성을 저버리고 우리 문화를 내동댕이치고 난 다음 세계화에 순응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의 주체성을 지키고 우리 문화를 보듬어 안으면서 세계화에 순응해 나갈 때 순응의 참뜻을 발견할 수 있다. 흔히 얘기되고 있듯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주체성을 지니면서 세계화에 순응해 나가려면 무턱대고 세계화(globalization)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한편에서는 세계화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화(localization)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만 한다.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때, 말하자면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추진'(glocalization)의 방식을 취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주체성을 지키면서 세계화에 순응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에 곁들여서 지방화도 함께 추진하면 지방화라고 하는 구심작용(求心作用)을 통해 세계화라고 하는 원심작용(遠心作用)을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화라고 함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만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화란 정치적인 지방자치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지방자치까지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실상 정치적인 지방자치란 지방화의 한낱 겉모양이고, 그 알맹이는 문화적인 지방화라고 할 수 있겠다. 문화적인 지방화를 수반하지 않는 지방자치제란 한낱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집권화의 전통이 너무나 뿌리 깊다 보니, 지방화의 전통은 허약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 이후부터 중앙집권화의 전통이 다져지기 시작해서 고려조와 조선조를 거치면서 중앙집권화는 가속되었고 일제식민통치하에서 중앙집권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해방후나 정부수립 후에도 지방화의 전통을 새로 다질 겨를이 없었는데, 1960년대 이후 군사통치를 거치면서 중앙집권화의 전통은 계속 이어졌다. 고작 1990년대 문민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겨

우 정치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화의 씨앗이 뿌러지기에 이르렀다.

너무나 중앙집권화의 오랜 전통속에서 문화적인 지방화의 흔적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을 성 싶다. 해방 이후만 보더라도 문화시설의 70퍼센트 이상이 중앙(서울)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듯 정치적인 면이나 문화시설의 편중현상을 보면 문화의

지방화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상당한 수준의 문화적 지방화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19세기말 외래문화의 범람시기에도 한국 문화는 수난을 겪었고, 심지어 일제식민통치하에서는 한국문화의 말살정책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한국문화는 각 지방을 근거로 해서 끈질기게 보존되고 계승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서울에는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한 문화였기에 지배계층의 쇠퇴나 변절을 통해 지배층 문화는 시들었지만, 지방에 뿌리내리고 있던 향토문화는 민중을 기반으로 한 문화였기에 민중의 강인함과 더불어 변함없이 전승되어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달리 표현하면 한국의 지방문화 내지 향토문화는 중앙집권화의 그늘 속에서 화려하게 꽃피우지는 못했지만, 민중을 기반으로 한 문화였기에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면서 계승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한국문화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배문화 내지 엘리트문화는 외풍속에서 쉽사리 시들거나 변질될 수 있었지만, 지방에서 서민이나 민중을 기반으로 한 향토문화 내지 민중문화는 거센 외풍속에서도 시들거나 변질됨이 없이 끈질긴 생명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국운이 쇠퇴하여 국권을 상실할 위험성에 처했을 때, 각 지방의 민중이 국권회복의 가치를 들고 분연히 일어섰던 것은 결코 우연만은 아니었다. 각지방마다 서민이나 민중을 기반으로 한 향토문화 내지 민중문화의 뿌리가 깊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국가로부터 변변한 혜택을 받지 못했음에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국의 가치를 들고 분연히 일어섰던



민중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의 혼과 의기와 문화는 시들지 않고 끈질기게 계승되어 올 수 있었다.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도 주체적으로 쟁취한 해방이 아니었기에, 한국문화는 외풍의 시달림 속에서 뒤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 대로 각 지방에 민족의 혼과 의기를 담은 민중을 기반으로 한 민중문화 내지 향토문화가 있었기에 한국문화는 뿌리째 흔들리지 않고 그 맥을 이어 내려 올 수 있었다. 겉으로는 시들어버린 것 같았지만, 문화의 뿌리인 민중문화 내지 향토문화는 살아 있었기에 다시 싹을 틔어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분명 한국문화의 뿌리는 각 지방의 민중을 기반으로 향토문화 내지 민중문화였음이 분명하다.

Ⅵ. 향토문화의 보존과 지방문화원

한국의 향토문화는 민중을 기반으로 한 민중문화적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시들지 않고 면면히 계승되어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듯 끈질기고 튼튼한 향토문화를 뿌리로 해서 성장한 한국문화였기에, 거센 외풍앞에서 일시적으로는 위축되거나 시드는 것 같지만, 쉽사리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저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일제식민 통치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한국문화는 뿌리뽑히지 않았고, 외래문화의 범람 속에서도 한국문화의 원류는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한국문화는 각 지방의 민중을 기반으로 한 향토문화를 뿌리로 삼고 있기에 자생성을 지니는 것이고 끈질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한국문화가 지니는 특성 때문에 자생성을 지니면서 끈질기게 계승되어 온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한국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한국문화의 뿌리인 향토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우리네 향토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쏟아 온 일단의 사람들이란 지방의 향토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 지방의 문화유적에 애정을 갖고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 지방의 문화적 유품들을 모아 보관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사람들, 지방의 문화재들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사람들 등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람들은 애초에는 개별적으로 활동했거나 몇몇이 모여 협의해서 활동하는 방식을 취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별적인 활동보다는 조직적인 활동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믿어서 향토사 연구회를 조직하기도 했고, 향토 자료관이나 박물관을 개설하기도 했다. 향토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각 지방의 행정단위이자, 향토문화의 단위이기도 한 시·군을 단위로 해서 조직을 편성했다. 바로 시·군을 단위로 해서 향토문화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조직화를 이룩해 낸 것이 다름아닌 지방문화원이었다.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지방문화원은 해방후인 1946년에 설립된 강화문화관이였다. 각 지방에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수를 보면 정부수립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117개였고, 1970년대에 9개였으며, 1980년대에 40개였고, 1990년대에 39개였으며, 2000년대에 10개였다. 정부수립 이후로부터 1960년대까지 117개로 가장 많이 설립되었는데 정부수립 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1970년대에 9개밖에 설립되지 않은 것은 앞서 밝힌 바 있듯이 근대화를 서구화로 오인해서 우리 것을 내동댕이쳤던 것과 유신독재의 탓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1980년대에 40개로 늘어났던 것은 자주화의 물결을 타고 한국문화에 다시 관심을 돌리게 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1990년대 39개에 달하는 많은 지방문화원이 새로 설립된 것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것을 보듬어 안아야 한다는 자각을 반영하고 있는 듯 하다.

지방문화원이 향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 역할을 보면 실로 지대하다고 하겠다.

첫째 지방문화원은 향토문화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보

호자였다. 일제식민통치하나 해방후의 혼란기에 우리네 문화재는 해외로 수없이 반출되었지만, 정부수립 후에는 지방문화재들이 서울로 반출되는 일이 허다했다. 특히 1960년대 근대화를 서구화로 오인해 우리 것을 전시했을 때 지방문화재들은 지방에서 서울로 무차별 반출되는 실정이었다. 이무렵 지방문화원은 자기 고장의 문화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파수꾼으로서의 구실을 다했다.

‘문화재는 있던 곳에 두고, 있던 상태로 보수·보존하여, 있는 대로 보아야 한다. 모든 것을 서울로, 대도시로 보내야 직성이 풀리는 중앙지향적 사고는 문화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금기이다’(김택규 ‘향토문화와 자료관’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편 「향토사와 지역문화」 수서원 1998, p132)라는 주장을 펴면서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재의 반출을 막는 파수꾼이자, 그것을 지키는 보호자로서의 소임을 다했다.

둘째 지방문화원은 그 지방의 문화재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함께 했다. 문화재는 타지역으로의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를 제대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스스로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를 제대로 보관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타지역으로 이관하는 것이 문화재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은 그 지방에 향토문화 자료관이나 간이박물관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면 스스로가 그러한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만 했다.

셋째 문화재를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파수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재란 단순히 존재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그 존재를 알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게 만드는 데 더 큰 뜻이 있다. 따라서 문화재는 우선 일반인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나 해설도 붙여야 한다. 구체적

문화재란 단순히 존재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그 존재를 알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게 만드는 데 더 큰 뜻이 있다. 따라서 문화재는 우선 일반인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으로 말하면 문화재가 존재하는 곳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또 전시 가능한 문화재들은 체계적으로 전시해서 관람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설명이나 해설을 붙여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 역시 지방문화원이 감당해왔고 감당해야 할 역할이다.

요컨대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재를 발굴하고, 보호 육성하며, 널리 알리는 문화재보호운동을 담당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다. 그래서 문화재보호운동은 ‘찾기운동, 가꾸기운동, 알리기운동’(김예식 ‘앞의 논문’ 「앞의 책」 p.91)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러한 문화재보호운동은 자율적인 운동일 때 참 뜻을 살릴 수 있다고 보며, 그러하기에 지방문화원에서 펼치는 문화재보호운동은 더욱 값지게 평가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프랑스 국민들은...나치 독일군이 파리를 무력으로 위협했을 때 프랑스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역력이 남아있었음에도 적에게 무혈입성을 허용함으로써 나치군의 폭격으로부터 파리의 파괴를 막았던 것은 유명하다’(김예식 ‘앞의 논문’ 「앞의 책」 p.101 : 문화공보부 「문화재보호운동」 1973, p.25). 그리고 1959년 중국의 내전이 막바지에 달했을 때, 국민당의 장쩌에스(蔣介石) 총통이 대륙을 포기하고 대만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문화재를 싣고 떠났던 사실과 중국공산군 마오쩌둥(毛澤東)이 북경성을 포위해 놓고 일주일간이나 기다리면서 고고학자들에게 어느 문으로 진격하는 것이 중국의 문화재를 덜 손상시킬 것인가를 물었다는 일화들은 문화재보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하겠다. 우리 민족의 혼과 의기를 받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화원 활동 새롭게 가다듬어야

지역문화정책 재검토

세계적인 추세로 진행되는 도시화로 인해 지역사회는 개성과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 또한 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지역문화가 동질화, 상품화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적으로는 중앙정부 주도의 문화 또는 대도시의 문화적 성향이 지역에 그대로 확산·유입되고 있다. 이제는 지역문화가 이처럼 획일화로 치닫는 것을 막고 지역문화의 참모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문화는 특정 부류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향유해야 할 소중한 권리이다. 또한 전통문화나 역사적 유물을 소중히 보전하고 현대 문화예술은 활발하게 창조되며 이같은 다양한 접근과 노력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문화창조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문화를 이정표로 삼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지역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이로서 지역은 지식기반사회의 창조성을 축적하며, 디지털시대와 함께 열리는 문화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지키며, 경제우선주의 정책으로 문화가 희생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문화향기 넘치고 개성 있는 성숙지역으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말이다.

지역의 문화적 에너지를 통해 차원 높은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문화정책 당국이 각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가.

첫째, 주민들은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이를 생활화하면서 한껏 드높은 삶의 질을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은 문화향수권을 소중히 하고 향수기회 확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문화주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문화기반을 적극 조성하고, 문화시설과 단체는 자발적 협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하도록 한다. 기업은 사업장의 문화적 분위기를 만들고 지역문화발전에 앞장서서 성의껏 지원해야 한다. 창조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창조활동에 힘써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는 지방시대와 문화시대를 이끄는 주역으로서 문화행정을 모든 정책의 중심에 세우고 행정을 문화화해야 한다. 특히 문화기반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키우며, 문화 관련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넷째, 모든 문화서비스 주체들은 정보사회에 적합한 문화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소비자와 창조자들에게 서비스한다. 또한 문화지표체계를 개발



이흥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장)

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지역은 국제 또는 국내의 지역들과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문화원의 성과

이러한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요구와 변화를 겪으면서 문화정책의 추진주체로서 지역문화원은 문자 그대로 암중모색하면서 면면히 이어왔다. 지난 40여년 동안 지역문화원들이 해온 일은 대략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존, 전승 및 선양
-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 향토축제와 지역문화행사 개최
-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생활문화 활동
- 공연 및 전시사업
- 청소년 선도사업 및 경로효친사상 선양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향토자료조사 수집 등 간행물 발간사업은 최근에 들어 연간 약 200 ~ 300종씩 생산되었다. 향토축제추진은 이천 도자기축제, 금산인삼제, 강릉단오제, 단양소백산철쭉제 등에서 보듯이 국내외 관광객 집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제 문화를 이정표로 삼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지역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이로서 지역은 지식기반사회의 창조성을 축적하며, 디지털시대와 함께 열리는 문화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지키며, 경제우선주의 정책으로 문화가 희생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문화향기 넘치고 개성 있는 성숙지역으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말이다.

지역문화행사는 국악경연대회, 건전 가요경연대회, 미술사생대회, 독후감경진대회, 청소년백일장, 효부·효자표창 등을 개최했다. 그 외에도 각종 공연 및 전시사업, 문화유적지 답사 및 문화소식지 발간에 앞장섰다.

또한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및 문화교류 활동에 문화원이 기여한 곳이 많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문화교육활동의 전개이다. 예컨대 생산적 선진생활문화, 문화원 문화교실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전통문화, 예술문화, 어학, 음악, 건강 등 분야에서 주민들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앞으로 지역문화원들이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우선 문화환경변화에 맞춰 중요한 점만 생각해 보자.

첫째, NPO시대의 비영리문화단체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문화원들이 앞장서서 21세기 문화시민운동을 주도해야 한다. 이는 21세기 선진문화국가로 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문화시민정신을 널리 펼치는 사업으로써 문화원이 담당하여 생활 속에서 시민문화가 싹트도록 자연스럽게 전개해야 한다. 방법은 바람직한 사례집을 만들어 홍보하거나, 문화원에서 주요 인사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봉사자 양성 및 인력뱅크화, 문화행사 모니터링요원을 확보하여 행사 때 마다 활용,



인구과소지역의 지역문화재 관리운동(한국형 시빅트러스트운동), 인구과다지역의 지역문화재 안내, 자원봉사요원 모집 및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지식사회의 지식중개자로서 거듭나야 한다. 지금 문화시대와 지식정보시대 그리고 고학력화사회에 우리는 살고있다. 이 삼각점의 가운데 놓인 시민들에게 지식은 자본이다. 넘치는 지식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민들은 지식정보의 갈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역설적 환경 속에서 산다. 이런 시대변화 속에서 문화원은 문화시대의 '지식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지식중개란 지식의 창조, 확산, 활용의 각 단계에서 지식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 지식사회와 지식국가를 만드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역할이다.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은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의 생활지식을 공급하는 지식중개자의 대표이다. 미래사회에 정말 필요한 창의성과 암묵적 지식(暗的知識)을 청소년들에게 길러주어야 한다. 문화예술을 통한 감수성 제고와 암묵적 지식중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이디어로 표출되어 소프트사회의 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지식시대의 중개자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문화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많이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주민자치적인 문화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지역단위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기틀을 만들고, 실질적인 지역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농어촌 인구과소지역의 문화정책은 이제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 문화원의 새로운 몫이다.

넷째, 문화가족의 자기개발 현장으로써 충실해야 한다. 미래는 고도의 개성사회이다. 모든 단체나 지역 또는 개인까지도 개성표현에 의해 정체성을 보장받는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개성이 빛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문화가족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문화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감상위주의 수동적 문화체험공간'으로써는 너무 소극적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창작위주의 적극적 자기개발 현장' 이어야 할 것이다. 대도시의 여유 있는 지역문화원의 경우라면, 문화가족들이 자력으로 문화활동이나 감상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인근 문화시설이나 문화유사시설을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실험적 자기표현기회를 문화원에서 갖고 싶은 욕망이 많을 것이다. 아마추어들이 소박하면서도 다양한 자기표현욕구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데 문화원만한 곳이 어디 또 있겠는가.

다섯째, 문화정책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나서야 한다. 문화를 둘러싼 21세기의 메시지는 '모두가 문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공급자의 역할은 당연히 '모두를 위한 문화정책' 이어야 할 것이다. 흔한 표현으로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문화원이 문화민주주의의 산실로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생활가까이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문화원을 찾는가. 비용이 저렴하고, 생활의 일부로서 접할 수 있으며, 디지털시대에도 영원히 남을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를 매개로 모든 사람들을 엮어 줄 수 있는 곳이고 보면 문화원은 지금보다 더 새로운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 프로그램으로 보여주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를 위한 문화공간으로써 지역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공공과 민간의 접점에 서있는 문화원의 몫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적 프로그램개발에 나서야 한다. 모든 문화원에게 적합한 표현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간이나 소득면에서 여유가 있는 지역의 문화가족은 스스로 그룹을 만들어 자기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성이 잘 것이다. 자주적인 프로그램 기획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소속감

문화관련 문화정책 제언 및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행동 파트너로서 연합회 역할이 커져야 한다.
지방시대로 치달리면서 종합조정력이 결여된 채 문화원활동이 가지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조정력을 키워야 한다.「지역문화활동연감」을 발행해야 한다. 문화단체 상호간 교류를 연계시켜야 한다. 정보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정보생산자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사회에 걸 맞는 문화원으로 남을 것이다. 문화원 활동의 최종완결은 자주적인 프로그램개발에 의한 자율적 운영이다.

구심체로서의 연합회

연합회의 존재에 대해 경시하는 경향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민간비영리단체들의 속성은 결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흔히 정책이나 방향만 있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은 이에 따른 것이다. 연합회 활성화를 통한 민간주도적 문화정책을 위해 연합회 활동은 개별문화원 활동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비와 같이 지난 40년의 성과의 중심에 연합회가 있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전개될 문화단체의 새로운 역할을 향도처럼 이끌어 가고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연합회의 활동방향은 몇 가지 점에서 새롭게 정해야 한다. 우선 중개자 역할에서 독자적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 정보교류자에서 정보생산자로 나아가야 한다. 단체들의 정점에서 네트워크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사업으로는 문화관련 문화정책 제언 및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행동 파트너로서 연합회 역할이 커져야 한다. 지방시대로 치달리면서 종합조정력이 결여된 채 문화원활동이 가지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조정력을 키워야 한다.「지역문화활동연감」을 발행해야 한다. 문화단체 상호간 교류를 연계시켜야 한다. 정보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정보생산자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원연합회의 활동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잡는가에 따라서 쇠진할 수도 있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는 전환기에 처해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40년을 내다보는 큰 걸음이 요청된다.

문화원은 어떤 존재인가?



황도훈
(해남문화원 원장)

서언

문 화원운동 40년사를 준비하고 있는 연합회에서 지역에서 문화원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할말이 있거나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원고용지 20매 분량으로 써서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40년을 돌아볼 때 아무리 무심한 사람이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없다. 내가 문화원 구성원의 한 사람이 된 1984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같은 생각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는 주변상황에 질려서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다.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 입네, 정치인 입네, 지도자 입네 설쳐대고, 이른바 유권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주고 있다. 문화가 무엇이며 문화원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세상은 나아진 게 없다.

진정한 한국인과 진정한 한국문화의 재발견과 재창출을 위해서 문화원은 지난 40년 간 외롭지만 순수한 희생정신으로 그 소임에 따라 열정을 다하여 일해 왔다.

그러나 진정한 한국인과 진정한 한국문화는 날로 위축되고 '아닌 것이' 붓물을 터놓은 듯 발호하고 있다. 문화원 40년의 역사를 운운할 면목이 없는 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니 할말이 있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는 말밖에 더 있겠는가?

1. 문화사업조성법

동족상잔이라는 기막힌 혼돈 속에서 문화원은 스스로 일어나 나라와 겨레의 미래에 예비하는 '국혼수호운동-민족문화의 재건'을 자부하고 나섰다.

원자폭탄의 폐허 위에 일본이 국가재건의 중임을 공민관에 기대할 때, 일제 35년의 상처뿐인 민족정기에 최후의 일격을 가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연출되는 한 가운데서 문화원은 국가가 아닌 민초로서 스스로 가공할 미래에 예비하

는 의병을 자처하고 나섰던 것이다.

나라를 다시 찾은 겨레의 정치가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일제잔재의 척결과 일제에 의해서 상처 입은 반만년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회복, 재건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정치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가권력의 획득에만 열을 올렸다. 오죽했으면 힘없는 민초들이 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자청하고 나섰겠는가? 그런데 국가는 문화원을 문화사업자로 간주하고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만들어 문화원에 큰 은혜를 베푸듯 행세했다.

나 개인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나 자치단체에 대하여 비겁하거나 구걸할 이유가 없는 평범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올해로 19년째 문화원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는 덕분에 국가나 자치단체에 대하여 마냥 비겁하거나 구걸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화원에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 때문이었다. 연합회 40년에 대해서도 나는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한국은 문화라는 말로 도벽이 되어 있다. 정부도 자치단체도 나아가 알량한 정치배들까지도 입만 벌리면 문화를 말한다. 자기가 무슨 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의기양양한 것이다. 그 속에 오직 하나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뿌리를 박고 있는 존재가 문화원이다.

그래서 문화원은 문화원에 가해질 불이익을 경계하고 문화원을 지키기 위해서 비겁자가 되거나 구걸자가 되어야 했다. 문화원마저 없는 지역문화, 민족문화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존심을 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문화는 특정 부류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향유해야 할 소중한 권리이다. 또한 전통문화나 역사적 유물을 소중히 보전하고 현대 문화예술은 활발하게 창조되며 이 같은 다양한 접근과 노력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문화창조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2. 지방문화원진흥법

1993년 12월 2일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문화원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문화원 단독법을 갖게되고, 이 법이 1994년 7월 1일부터 발효됨으로서 문화원은 민법법인에서 공법법인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그 법은 국가발전에 있어서 문화원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국가의 이해나 요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문화원이 당시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구걸하여 얻어낸 것이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질어만 가는 사회병리현상을 대면하며 문화원은 문화원운동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이해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 도저히 여기에서 빠져나갈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문화원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이끌어내자고 들고나선 것이 문화원법의 제정운동이었다. 그렇게 해서 문화원 법이 만들어지고 공포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문화정책도 문화원운동도 구태의연하여 기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문화원 직원들은 그 중요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최저 생계비도 보장되지 않는 급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철저한 회생정신으로 지역문화의 포괄적인 관리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연합회장이거나 문화원장은 국가나 자치단체에 의해서 자기 이익이나 감투욕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듯 묘한 대접을 받고 있다. 문화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혹 비겁자가 되기도 하고 혹 구걸자가 되기도 한 처신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 문화의 집

해남에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의 집이 있다.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그런 시설은 많을수록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막연해서는 오히려 폐해가 된다.

문화의 집은 그 태생의 동기가 참으로 충동적이었던 존재이다. 읍·면·동을 폐지하면 그 청사가 빈집이 되는데 그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센터요, 문화의 집이었다. 문화원도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유사조직인 문화의 집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의 문화정책이 이와 같이 졸속적인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아전인수가 아니다. 문화원에 축적된 성과가 없다면 문화의 집이 무엇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문화의 세기에 대응하는 종종 사업들이 자치단체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에 채울 내용은 어디에 있는가? 그나마 문화원이 있었기 망정이지 문화원에 축적된 역사, 문화, 예술의 성과가 없었다면 그저 껍질만의 토건사업에 그쳤을 것이다.

4. 문화원

한 때 연합회에서 문화원 회원을 무작위로 확보하여 그 명단을 연합회에 보고하라고 극성을 띤 적이 있었다.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하려면 그 조직이 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문화원은 임직원서를 낸 소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문화원은 지역주민 전체를 회원으로 하는 조직이다. 지역주민 자체가 지역문화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떠난 문화원은 이미 그 존재이유가 없어진다. 문화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자기 문화를 찾고 가꾸고 지키며 함께 문화적인 성장-사람다운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문화원 40년은 그러한 신념으로 일관된 40년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그 추체적 행보를 가로막고 자치단체가 발목을 잡았다. 문화원이 정부나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었다면, 그리하여 정



부나 자치단체에 대하여 할말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입장에 서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40년에 대하여 일장춘몽이라는 회한을 씹어 삼키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5. 우리문화

지금 우리는 한국문화의 존재양상에 대하여 우리에게도 우리 문화가 있다는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 바야흐로 우리 국어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 판국이니 무엇으로 우리 문화를 잘 가고 있는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문화단체에 문화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우리문화-민족문화의 동산지기를 자처하고 나선 문화단체는 오직 문화원이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는 문화원 40년의 역사를 문자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원 40년의 역사는 있어도 문화원이 지켜내겠다던 우리문화-민족문화의 동산은 40년 전보다 더욱 처절하게 자기 나라와 자기 겨레에 의해서 버림받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문화가 예산을 쥐고 있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켜지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수호와 발전에 문화주체인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만 그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

6. 지방자치단체

지금 지방에서는 자치주체에 의한 지방행정보다도 군수나 시장에 의한 행정의 전횡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화도 예술도 일자무식의 공무원이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

시대와 본말이 전도된

숨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화주체들은

그게 왜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자기들만 좋아서

장구 치고 북 치고

야단이다

자기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의 실제상 주체인 생활자가 참여의 대상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가식적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

문화도 예술도 일자무식의 공무원이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 시대와 본말이 전도된 숨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화주체들은 그게 왜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자기들만 좋아서 장구 치고 북 치고 야단이다(여기서 일자무식이라는 표현은 문화와 예술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결언

세상 되어 가는 꼴을 보면 말세가 아닐 수 없다. 그 속에서 문화원 40년의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굳이 의미가 있다면 40년 전으로 돌아가 오늘 우리문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응분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점일 것이다. 문화원의 새로운 40년은 정부나 자치단체에 대하여 당당하고 준비된 동반자의 역사이기를 바란다.

문화의 세기에 대응하는 문화원의 구실



양중해
(제주문화원 원장)

1. 文化의 世紀

21 세기로 접어들면서 많은 식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금세기의 특징은 문화의 세기가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살아온 20세기는 무한 갈등의 한 세기였고, 전쟁의 한 세기, 이데올로기 갈등의 한 세기였으니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21세기는 평화의 한 세기 공존의 한 세기가 되어야 한다고도 한다.

한편, 우리가 살아온 20세기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무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는 거대한 발전을 거듭한 한 세기였다. 그 과학과 기술의 위대한 발전은 또한 우리 인류에게 전혀 없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물질적 풍요는 당연히 우리 인류에게 전에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물질적 풍요는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도시생활의 악화와 더불어 도덕성의 타락까지를 초래하고 말았으며, 청소년문제의 심각화와 인간성의 상실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행복에의 기대는 한낱 환상에 불과하였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세기에 있어서, 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발전을 이룩하였고, 그만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도 인류는 행복하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은 어디 있었을까. 그것은 모든 발전계획에서 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을 너무나 과소평가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삶을 공통적으로 체험하고 살아온 인류가 새로 맞이한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을 아끼고 존중하는 삶,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삶,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한 세기, 곧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이 21세기에 있어서는 문화와 예술의 향유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인간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이러한 문제가 선진국 후진국을 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향수할 수 있는 예술과 문화의 양과 질은 인간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대중의 질 높은 예술문화의 향유, 이 문제는 오늘의 지방문화원이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어제의 文化院과 오늘의 文化院

우리 나라의 문화원의 시원은 1950년 6·25동란 직후 서울과 지방의 주요도시에 설치되었던 「미국공보원(USIS)」에서 볼 수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 국무성의 해외 기관으로서, 주한미국대사의 지휘 아래, 정부의 발표나 당국자의 담화, 이 밖에 미국 정세의 소개 등 미국의 선전과 홍보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었으니,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공보원이었던 것이다. 우리의 문화원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이어 50년대에서 6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문화원도 설치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의 수호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자생단체로서의 문화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니, 이러한 초기의 지방문화원은 국가나 행정당국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외롭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던 중 1965년에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되면서 이 조성법에 의한 지방문화사업자로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30년 가까이 운영되어 오더니, 1994년 1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전국 각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을 두게 되었다. 이제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변신하게 되면서, 지난날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전국 각 지역의 문화원도 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새로 재인가를 받아야 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임기 제한이 없었던 운영책임자인 원장의 임기도 「지방문화원정관(표준)제14조에 의하여 8년 이상은 재

문화는 특정 부류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향유해야 할 소중한 권리이다. 또한 전통문화나 역사적 유물을 소중히 보존하고 현대 문화예술은 활발하게 창조되며 이 같은 다양한 접근과 노력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문화창조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기 재임에 따른 정체와 무력함을 불식하려고 했다.

이렇게 오늘 이 나라의 지방문화원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면, 지난 6·25 이후 우리의 문화의 선각자들에 의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지역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아래 자생단체로 발족한 우리의 지방문화원이, 오늘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거듭 나면서, 정부로부터의 보조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를 받아 가

며, 각 지역의 전통문화의 보존사업과 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광역시의 각 자치구를 비롯 전국 각 시,군 지역에 215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3. 文化院과 藝術文化團體와의 구실의 차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로 열린 이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가꾸고자 할 때, 그 막중한 책임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전국의 지방문화원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전국의 각 시,군,구에 예외 없이 설립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한국의 문화의 세기를 활짝 열어야 하는 수명자이며, 책임자인 것이다.

흔히 문화원과 예술문화단체를 그 구실에 있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나라 그리고 그 한 세기의 문화예술을 진작시키는데는 문화원과 마찬가지로, 각종 예술문화단체의 활약과 노력 여하에 기인하는 면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주된 책임은 먼저 지방문화원에 있다는 것은 지방문화원 자신이 먼저 알아야 할 일인 것으로 생각한다.

예술문화단체라고 할 때 먼저 생각되어지는 기관이 예총이고, 예총 산하의 각종 장르별 단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총도 문화원만큼 전국의 각 시,군,구마다 조직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도마다 지회가 있고, 지회 아래 지부가 구성되어 있는 곳도 여러 곳이 된다.

그러나 문화원과 예총은 그 조직의 목적부터 아주 다르다. 여기 잠깐 지방문화원과 예총의 창립의 목적과 그 사업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이 양자는 판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방문화원의 목적과 사업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문화원정관」 제3조(목적)에 보면, '본 원은 지역사회의 개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그 목적이 밝혀져 있고,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는 제4조(사업)에 '본 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라고 전제하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열거하고 있는 사업을 정관에도 그대로 밝혀 놓고 있으니

- ①지역 고유의 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 ②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③지역문화행사의 개최
 - ④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교류
 - ⑤지역 전통문화의 국내, 외의 교류
 - ⑥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활동
 - ⑦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 ⑧기타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등의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문화예술단체로서의 대표적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정관을 보면, 그 정관 제3조(목적)에 '본회는 예술문화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그 권익을 옹호하여 민족예술의 국제적인 교류와 나아가서는 인류 예술문화 발전 및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사업으로는 그 제4조(사업)에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전제하고, 아래와 같은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니

- ①10개 예술분야 및 관계 단체기관의 상호 친목을 위한 각종 친목회 개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 아래,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호 육성하고 이러한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출하고자 할 때, 우리는 문화원의 활동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이러한 막중한 구실을 지닌 지방문화원은 정부의 정책으로 크게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②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권익 옹호 사업

③ 한국예술의 지향성을 검토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움 개최

④ 국내 예술활동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 통계

⑤ 10개 예술분야 사업보고 및 국내외 예술활동 보고회 개최

⑥ 한국예술의 해외 진출 및 교류

⑦ 한국예술을 소개하는 종합 예술지 발간 보급(국내판, 해외 홍보판)

⑧ 해외 유명 예술인사 초대 세미나 및 순회강연 개최

⑨ 기타 본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 시설 이와 같이 열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잠깐 지방문화원과 예술문화단체의 대표적인 예총과의 그 창립 목적과 사업을 상호 비교하여 보면, 지방문화원의 창립목적과 사업은 지역사회의 개발 및 문화진흥에 있다는 것인데 반하여 예총의 창립 목적과 그 사업은 예술문화인 상호간의 친목의 도모와 권익 옹호가 주된 것처럼 보인다.

문화원의 인적 구성 요원은 예술문화인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예총의 인적 구성 멤버는 예외 없이 예술문화인이어야 하며,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의한 수혜자는 일반 시민인 것인 반면, 예총의 활동에 의한 수혜 대상자는 한결같이 예술문화인 자신들인 것이다.

정부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바꾸려고 할 때, 먼저 전국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이 우선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삶의 문화적 환경

문화의 세기에 있어서의 우리 인류의 삶의 환경은 끊임없이 문화적 안목으로 다듬어지고 장식되어진다는 것

이다.

우리가 입는 옷도 처음에는 사람의 알몸을 싸서 보호하거나 또는 더위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하여 입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의 의복은 처음의 그러한 목적외에 민족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발달하면서, 입은 사람의 미적 감각과 품위를 표현한다는 등의 목적에서 심 없이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 가며, 오늘 의 의복문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호화유람선이란 배가 있다. 처음에 배란 것은 바다나 강물을 건너기 위한 삶의 필요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호화유람선이란 것은 그 배에 타서 삶을 즐기고자 하는 목적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고급적이면 현대적 문화시설을 골고루 갖춘 환경을 배속에 꾸며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문화적으로 다듬어져 나간다는 것은 이 호화유람선의 발달이 지향하는 목표와 같은 것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

문화나 예술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과 부(富)의 창출에도 그 원천이 되기 때문에, 미래산업의 중심적 가치로도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상상력에 의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하여 그 발전의 길 또한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상품에 있어서도 문화와 감성을 지닌 상품일수록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며, 소비자는 사용가치보다도 정신적, 감각적 만족감에 따라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교역에 있어서도 문화가 상품 수출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지름길이 될 것이다.

5. 文化院의 育成策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 아래, 우리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지방문화원은 남의 시설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기관이나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배정 받아야 하거니와, 예산배정에 있어서는 늘 배정을 하는 상부기관에서는 넓은 전 분야를 바라보며 적정예산, 아니면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노라고 생각하게 되고, 예산배정을 받는 하부기관으로서는 좁은 자기의 분야만을 뚫어 보면서 늘 적게 배정되었다고만 생각하게 된다.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문화분야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 충분하지 못한 예산도 그 대부분의 많은 액수를 문화행정을 맡은 관에서 거의 써 버리게 된다. 이는 지역의 큰 문화행사는 예외 없이 관이 도맡아 하고 있다는 말도 된다.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문화원 운영에 있어서 운영책임자인 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같이 논할 것이 아니지만, 문화원 사무국장이나 간사와 같은 요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정액 보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운영요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 결과는 기관의 운영에 부실(不實)을 초래한다. 기관요원은 그 기관에 봉사하는데 긍지를 느끼며 그 근무하는 기관에 대하여 애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고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기하려면, 문화의 세기에 있어서의 지방문화원의 구실이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이 지방문화원의 육성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필요한 것은 지방주민들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뜨거운 애정 어린 보살핌이다. 지방문화원은, 자체 회원들의 친목의 도모와 자체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설립된 여타의 문화단체와는 그 설립목적부터 다르다. 지방문화원은 그 지방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없이는 자랄 수 없다. 지방 주민들은 늘 그 지역의 문화사업을 위하여 어려움을 이겨 가며 노력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할 것이다.

의 전통문화를 보호 육성하고 이러한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출하고자 할 때, 우리는 문화원의 활동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이러한 막중한 구실을 지닌 지방문화원은 정부의 정책으로 크게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의 지방문화원의 애로는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오늘의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아래 운영되고 있지만, 일선 문화원에서 느껴지는 체감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아직도 지방문화원의 막중한 그 구실과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불식할 수 없다. 지금 전국에는 총 215개의 지방문화원이 있지만 이 가운데 문화원 자체로 원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원은

문화원 40년사와 그 진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생활해온 겨레로써 문화적 영토를 바로잡아 세워야 하는 당면 명제 아래서 우리 문화원이 감당해야 할 몫은 매우 크다 하겠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 문화원은 후진 사회의 탈피를 위한 시대 발전적 상황 속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유민화(流民化)하고 표류하는 문화 상황하에서 그나마 고고하게 고유의 전통향풍을 지켜내기에 마지막 보루를 자처해 온 유일한 민간운동 단체이다.

지난 40년간의 한국문화원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보면 1950년대를 생성기로 본다면 1960년대를 성장기, 1970년대를 중흥기, 1980년대를 활성기, 1990년대 이후를 융성기로 볼 수 있다.

생성기인 1950년은 6·25 전쟁 중에 당시 미국공보원의 영향을 받아 영사 활동을 주축으로 전시사업을 연계하는 차원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다. 전국 곳곳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기 시작하였으나 공인도 얻지 못한 판국에서 향토 개발을 위한 계몽활동 수준으로 향토문화 수호를 외장 처운 때였다. 오히려 주민들의 자주, 자활의식을 고취하는 상록수 가꾸기운동까지 닦치는 대로 계몽운동의 기초를 닦아냈다.

맨 처음 밀양문화원을 필두로 하여 대전문화원, 인천문화원, 공주문화원, 수원문화원 등 경상, 경기, 충청, 강원, 호남지방으로 확산되어 50년대 말에는 78개 문화원으로 늘어났다.

성장기인 1960년대에는 문화원이 공인을 받는 단계였다. 1962년 1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발족되어 비영리 사단법인체로 발돋움 한 것이다. 전국에 있는 종래의 사설문화원이 1964년 말에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발효된 1965년 초에 제도적인 보호를 받아 각 문화원이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공인 승격된 것이다. 이때부터 문화원연합회를 통해 각 문화원에 처음으로 정부의 보조금이 30,000원 수준에서 지급되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정부가 문화원의 존재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평가해준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사설 문화원들 스스로가 서로 협동심을 발휘하고 공동체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그 나름의 구심체를 가질 필요를 느낀대서 그 발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중흥기인 1970년대에는 초기에 유신정치 등의 정치적 혼란기를 맞아 일시적인 정체에 빠졌고 일부 문화원은 부실운영으로 유명무실화되었다. 이는 60년대 후반에 정부의 육성시책에 편승하여 자질도 갖추진 못한 문화원이 무분별하게 신설 되면서 비롯된 폐단이었다. 거기에서 정부는 1972년부터 얼마 안되는 보조금마저 중단하는 바람에 건실하게 이끌어오던 문화원과 문



이기화
(고창문화원 원장)

회원연합회까지도 정부보조가 중단되는 곤경에 빠지기도 하였다. 돌이켜 보면 이는 문화를 모르는 군부지도층의 무지에서 오는 정체현상이었다.

그러나 원장의 선각지심으로 문화사랑이 출중한 문화원들은 오히려 자력으로 문화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60년대의 정부에 예측된 홍보체제의 폐단을 지양하고 지역 특성을 살리는 향토문화의 계발, 정리, 보존사업을 자주적으로 전개하여 문화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문화원의 성격이 드러나 어렵곳이나마 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서 문화원의 진로가 열리게 되어 이 시기를 중흥기로 보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문화원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 1974년에 문예진흥기금의 지원과 1976년도에 국고 보조금을 재개하는 등의 새로운 육성 시책을 펴내기에 이르렀다. 지방비 보조에 이어 수반된 지원책이 강구되어 숨통을 되찾게 된 것이다. 이 시기의 특색은 정체된 문화원 운영시책이 재정비되면서 문화원의 성격에 진로정립을 꾀하여 향토문화 창달에 진력하는 것이었다.

전통 문화의 선양 및 그 의식교육에 이르는 사회교육을 도맡아 전개함으로써 바야흐로 문화원이 무엇하는 기관인가를 내외에 드러내 보였으며 향토사료의 조사, 발굴, 연구 등을 통하여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유도해 내기도 하였다.

활성기인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부에서도 새로운 문화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문화원에 대한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본래의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전승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1983년부터는 미설치 시,군에도 문화원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문화원은 1976년에 126개원이던 것이 1984년에는 145개소, 1988년에는 185개로 늘어났다.

융성기인 1990년대에 이르러 1991년 10월 문화의 날 기념사에서 『문화주의 시대 원년』을 선포하면서 문화발

전 10개년 계획을 수립, 정보화 사회를 맞아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복지의 실현에 전력하고 있으며, 1994년 6월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의 발효로 지방문화 시대에 걸 맞는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켜 균형 있는 지방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01년도를 지역문화의 해로 정하여 민족문화의 원천인 방방곡곡의 향토문화가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로서 빛을 보게 되어 지역민들은 지난 역사나 문화적 전통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전국의 지방문화원은 지역 문화 발전의 거점으로서 그 지역 사회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역할과 비중으로 향토문화의 창달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더욱 큰 사명의를 갖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문화원은 향토문화의 진흥, 향토문화의 창달의 가치를 높이 들고 6·25전란 이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 자랑스런 성현들의 얼을 계승 보존하는 문화운동을 줄기차게 벌여 왔다.

수천년을 이어온 이 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는 일제치하의 단절정책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 광복 이후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유입과 이에 대한 자기 나름의 소화 불능현상 속에서 더욱 큰 병폐를 안게 되었으며, 60년대 이후 문화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장치가 너무 많아 지역적 특성들이 더욱더 붕괴되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도시 지향적 이주현상까지 빚어 우리 모두 향토를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향토 없는 유랑인이 되어 향토문화를 지킬 사람조차 없게 된 안타까운 현실을 맞게 되었다.

지방화 시대가 열려 지역 문화의 회복에 대한 제고와 그 방편이 집약되고 여기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발전의 맥이 재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계승발전의 의미는 전통문화의 모방적 유지 재현이 아니라 그 고장의 정신적 가치관의 정립과 시대 발전에 걸맞은 계승적 검토에서 승화되어야 한다.

이제 일부 부진한 문화원도

아집과 폐쇄성을 지양하고

전폭적인 개방과 과감한

**사명의식의 대안 제시로 새로운
변모를 시도해야 할 줄 믿는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민주적, 인적, 물적 자원의 합리적인 동원과 자율적으로 발전적 계승의 전통문화가 꽃피어 질 수 있도록 그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 내야 할 당당한 향도로서 지방문화원은 그 임무와 진로를 모색해야 할 줄 믿는다.

지난날 어려웠던 과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왔던 문화원은 헌신 봉사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려 민족문화유산의 보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앞장서서 자율적으로 향토사료의 조사정리 전통문화 진흥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향토문화 유산의 재조명을 통한 지방문화시대의 기초를 확실하게 닦아 왔었다.

이제 일부 부진한 문화원도 아집과 폐쇄성을 지양하고 전폭적인 개방과 과감한 사명의식의 대안 제시로 새로운 변모를 시도해야 할 줄 믿는다.

정부의 새 문화 정책이 지향하는 활성화된 지역 문화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평범하고 단순한 편의 제공의 문화시설이 아니라 지방문화시대에 걸맞도록 지역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주체적으로 선별 기획하고 체계화하는 향토문화사업의 전개에서 스스로 격을 높여 계승 발전시키는 인적 확보와 자금 확보, 그리고 효과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황금만능풍조가 극에 달해 견잡을 수 없는 역경의 현실을 극복해내는데 명실 공히 향토문화센터의 동산지기로서 탄실한 좌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90년대에 들어 정부가 내놓은 『문화발전10개년 계획』에서 시도된 문화 창조층과 향수층에 대하여 문화원 환경과 여건을 부여하며 창조력과 향수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궁극의 문화주의 실현과 새 시대 정신의 창출을 위한 정책과 전략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당면 명제로의 뜻이 있다 하겠다.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갈등 구조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도덕과 질서, 전통의식에 대한 가치 기준의 붕괴로 인하여 더욱 심화된 이질화 현상의 해소 등은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길과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의 조화롭게 어울리는 통합의 마당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향의 설정에 기대를 모으고 있

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세계 질서의 개편과 남북화해 시대의 개막을 열어야 할 마당에 주민자치시대와 문화주의 시대의 전개 등 복잡하게 변모해 가는 시대 상황 속에서 한국적인 삶, 한국적인 정신, 한국적인 문화를 추구해야 할 도약의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역사와 문화의 주체로서 백성이 있고 그 백성들이 삶의 방편으로 만들어 낸 것이 향토문화이며 그것들이 어우러져 짜낸 것이 민족문화가 됨을 우리는 깊이 간파하고 있다.

그리고 그 민족문화의 원본적인 바탕이 되고 있는 향토문화에 대해 깊은 애착과 관심을 두고 지금까지 40년간을 갈고 다듬고 꽃피어온 우리 지방문화원과 문화가족운동의 업적은 결코 역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향토문화발전의 금자탑이 됨을 우리들의 긍지로 삼아야 한다.

또한 정보화 사회를 맞아 급변해 가는 지구촌화의 인터넷시대에 대비하는 생활문화 향상과 국가 경쟁력의 신장을 위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내는 콘텐츠 산업의 생산요소로서 전국의 지방문화원의 지킴이들은 그동안 발로 뛰면서 오랜 문화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창의적인 바탕의 활동력으로 지켜낸 향토문화를 매우 높은 가치성으로 평가하고 있거니와 생활문화를 향상시켜 행동하는 문화역군으로서 자부해온 우리들은 민주시민 문화의 창달을 위해 향토문화의 진수를 일구어 내기에 더욱 발전해야 할 줄 믿는다.

지역문화의 현주소

전 국문화원연합회 40년사를 발행함을 우선 축하 드리면서 매우 뜻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40년의 역사라니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혼란과 격변의 시대를 거쳐 오면서도 오로지 온고지신(溫故知新)과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우리문화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한편 지역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진력해 오셨으며 많은 문화적 업적을 쌓아온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이수홍(李秀洪)회장님을 비롯하여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허백영
(의령문화원 원장)

우리사회의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정치경제 제일주의의 그릇된 가치관과 함께 문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제 몫을 다하기란 정말 간단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제이론으로 문화를 평가하려고 가시적 성과와 전시 효과를 기대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문화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한편 특수계층만이 누려왔던 문화향수욕구를 보편화, 일반화시키고자 애써오면서 버겁고 힘든 과제를 안은 채 그야말로 험로역정이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필자가 문화원에 몸담은 지는 겨우 7년 남짓합니다만 40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지역문화의 기틀을 잡고 또한 다양하고도 내실있는 문화사업을 추진해 온 여러 전현직 선배님들의 노고와 업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지방문화원의 연합체인 중앙회에서도 「우리문화」를 비롯하여 「한국의 향토문화자원」 등을 발행하고 매년 전국향토문화연구 발표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방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정기적인 연수회와 실무교육등 지역문화창달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더구나 향토문화의 근간이랄 수 있는 건전한 정신문화의 창달과 함께 올바른 선진생활문화의 정착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화원에 몸담아 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토대로 해서 필자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어느 학자분의 지적처럼 우리는 지금 걸치레이거나 헛구호에 그치지 않을 까하는 우려 속에 문화의 세기, 문화의 달 또는 문화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복이후 반세기를 더 넘기면서도 외래문화의 굴레를 벗지 못한 채 언어, 음식, 의복, 교육, 예술 심지어는 각종 지역행사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흥내내기에 그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랜 전통과 함께 우리다운 멋과 특이한 색깔이 있는 것조차도 외래문화에 동화되거나 변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도 학자분들의 주의 주장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보아서 우선 차별화된 독특한 문화 그리고 조화로운 문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의 창조적인 측면과 문화향유의 입장에서 보는 견해라 할 수 있습니다. 광복이후 우리는 서양문화는 곧 선

진문화요, 우리것은 후진문화요 낡고 쓸모없는 골동품인 양 여긴 채 스스로 무시하거나 배척해 왔음이 사실입니다. 문화에 대한 가치기준을 외래문화에다 두었고 그게 바로 선진문화라고 여겼으며 우리 스스로도 뿌리있는 우리 것을 내다버리기에 바빴고 잊고 잃는 과정을 되풀이해 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일제강점기 40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족정신과 전통문화의 말살정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광복후의 외래문화가 붓물처럼 터져 들어오고 일부 지각없이 추종하던 친일매국적인 어용문화인들의 극성스런 활동 때문이었다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가치적도를 외래(서양 또는 왜색적인 것)의 잣대로 재고 재단하다보니 우리고유의 문화는 이리저리 찢기우고 버림받으면서 천대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뿌리있는 전통민속이나 민간신앙, 제례 등은 엄청난 제재와 함께 배척의 대상이 되어 왔다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스스로의 의식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할 것입니다. 잔혹한 식민통치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도 일리는 있겠지만 실은 우리 것을 무시하고 남의 것을 선호하는 좋지 못한 사대주의적 의식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세기를 넘기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즈음인데 아직도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은 사회적 상위계층이나 경제적 부유계층 그리고 전문지식인 계층만이 누리는 것으로 인식돼 왔으며 일반 서민들에게는 생소하고 멀게 느껴지는 분야로서 참여하거나 접근하려는 생각마저 하지않고 그림

문화란 어느 지역이건 그것을 공유하고 부담감 없이 향유하는 데서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조화를 이룬 사회라야 할 것입니다. 어느 특정계층만이 호응하고 그들만이 누리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지만 문화가 아닐런지도 모를 것입니다. 문화입국이라거나 문화경쟁력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관의 명령이나 지나친 간섭, 사전사후의 통제나 제재를 당연시하고 있다면 진정한 문화, 독창성과 차별성 있는 지역문화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며 자생력을 완전히 잃고 말 것입니다.

속의 떡으로 알고 왔다는 것 또한 큰 장애물이었다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은 중앙이나 광역시에서나 찾아볼 수 있고 지방 특히 농어촌에서는 그림자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자주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화의 불모지대라 할 것입니다.

문화의 혜택을 받거나 그것을 향유하는 지역이 대도시 사람이고 활동하는 전문가도 역시 서울이나 대도시지역에 몰려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 지역의 문화행사나 소위 축제로 불리워지고 있는 행사도 모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치러지는 프로그램의 복사판인 채 그 지역의 독특하고도 차별성 있는 토속적인 색깔을 가진 행사를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지역문화는 말할 것도 없이 하루빨리 제모습을 되찾는 일이라 할 것이며 그것을 고루 향유하는 것이 시급할진대 제빛깔, 제냄새, 제혼이 배어 있을 때 가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선진문화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인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국은 흡수되거나 동화된 채 우리 것으로 재창조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문화란 어느 지역이건 그것을 공유하고 부담감 없이 향유하는 데서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조화를 이룬 사회라야 할 것입니다. 어느 특정계층만이 호응하고 그들만이 누리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지만 문화가 아닐런지도 모를 것입니다. 문화입국이라거나 문화경쟁력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관의 명령이나 지나친 간섭, 사전사후의 통제나 제재를 당연시하고 있다면 진정한 문화, 독창성과 차별성 있는



특집 |

적의 한가지로 남게될 뿐 문화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시설물의 증개축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시설만 거듭 발주를 하면서 준공행사는 더욱 거창하게 치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문화라는 큰 그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요불급한 시설비나 선거 때의 표를 의식한 전시효과와 인기영합만 생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문화는 당장 보여주고 만져 볼 수 있고 실리가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표준이나 정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 또는 그 지방의 고유한 것 즉 뿌리가 있는 것이며 민족이나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와서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함과 차별성에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문화란 그 지역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누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남의 것을 흉내내고 닮아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것, 우리문화는 소멸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임을 다함께 염려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문화의 세기를 그리고 해마다 문화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한 중앙문화 중심이 아니라 지역문화가 제자리를 잡아가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큰 과제의 하나라 할 것입니다. 올해로 전국문화원연합회 발족 40돌을 맞이하여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으로 외화내실(外華內實)의 큰 이벤트행사와 함께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전국문화원연합회 40년사 발간을 위해서 애쓰신 이회장님을 비롯한 하만기(河萬基)사무총장님, 장상호(張相鎬)총무부장님, 전명찬(全明燦)문화정보과장님, 김진미(金振美), 이동아(李東娥)간사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지역문화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며 자생력을 완전히 잃고 말 것입니다.

정부 고위층의 신년사나 정책기조를 발표하면서 단골로 들먹이는 말이 있는데 간섭은 최소화하고 지원은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방문화행정에서 보면 그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인사치레로 기억될 뿐입니다. 향토문화의 구심체이자 견인차 역할을 다하면서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의 위상은 겨우 큰잔치의 들러리나 집사격에 불과한 게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좀더 나아지리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사실은 장애물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오히려 위축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의회는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우선가시적 성과나 실익의 문제를 내세우면서 푸대접을 받고 있음이 공통된 현상일 것입니다. 게다가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민간기업체의 협조마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기획작품을 선보여서 호평을 받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고나면 모두들 생색내기에 바쁜 게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별 이벤트행사라고 막대한 인력과 경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회성이며 요란한 전시효과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인의 명성을 높이고 알량한 치

여럿이면서 하나인 문화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가 잊었던 축제이고 문화라고들 말하고 있는 월드컵의 열기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우리 세대에서 이룬 이 감동의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우리가 문화민족이라고 하면서도 월드컵이라는 이벤트에 그렇게도 감동한 까닭이 무엇일까.

이것은 지금까지 진정한 문화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전국문화원연합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문화원 가족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운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지 반세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21세기를 맞이하였음에도 여전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친숙하지 못한 관념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아직도 문화를 생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불과 15년 전만 하여도 우리의 것을 버리고 지우는 것이 문화민족이 되는 길이라고, 그래서 미국 것이나 서양 것이면 무조건 흉내 내고 모방 하는 것이 문화인이고 교양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분명 잘못되었건만 누구 하나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 또한 없다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일들이 과연 잘 살아보자라는 성장 제일주의의 탓만으로 돌려야 할까.

아니다. 우리는 아직도 문화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는 생활이고 감동이고 느낌이고 꿈인 것이다. 우리가 월드컵 때 그토록 열광하였던 단어가 무엇이던가. 바로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렇다 문화는 꿈이고 이것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생활 그 자체인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선조들은 일이 놀이이고 놀이가 일이라는 것을 생활 속에 실현하였던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모든 것을 죽이지 않고 살려가면서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생활을 두고 일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이라고 하여 다시 옛것에서 21세기의 발전 모형을 탐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전국의 문화원과 전국문화원연합회를 돌아보자.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것을 버리고 서양을 흉내내고 있을 때 버려지고 잊혀지는 것을 모아 보존하고 전승하려고 사람들이 모여 사랑방지기라고 하여 문화원을 구성하였다. 그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눈칫밥을 먹듯 조심스럽게 단체를 구성하여 구걸하듯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세우



안용산

(시인 · 금산문화원 사무국장)



는 문화는 무엇이던가. 바로 그 시절에 버리고 무시하던 우리 본래의 모습이고 정신이 이제는 문화상품이라고 하지 않던가. 전국에 걸쳐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원의 일들이 이제는 바로 지역경제와 지역문화를 살리는 무형의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실적을 모아 매년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어 이제는 국책기관에서도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성장을 하였다. 또한 『한국의 향토문화자원』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한 세기 동안 묻혀 있던 각 지역의 정체성을 들어내어 같음과 다름을 파악할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게 하였다. 이 두 가지 사업이야말로 그 동안 묵묵히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문화원과 이러한 각 지역의

문화원을 지원한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함께 이룬 사업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각 지역의 문화원과 연합회가 하여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 문화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엇으로 할까. 한의 문화인가. 신명의 문화인가. 해학의 문화인가. 지난 월드컵을 통하여 세계에 드러난 한국의 이미지는 한도 아니요 해학도 아닌 역동성이었다. 그때 우리가 내세운 역동적인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가 바로 우리 문화의 이미지가 아닐까 한다. 이 역동성은 우리 문화 곳곳에 남아 있다. 풍물에서 파생된 사물놀이와 난타가 그렇고 김치에 담겨있는 깊은 맛이 그렇고 어려울 때 하나가 되는 협동심이 그렇고 꿈의 산업이라는 정보산업이 그렇다.

전국문화원연합회와 각 지역의 문화원이 이제는 이 역동성을 살려 여럿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여럿인 문화를 생산하고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사회는 서양의 이분론적인 사유형태, 즉 부분이 모이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도 전체가 된다는, 즉 부분에 담겨있는 전체를 찾아내 새롭게 창출하는 역동성을 문화에 살려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각 지역의 문화원에서는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믿고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열린 시야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열린 시야는 각 지역문화에서 펼치는 사업이 우리 것이라는 이유 하나만을 강조하는 그런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향토문화자원』을 보면 같음과 다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전승되는 문화라면 그것은 자기 지역의 특징이 살아있는 특장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사업보다는 다른 지역의 문화에서 벗어나는 특징을 새롭게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업을 기획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기획한 『한

국의 향토문화자원』이라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국책기관에서 발간하는 책과 비교하여 볼 때 다른 기관이나 유사한 문화단체에서 흉내낼 수 없는 시각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요인인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원연합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을 발견하고 그러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펼쳐진 지도 오래 되었다. 비록 완성되지 못한 지방자치이고 또 부작용도 많이 노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시대를 살아가는데 문화원의 할 일은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을 하고 연합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찾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일부 문화원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위임하는 일을 단지 시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같은 문화권은 물론 다른 문화권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도 이해하고 특징을 찾을 수 있는 시야를 갖춰야 할 때가 되었다.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를 구별하고 그곳에서 자기 지역만의 가치를 찾아 즉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에서 같은 것을 찾아 이것을 자기 지역의 이미지로 창출하고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시대에서 문화원이 할 일이라고 본다. 이것은 각 지역 문화원의 구성원이 여전히 눈칫밥을 먹고 구걸하듯 하면서 문화원을 운영하는 현실에서 볼 때 꿈 같은 일이라고 말할지 모

이제 문화는 사치나 소비가 아니며 생활이고 산업이면서 동시에 감동이고 꿈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전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사랑방지기가 아닌 태극전사가 되어야 한다. 늘 전사는 외롭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외로움만큼 아름다운 일도 없을 것이다.

르나, 왜 우리는 월드컵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말에는 감동을 하면서 문화원에서 하는 일들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아직도 우리는 문화를 모른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문화원이 가져야 할 꿈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으며 지난 40년 동안 그들에서 묵묵히 문화원 발전을 위하여 일하던 선배 지역문화 일꾼들에게 약속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40주년을 맞이한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전국 각 지역의 문화원에서 하는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 이 역동적인 사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관계기관은 물론 각 지역 문화원의 협조를 받아 시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각 지역의 문화원이 이 시대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문화는 사치나 소비가 아니며 생활이고 산업이면서 동시에 감동이고 꿈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전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사랑방지기가 아닌 태극전사가 되어야 한다. 늘 전사는 외롭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외로움만큼 아름다운 일도 없을 것이다.

문화상생(文化相生)

살기위해 앞만 보고 죽어라하고 내달렸던 지나온 40년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이라는 절대명제 앞에 큰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문화'라는 미래의 생활을 준비하려는 지계를 지고 온 문화원연합회 40여 성상의 풍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제 40년 흔들리지 않는 꾀꿍함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갖추어 온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문화의 발원지를 살피고 가꾸어야 할 어른이 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17회에 걸쳐 전국의 향토문화를 개발, 연구하여 지방사학의 위상은 물론 제도권이 미처 접근하지 못하는 향토사(지방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은 그 준비 과정은 물론 결과 또한 상찬을 받을만하다고 하겠다. 향토사 전문연구가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지방사학(향토사)은 바로 그 지역에서 우리 역사를 배우고 가꾸는 향토사학자들의 땀의 결정이기에 그 가치는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또 『동국여지승람』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전국 248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생활, 예술, 관광, 문화시설 등을 집대성한 『한국의 향토문화자원』은 오늘날의 『속,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될만한 훌륭한 자료라고 믿고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이제 40년 성년이 되어 전국문화원 노하우의 결정체가 되려는 우리문화, 역사만들기 사업은 그 시작 만큼이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우리의 일그러진 문화관습을 바로잡는 동인이 될 것이며, 마을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확신하게 된다.

앞에서 잠깐 스쳤지만, 문화는 언제나 개발논리에 밀려왔다. 문화는 그 광활한 범주만큼 쓰임새 또한 사람의 숨결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동반해 오고 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우리는 문화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오고 있다는 역설이 성립될 수 있겠다. 그러나 문화는 생존이 아니고 주어진 삶 속에서 남과의 교류를 통하여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교감이 선제조건이 된다. 이것은 양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문화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강제나 억압에 의한 타율성 문화 습득은 그 훗날 막대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겨우 회복할까 말까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문화를 약간의 비유를 들어 얘기하여 본다.

조출하고 아담한 음식점에서 식사 후 승냥은 구수한 향내와 함께 소화를 돕는 후식으로 더할 나위 없는 맛을 낸다. 그러나 어떤 집에서는 커피를 내준다. 그동안 승냥은 훌륭한 향기와 구수한 맛을 커피의 찌득함 속에 방기하고 우리는 원두니 맥심이니 하는 승냥 대용의 커피를 선택했다.



고종현
(정선문화원 사무국장)

얼마 전, 20년 이상 매일 한병 이상의 콜라를 마셔 온 우리나라 남성이 콜라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유는 이빨이 모두 못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겐 수정과나 식혜라는 아주 훌륭한 음료수가 있었다. 꽃감을 냉수에 불려 자리끼로 마셔본 사람은 그 시원함과 달콤한 맛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한 겨울 살얼음이 살짝 언 식혜는 또 어떠한가? 이들 또한 콜라에 밀려 기억의 한편으로 사라졌다가 이제 천천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들이다.

수능이나 본고사를 치르는 시험장의 교문은 합격을 기원하는 엿을 붙이는 풍경을 해마다 신문보거나 방송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세태대로 본다면 엿보다 초콜릿을 붙여야 하는데 어찌하여 엿을 붙이는가? 엿은 '곡식으로 밥을 지어 엿기름으로 삭힌 뒤 젓물로 밥이 물처럼 되도록 끓이고, 그것을 자루에 넣어 짜낸 다음 진득진득해질 때까지 고아 만든 달고 끈적 끈적한 음식'이다. 이렇게 절차상의 시간과 숙성의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음식이 엿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어머니들은 아들딸의 합격을 기원하는 정성으로 예부터 시험을 치르는 날에는 엿을 싸서 주었고 그것이 작금에는 교문에 엿 붙이는 합격기원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다. 이 엿 또한 초콜릿에 밀려 사라졌다가 겨우 의식적인 요소에만 명맥이 남아 있다.

고려의 가야나 조선의 시조, 근대의 창가 등과 같은 음악적인 가락 또한 서구의 팝이나 샹송, 칸초네, 재즈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다. 독일의 로렐라이는 부르면서도 우리의 아리랑은 '잘 모르다'는 겸양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창하게 영어로 외국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가곡 '가고파'를 모르던 시대가 있었다. 그래야만 문화인이고 지식인의 범주에 들었던 세상을 지나왔다.

우리나라 곳곳의 문화재를 탐방하고 서당을 견학하여 꼼꼼하게 챙기는 젊은이들과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기 것을 비하하던 우리의 자세가 내 것의 소중함을 느낄 줄 아는 품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 모두가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관통하였을 때 우리의 문화관(文化觀)은 새로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몽블랑을 케 이블카로 오르면서도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나중에 가도 늦지 않다고 기쁨을 토하는 해외여행파의 수준 낮은 역사의식은 집안 전체를 온통 양식으로 꾸미고 살아야만 문화생활을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나름의 문화생활은 모방과 추종으로 압축할 수 있는 절대복종 아래 지금도 굴종하고 있다. 도시는 '명품전'이라는 허세 아래 호객하고, 셀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잡지는 외래의 생활용품으로 도배를 했다.

민속촌 전통혼례 마당은 구경꾼으로 발 딛을 틈이 없다. 외국인들은 금줄 제일 앞에서 미리부터 자리를 잡는다. 인사동 후미진 골목의 목향을 외국인에게 모두 내주지 말고 우리도 호흡하며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다행스러운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의 음식점들이 후식으로 승냥을 손님들에게 주고 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우리의 수정과나 식혜 등을 즉석음료로 개발하여

당당하게 콜라 등의 외국산 음료와 맞서고 있다. 생일과 합격 선물 등으로 엿의 모양을 다양하게 만든 상품이 제 자리를 찾고 있다. 서양노래를 부르던 가수들이 승산이 없다며 우리 음악을 다듬고 만들어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 곳곳의 문화재를 탐방하고 서당을 견학하여 꼼꼼하게 챙기는 젊은이들과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기 것을 비하하던 우리의 자세가 내 것의 소중함을 느낄 줄 아는 품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 모두가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관통하였을 때 우리의 문화관(文化觀)은 새로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不惑이라는 연륜에는 이러한 이유와 당위성이 스스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전국문화원연합회 40년의 발자취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 소장)

1. 설립~현재 역사

(1) 설립배경과 설립초기

1945년의 8·15광복과 1948년의 대한민국정부수립 그리고 1950년의 6·25전쟁 발발 등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과 참극을 겪는 동안 상처받은 민족의 자존심과 괴멸된 민족정기와 민족문화를 재건하고자 하는 문화의식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기운은 1946년부터 1962년까지 전국 각지에 문화관, 문화원, 공보원 등의 명칭으로 78개의 자생적인 사설 민간문화기관들이 미국 공보원의 기자재 지원을 받아 국가시책을 홍보하는 한편 각 지역의 향토문화운동을 전개하면서 기반을 다져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증설되는 전국의 문화원을 관리, 지도할 창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대정부 창구의 단일화와 문화원 상호간의 협조와 유대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61년말, 당시 공보부와 문화원 관계자의 연석회의에서 ‘연합회’와 같은 창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1962년 1월 23일 대전방송국 회의실에서 76명의 문화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회장(한기창, 인천문화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임원진과 사무국을 구성하여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하게 되었다

1962년 8월 8일, 마침내 공보부장관의 허가로 “전국에 설립된 문화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업을 지도, 육성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공식 출범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때부터 연합회는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고, 전국의 문화원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연합회를 경유하여 지급하게 되었다.

(2)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시기

1965년 7월 11일, 그동안 전국적으로 증설되어 온 각 지방의 문화원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비영리 법인이 지역사회의 문화계발을 위하여 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전국의 문화원이 비영리 법인의 자격으로 향토문화의 계발, 보급과 전통문화진흥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방문화원」으로 정착되었다.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시행된 1965년도 당시까지의 지방문화원수는 102

개원이었다. 그후 연합회 창립 10주년인 1972년도에는 132개 지방문화원으로 늘었으며, 이 수는 창립20주년인 1982년도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30주년인 1992년도에는 176개 지방문화원으로 증가되었다.

(3) 「지방문화원진흥법」 시기

1994년도를 계기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는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동안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의 활동근거가 되어 왔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폐지되고, 그에 대체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지방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1994년 1월 7일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가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지원받게 되어 새로운 법인체제를 갖추게 된다. 연합회의 명칭도 「전국문화원연합회」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창립40주년을 맞은 2002년 현재 전국에 215개 지방문화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4) 사무실이전

한편 연합회의 사무국 사무실은 1962년 3월 15일 서울중구 소공동에 소재했던 중앙공보관의 1실에서 연합회 발족업무에 착수한 이래 1968년 초까지 연합회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968년 2월 2일 덕수궁내 공보부 전시관의 1실로 이전하였다. 그 후 1976년 1월 5일에 방송회관 건물로 이

전하였으며, 1978년 9월 1일 종로구 관훈동 소재 문예진흥원 부설 미술회관 지하실로 이전하였으며, 1979년 4월 3일에는 다시 종로구 청진동 소재의 대명빌딩에 자체 사무실을 임차하여 이전하였고, 1981년 4월 7일에 종로구 청진동 소재의 삼선빌딩으로 이전하였다. 이와같이 여러차례 전전하다가 1996년 6월 15일에 현재의 사무실인 마포구 도화동 소재 성우빌딩 1202호를 구입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5) 현재의 목적과 사업

2002년도 현재 연합회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12조)과 「전국문화원연합회정관」(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민족문화의 국제적인 교류와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①향토고유문화의 보존 및 계발활동 지도
- ②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
- ③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 자료 등의 제공
- ④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 ⑤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 ⑥문화원의 관리, 운영과 사업의 지도 및 조사연구
- ⑦기관지의 발간 및 문화원 사업의 지원자료 편간
- ⑧각종 문화

1994년도를 계기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는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동안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의 활동근거가 되어 왔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폐지되고, 그에 대체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지방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1994년 1월 7일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가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지원받게 되어 새로운 법인체제를 갖추게 된다.



행사의 개최 ⑨문화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의 처리

위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사업

기타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

2. 주요사업 추진약사(사업개시 순)

(1) 연합회기관지 발간 (1964~2002)

①《文聯》: 1964년 11월 25일 제1호 발간~1968년 12월 제8호까지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다 예산사정으로 중단

②《文聯뉴스레터》: 1973년 9월~1974년말까지 타자판으로 발간하다, 중단

③《文聯會報》: 1975년 3월~1976년 말까지 격월간으로 12호 발간하다, 중단

④《全國文化院》: 1984년 8월~1988년 9월까지 격월간으로 발간.

⑤《우리문화》: 1988년 10월 월간지로 출발~2002년 12월 현재 통권 제164호까지 발간되고 있다.

(2) 해외문화단체와의 교류 (1964~2002)

① 일본공민관시찰단 파견

1964. 12. 18 / 1967. 1. 14 / 1967. 5. 24 / 1968. 11. 20(일본공민관연합회초청) / 1971. 11. 18 / 1972. 9. 10 / 1974. 3. 1(일본측초청) / 1979. 5. 10/ 1980. 5. 18(일본측

초청) / 1981. 9. 18 (일본측초청) / 1984. 5. 10(일본측초청) / 1985. 9. 18(일본측초청) / 이후 10여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방문화원장 일본공민관견학' 과 '문화원사무국장 일본공민관견학' 프로그램으로 계속되고 있다.

② 일본공민관대표 한국초청

1969. 2. 8 (3인초청) / 1970. 11. 11 (4인초청) / 1979. 9. 22 (5인초청) / 1981. 4. 27 (3인초청) / 1984. 8. 25 (8인초청) / 1986. 9. 16(14인초청) 등 6차례에 걸쳐 초청하여 우리 문화원과 한국문화를 소개한 바 있다.

③ 미국 국무성 초청 문화시찰단 파견

1968. 11. 20(2인파견) / 1970. 11. 11(1인파견)

④ 중국 문화유적시찰단 파견

1989. 4. 17(33인파견) / 1989. 10. 7(14인파견) / 1990. 9. 18(52인파견) / 1991. 8. 19(17인파견)

⑤ 중국 조선족전통음악제 후원 및 공동개최 (1999~2002)

연합회는 1999년부터 중국의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조선족전통음악제(민요등 경창대회)를 후원 또는 공동주최하고 있다. 제1회 1999. 8. 12~16, 문화원 대표 40명과 이은관(서도소리)등이 방문했다./ 제2회 2000. 8. 17~21, 문화원 대표 40명과 김광숙 등 국악인 3명이 방문했다./ 제3회 2001. 8. 23~28, 문화원대표 63명이 방문했다./ 제4회 2002. 7. 17~22, 문화원대표 35명이 방문했다.

⑥ 국제회의 및 세미나 개최

1973. 11. 5 설악산에서 한·미 문화원장 회의/ 1992. 9. 1 연합회 창립3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한·일·독·캐나다·인도 등 5개국 8명의 발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평창동 라마다올림픽아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3) 문화원 관계자 연수교육(1974 ~2002)

문화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지역문제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충전과 지방문화원 관계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연수, 교육이 1974년도부터 다양하게 실시되었다.

① 문예진흥원 등 외부기관의 지원에 의한 연수 교육

초기의 연수교육은 주로 문예진흥원과 정부가 주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문화원관계자들이 피교육자로 참여하는 형태였다. 1974년 9월 14일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문예진흥원이 후원한 「전국 문화원장연수회」를 시작으로 1988년까지 문화원장에 대한 연수 교육이 8회동안 지속되었다.

② 사무국장에게도 연수 기회 부여

한편 전국문화원 사무국장에게도 1985년도부터 연수, 교육의 기회가 열렸다. 1985년 10월 28일 문예진흥원이 지원한 「문화원사무국장연수」가 강남 유스호스텔에서 시작된 것을 비롯하여 1989년까지 7회의 사무국장연수교육이 실시되었다.

③ 연합회가 자체 개최한 연수, 교육

1989년부터 외부기관의 지원, 주최에 의하여 치러지던 의존적 교육형태에서 벗어나 연합회가 주최하는 독자적인 연수,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연합회가 주최한 문화원관계자 연수, 교육은 다양해졌다.

· 「전국문화원장 연수」교육 : 1989~2002까지 12회 개최

· 「전국문화원사무국장 연수」교육 :

원래 우리네 국민성은 서둘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매사에 '빨리빨리' 라고 서두는 조급성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시에 모든 것을 이룩하려는 성취욕구(成就慾求)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이다.

1989~2002까지 12회 개최

· 「향토사조사연구요원 연수」교육 : 1990년 2회 개최

· 「시범문화원전문요원 연수」교육 : 1991~1994까지 4회 개최

· 「전국지방문화원 간사 연수」교육 : 2000~2002까지 3회 개최

특히 사무국장과 간사 연수교육에서는 국고, 지방비 보조금관리를 비롯하여 문화원의 제도관리, 행정관리, 회계관리 등 실무행정에 대한 교육에 비중을 두어 지방문화원의 체계확립에 기여한 바가 크다

④ 연합회와 타 기관이 공동주최한 연수, 교육

연합회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공동주최로 2000년도부터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향토문화연구자초청연찬」이 개최되고 있다. 이 연찬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문화자료(사료)의 수집, 발굴과 전산화를 통한 지식정보화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의 지방문화원 관계자, 향토사가, 관련 공무원 등이 참가하고 있다.

「2000년 10월 18일~11월 16일까지 4회 (매회 40명 내외, 2박 3일간) 169명 참가

「2001년 6월 20일~11월 4일까지 6회 (매회 2박 3일간) 214명 참가

「2002년 9월 4일~10월 11일까지 4회 (매회 2박 3일간) 123명 참가



(4) 한국민속예술축제(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여 (1984~2002)

우리고유의 향토민속예술을 발굴, 재현, 보존하여 후세에 전승하기 위해 1958년부터 시작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1999년도부터 「한국민속예술축제」로 명칭을 바꾸어 2002년 현재까지 43회째 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회는 1984년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처음으로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매회 장려상 중 1편에 연합회장상을 수여해 오고 있으며, 2002년 현재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4년도부터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신설되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기 시작하여 2002년 현재 제9회의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개최되고 있는 바, 연합회는 이 대회에도 후원기관으로 참여하여 ‘아리랑상’ (6편)을 연합회장 명의로 시상해 오고 있다.

(5)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개최 및 시상(1986~

2002)

1986년 향토문화의 뿌리를 찾아내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향토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1회~3회(1988)까지는 사전선정 지정된 발표자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4회(1989)부터는 논문공모 방식을 채택하여 논문의 질을 높이고 참여자의 문호를 개방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독창적 연구성과와 많은 향토사가들의 참여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는 연구발표회로 향상 발전해 2002년 현재 제17회를 맞고 있다.

이 행사에는 문화관광부를 비롯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이 후원하고 있다. 시상은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지는데 ‘향토문화 논문 부문’에는 대상(국무총리상 1인), 최우수상(장관상 1인), 우수상(2인), 장려상(4인) 등이며, ‘향토문화 자료부문’에는 최우수상(장관상 1인), 우수상(2인), 장려상(3인) 등으로 시상된다. 시상식에 이어 수상자들의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토론이 진행된다.

(6) 정보화 사업(1997~2002)

연합회의 정보화사업은 1997년 4월 문화관광부의 사이버문화관사업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되고 1997년 6월 PC 통신에 온라인 커뮤니티 매체인 ‘전국문화원연합회 CUG’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1998년 12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http://www.kccf.or.kr>). 1999년 1월, 한국의 지역축제 DB개발 및 향토문화 DB(1차)보급. 2000년 12월, 한국의 향토문화자원 DB개발,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역대 수상작 DB개발, 향토사가 및 향토사 단체 DB개발. 2001년 홈페이지 개편 및 「우리문화」 웹서비스 실시 등이다.

(7) 문화학교 운영참여(1992~2002)

문화부가 발족되면서 문화예술의 사회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에 문화예술에 대한 감상능력제고와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학교운동에 연합회와 지방문화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문화원 문화학교 지정

1992년 5월 8일 문화부는 최초로 문화원 문화학교 11개교(인천, 대전, 수원, 강릉, 충주, 천안, 해남, 목포, 포항, 안동, 양산)를 지정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이 문화학교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2002년 현재 148개교(정문화학교 130, 준문화학교 18)가 문화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② 한국문화학교 사무국 업무 수행

1999년도부터 한국문화학교 사무국장에 연합회 사무총장이 임명됨에 따라 문화학교사무국이 연합회사무실내에 설치되어 2001년도 말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8) 생활문화운동 전개(1983~2002)

연합회는 1983년도부터 전국의 지방문화원과 더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다양한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① 양서읽기운동

1983년 6월 1일 '제1회 문화원 양서읽기운동 및 독후감 공모시상' / 1984년 12월 27일 '제2회 문화원 양서읽기운동 및 독후감 공모시상'

② 다도선양문화운동

1983년 6월 1일 각 문화원에 다기세트 공급 및 다도강좌 개최지원

연합회의 정보화사업은 1997년 4월 문화관광부의 사이버문화관사업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되고 1997년 6월 PC 통신에 온라인 커뮤니티 매체인 전국문화원연합회 CUG 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③ 내고장 문화논단 개설

1985년 10월 문예진흥원 지원으로 각 문화원 별로 출향명사들의 강연과 토론회 개최

④ 경로효친사상 선양

1986년 1월 12일 '제1회 경로효친사상 선양 수기공모 및 시상' (교사부문과 학생부문에 구분 실시). 1986년 10월 12일 제2회 수기공모 및 시상. 1987년 12월 29일 제3회 수기공모 및 시상. 1988년 12월 28일 제4회 경로효친사상 선양 및 내고장사장 수기공모, 시상

⑤ 문화소외지역 푸른음악회 순회공연

1999년 10월 27일~12월 4일까지 문화소외지역인 농어촌 지방문화원(원주, 옥천, 군위, 해남, 하동)을 지원하여 국악인 초청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소외지역주민의 문화향수기회 확충과 국악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⑥ 출향 및 유명작가와의 독서생활화 만남

출향 및 유명작가를 지역에 초청하여 독자와의 만남을 통해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기회 확충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된 이 행사는 1999년도에 100개 지방문화원, 2000년도에 70개 지방문화원에서 개최되어 총 3만8천여명의 지역독자가 참여하였다.

⑦ 선진생활문화 교육 강좌

2002년 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민의 선진생활문화의식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연합회는 2000년도에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단행본을 발간하는 것과 동시에 「전국순회 선진생활문화강연회」(12개 시도지회 주관 40회) 및 「지역현장 선진생활문화 강연회」(186개 지방문화원 주관)를 개최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190개 지방문화원이 주관한 강연회가 있었다.

(9) 향토문화자원의 조사, 정리, 발간(1999~2002)

연합회는 1999년도부터 향토문화자원의 조사, 정리, 발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수백년 동안 맥이 끊긴 「동국여지승람」의 정신을 계승하여 21세기 문화의 시대와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① 『한국의 문화자원』 정리발간

1999년 12월에 전국16개 시, 도 및 232개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별 문화자원을 4×6배판 710쪽으로 간략하게 정리 발간하였다.

② 『한국의 향토문화자원』 전6권 1집 발간

2000년 12월에는 전년도에 발간되었던 책자를 토대로 전국16개 광역시도와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향토문화자원을 '내 고장의 어제와 오늘' '역사문화자원' '전통생화

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관광, 여가 문화자원' '문화시설자원' 등으로 집대성하여 4×6배판 전 6권 2,600여 쪽으로 발간하고, CD-ROM으로도 제작배포하였다.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위와 같은 업적을 축적함에 따라서 연합회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장성군, 강화군, 문경시, 성남시) 연구보고서를 2001년 3월에 발간하고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0)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주관(2002~)

문화관광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향토문화역사 복원 및 보존으로 실질적인 문화가치를 실현하고 5천년 우리문화, 역사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터전을 문화, 예술, 역사가 살아있는 마을로 바꾸어냄으로써 문화적 품위가 있는 한국인의 삶을 이 땅위에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 지원주체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지정하였다.

이 사업은 2002년 10월~2005년 12월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각 사업의 주체는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00시(군·구)추진협의회'가 되며 연합회는 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단계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1단계(2002년)는 시범적으로 10개 지역의 사업을 선정하여 각각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2003년도중 사업추진상황 평가후 1억원 이내 추가지원가능)이다. 2단계인 2003년도에는 32개 지역사업에 각각 2억원 이내, 3단계인 2004년도에는 90개 지역, 4단계인 2005년도에는 100개 지역사업 등 도합 232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1개 사업에 각각 2억원 이내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각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추진협의회에서 관련사업을 전국문화원연합회로 공모신청하면 이를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지원하게 되고, 지원심의위원회는 사업중 또는 사업후 평가를 실시한다.

할머니

안정자

미산문화원 부원장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대웅전 옆
큰 바위에 인자하게 조각된
보살님이 보리밥에다
열무김치 된장 비벼 맛있게
자시면서 맛 없다고 투정하던
저에게 맛있게 먹어야 복이 온다고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던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와 너무 닮아서 오래도록
그 앞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홍시 하나도
자기는 참으시고 나에게만 먹이시던
할머니가 그곳에 계셨습니다.

「2003년 이달의 문화인물」 주요약력

1 안 확(安 廓)1886~1946 · 한국학
항일기의 국학자, 훈민정음의 악리(樂理) 기원설 제시, 가시(歌詩)장르 설정. 서양문물 수용을 통한 근대화를 찬성하되, 민족문화의 장점을 기반으로 한 수용론을 펴 그 장점 발견에 노력한 당대에 보기 드문 유형의 학자로 평가받고 있음

2 양주동(梁柱東)1903~1977 · 어문
호는 무애, 시인, 국·영문학자, 동국대, 연대교수 역임, 신라 향가 등 한국 고가를 연구하여 초기 국어 학계에 큰 업적을 남김. 저서로 「조선고가연구」, 「어요전주」 등과 대표적 시집으로 「조선의 맥박」이 있음

3 이동백(李東伯)1867~1950 · 음악
관소리의 명장. 고종황제의 어전에서 관소리를 불러 통정대부가 됨. 김창환, 송만갑 등과 원각사에서 공연. 새타령의 독보적 존재, 춘향가, 적벽가에 뛰어남

4 양팽손(梁彭孫) 1488~1545 · 미술
조선전기의 학자 및 문인화가. 작품으로 '산수도', '연지도', '묵죽도'가 있으며 문집에 「학포유집」이 있음

5 정지용(鄭芝溶) 1902~? · 문학
시문학, 문장, 구인회 등에 관여하면서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등 청록파 시인들을 비롯하여 이상, 윤동주 등 많은 시인을 배출. 주요작품으로 '향수', '갈매기', '고향' 등이 있음

6 정몽주(鄭夢周)1337~1392 · 유학
고려말기 문신이며 학자, 성리학의 이론을 실용화, 5부학당과 향교를 세워 교육진흥. 시문과 한시, 서화에도 뛰어나 '단심가', '포은집' 등을 남김

7 김장생(金長生)1548~1631 · 유학
조선중기의 정치가, 예학사상가. 송익필·이이의 문인, 향리에서 훈학에 힘쓰며, 조선예학의 주류를 형성, 주요저서로 '가례집람', '상례비요', '근사록석의', '경서변의'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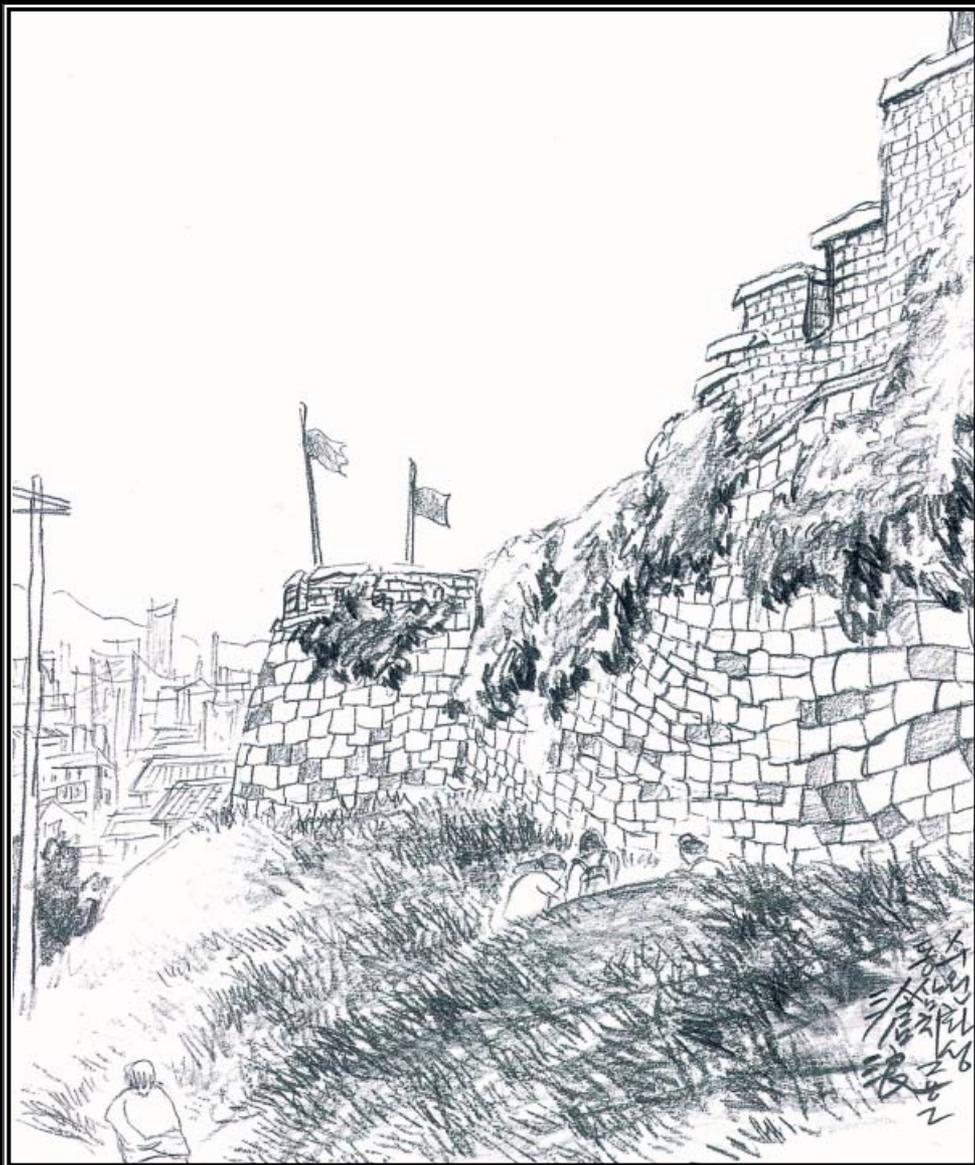
8 박세당(朴世堂)1629~1703 · 한국학
조선조 실학과 학자, '책경'이라는 농사서적 저술. 유교경전 중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서경에 대한 주해서를 집필한 「사변록」을 저술하여 주자의 사상과 대립

9 유 정(惟 政)1544~1610 · 종교
본명은 임응규, 조선중기 고승, 16세 무렵 출가, 임진왜란 때 의승도대장으로서 전투와 외교활동에서 혁혁한 공을 세움. 문집 「사명당대사집」 등이 있음

10 월 명(月 明)생몰년 미상 · 문학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향가작가. '제망매가', '도솔가' 등 향가 작품이 삼국유사에 전함

11 이인성(李仁星)1912~1950 · 미술
서동진에게 사사, 수채화로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 제14회 조선미술전람회 최고상, 제1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심사위원, 작품경향은 인상파적인 감각주의에서 그의 이국취향과 토속적 소재를 발전시킴. 주요작품으로 '경주의 산곡에서', '실내' 등

12 유길준(兪吉濬)1856~1914 · 어문
조선말기 개화운동가. 흥사단에 참여하여 활동했고 계산학교, 노동야학회 등을 설립하여 국민계몽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경제회 등을 조직하여 민족산업의 발전에도 공헌. 주요저서로 「대한문전(국어문법서)」, 「서유견문」 등이 있음



국토종단스케치

경기도지회는 지난 95년부터 '아차산에서 한라산까지 더하여 백두산까지 국토종단스케치 여행'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의왕·수원·오산 등지를 스케치한 전시회가 각 지역에서 열렸다. 스케치는 창랑 배순덕 화가가 맡고 있다. 위 그림은 수원 화성의 동삼치. 화가는 '성벽의 그늘 아래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라고 메모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석문은 청동기시대 이후에 발견된 것들로 기적비(紀蹟碑)·탑비·묘비·묘지(墓誌) 등 비갈류(碑碣類) 석문이 대중을 이루고 종명(鐘銘) 및 여러 종류의 불기(佛器)에 글자를 새기거나 입사(入絲)한 금문도 많이 있는 편이다.

이러한 금석문은 문자의 변천 연구와 서예연구 자료로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즉 당시의 서적을 볼 수 없는 명인들의 필적을 금석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광개토왕릉비·진흥왕순수비 같은 금석문을 통해 귀중한 사료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금석문의 가치라 하겠다. 신라와 고려시대의 탑비는 불교사 연구에 있어서 유일한 자료가 되며 고려시대의 많은 묘지(墓誌)들은 고려사 자료를 보충, 시정하는데 큰 가치를 지닌다. 이들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 금석문의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금석문으로서 최고는 서기 85년 후한 때의 점선현신사비(新縣神祠碑)이고, 다음이 압록강 대안의 집안(集安)에 있는 고구려의 광개토왕비인 호태왕비(好太王碑), 신라의 진흥왕척경비(眞興王拓境碑) 및 진흥왕순수비가 있다. 이 후 조상비(造像碑)·조사비(造寺碑)·묘탑비(墓塔碑)·종명(鐘銘) 등 수천의 금석문이 전해내려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석학은 고려말에 있었으나 숙종(肅宗)·

영조(英祖) 이후 실학과 학자들에 의해 개척되었고 금석학의 선구자는 선조(宣祖)의 왕손인 이도(李廸)와 이간(李侃)이다. 그들 형제는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 정첩(正帖) 5책, 속첩(續帖) 2책을 엮었는데, 신라·고려·조선에 이르는 금석 300종의 탁본을 수집하였다. 그의 김수증(金壽曾)은 180종의 탁본을 모았고, 영조 때의 김재로(金在魯)는 금석탁본 246책을 엮었으며 《금석록》이라는 저서를 남겼다. 정조(正祖) 때의 김정희(金正喜)는 그 저서 《완당집(阮堂集)》, 《금석과안록(金石過眼錄)》뿐만 아니라 금석을 연구하고 정밀한 고증을 가한 사계의 대학자였다.

이 밖에도 선조 때의 차천로(車天輅), 광해군 때의 김광수(金光遂), 숙종 때의 이익(李瀾)과 안정복(安鼎福), 영조 때의 이희령(李希齡)·유척기(俞拓基), 정조 때의 조인영(趙寅永), 순조 때의 정약용(丁若鏞) 등이 이 방면에 조예가 깊었다. 특히 정조 때 홍양호(洪良浩)와 순조 때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저자 서유구의 연구와 식견은 탁월하였다.

금석문에 관한 책은 정조 때 이조목(李祖默)의 《나려림랑고(羅麗林琅考)》, 오경석(吳慶錫)의 《삼한금석록(三韓金石錄)》, 그 외 《해동집고록(海東集古錄)》, 《비명기(碑銘記)》, 《관동금석록(關東金石錄)》, 《수현방비록(樹軒訪碑



문화강좌

한국의 금석문(金石文)

이인화(향토사학자)

錄), 《동국금석평(東國金石評)》, 《금석기(金石記)》, 《금석속편(金石續編)》, 《해동금석총목(海東金石總目)》 등이 유명하다. 비문(碑文)을 수록한 문집(文集)으로는, 고려시대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이제현(李齊賢)의 《익재난고(益齋亂藁)》, 최해(崔滄)의 《졸고천백(拙稿千百)》, 이곡(李穀)의 《가정집(稼亭集)》, 이색(李穡)의 《목은집(牧隱集)》, 정몽주의 《포은집(圃隱集)》 등이 있고, 조선시대 권근(權近)의 《양촌집(陽村集)》을 위시하여 무수히 많다. 고려 및 조선 초기의 비문과 묘지(墓誌)를 수록한 책으로는 《동문선(東文選)》이 있다.

중국인 유희해(劉喜海)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금석문을 수록하고 고증을 붙인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을 내놓았고, 신라 때와 고려시대의 비목(碑目)과 소재지 및 지은 사람, 쓴 사람을 기록한 《해동금석존고(海東金石存攷)》를 내놓았다. 이 밖에도 왕수근[翁樹根]의 《비목쇄기(碑目擧記)》와 저자 미상의 《조선비전문(朝鮮碑全文)》 등이 있다.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금석총람(金石總覽)》을 냈고, 광복 후 이난영(李蘭映)이 《한국금석문추보(韓國金石文追補)》를 내놓았다.

금석문자의 서체는 예서(隸書)·해서(楷書)·행서(行書) 등이 있는데 전서(篆書)는 조선시대 허목(許穆)이 쓴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 하나뿐이다. 서체도 시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옛예서체(隸書體)로는 점선현신사비(蟬縣神祚碑)가 있고, 관구검기공석각(串丘儉紀功石刻)과 고구려 호태왕비는 한예(漢隸)의 분서(分書)에 속하며, 해서체는 금석문 중에서 가장 많고, 다음이 행서이다. 비석(題額)은 대부분 전서로 썼기 때문에 전액(篆額)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문체는 운문(韻文)·고문(古文)이 있으나 당나라 때부터 별도로 사록변려체란 것이 유행하여, 한국도 신라 이후의 금석문은 대부분 정식(定式)으로 삼고 있고, 글씨는 대부분 한자(漢字)이지만, 범자(梵字) 석각, 여진문자(女真文字) 석각 및 주자(鑄字)한 여진자경(女真字鏡), 만주문자와 몽골문자도 일부지역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 금석을 많이 유존한 곳은 경주·부여·평양·개성이며, 연대가 올라갈수록 그 수요는 적고 연대가 내려갈수록 그 수요는 많다.

금석학이란 결국 음각·양각 및 주각(鑄刻)·전각(鑄刻)·도상(圖象) 등까지도 아울러 연구하는 금석비판학(金石碑版學)으로 사학(史學)의 한 분야로서 서체의 변천·훈고·음운(音韻)·사료보충(史料補充)·시대 연혁·민심·풍속에 대한 고증 등 그 영역은 매우 넓다. 문헌과 고기록에만 의존했던 학자들이 금석학의 발전과 더



금석학이란 결국 음각·양각 및 주각(鑄刻)·전각(鑄刻)·도상(圖象) 등까지도 아울러 연구하는 금석비판학(金石碑版學)으로 사학(史學)의 한 분야로서 서체의 변천·훈고·음운(音韻)·사료보충(史料補充)·시대 연혁·민심, 풍속에 대한 고증 등 그 영역은 매우 넓다.

불어 이 방면에 크게 유의하게 되었으며, 서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별로 없지만 금석문은 고려시대와 그 이전 것만도 400여 종이 전해지고 있다.

1) 묘도문자(墓道文字)

우리나라는 유학을 숭상함에 따라 선조와 부모에 대한 효성의 하나로 분묘를 화려하게 축조하고 석물을 갖추고 비석을 신분에 맞게 세우는 일이 성행하였다.

국왕의 신도비가 처음으로 태조의 건원릉에 세워졌고 정종, 태종, 세종의 능에까지 신도비를 세웠다. 그 후 국왕의 사적은 국사에서 상세히 기술되므로 신도비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논의가 되어 묘표만 세우고, 일반관료나 명인의 무덤에는 당대에 가장 명망이 있고 문장이 능한 사람으로부터 글을 받고 가장 유명한 서가(書家)로부터 글씨를 얻어 비를 세우는 것이 효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비같이 세워졌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여러 문집을 보면 신도비·묘갈·묘지·행장 등의 목록을 많이 볼 수 있다. 행장은 묘비를 짓기 위한 기본자료이고, 이와 같은 것을 통칭하여 묘도문자라고 한다. 즉, 묘도문자는 죽은 자의 전기로 작

자는 역사가의 처지에서 공정한 서술과 비판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나 비문을 칭탁하는 사람이나 지어주는 사람은 모두 죽은 자의 인격·학식·업적을 과장하고 미화하여 세상에서 받았던 비난이나 인격적 결함같은 것은 비호 변명하거나 아니면 묵살해 버리는 것이 보통이어서 일반적으로 묘도문자를 ‘귀신에게 아첨하는 글’이라고 한다. 간혹 이런 비난을 듣기 싫어하여 죽기전에 자신의 비문을 지어두어 그대로 세우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한다.



그런데 《조선인명사서(朝鮮人名辭書)》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명사전이 조선총독부에서 편찬, 출판되었는데, 이 책의 인물 서술 근본자료는 거의 묘도문자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면이 없이 좋은 면만이 서술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인명사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뒤에 나온 역사사전이나 인명사전도 모두 이 책을 그대로 베껴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사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 역대 서가들의 작품이 많아 서예사(書藝史)연구에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2) 사적비(事蹟碑)

사적비는 묘도문자와는 달리 어떤 특수한 사실을 기록

《조선인명사서(朝鮮人名辭書)》라는 우리 나라 최초의 인명사전이 조선총독부에서 편찬, 출판되었는데,

이 책의 인물 서술 근본자료는 거의 묘도문자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면이 없이 좋은 면만이 서술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인명사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뒤에 나온 역사사전이나 인명사전도 모두 이 책을 그대로 베껴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다.

한 것을 말한다. 그 중 전적(戰蹟)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전적비가 있는데, 전적비는 조선 태조가 임금이 되기에 운봉에서 왜구를 소탕하고 왜장 아지발도(阿只拔都)를 죽인 곳에 세운 황산대첩비(荒山大捷碑)가 있고, 임진왜란때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이순신(李舜臣)의 전적지 해남에 세운 명량대첩비(鳴梁大捷碑), 권율(權慄)의 전적지인 행주의 행주전승비(幸州戰勝碑)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사적비는 사찰에 대해 기록한 사적비(寺蹟碑), 향교·서원을 설립하거나 증수한 사실을 기록한 묘정비(廟庭碑), 성을 쌓았거나 제방을 축조했다던가, 다리를 놓은 사실을 기록한 비 등 그 수가 많다. 또한 명인이 탄생하였거나 거주했던 곳에 구기비(舊基碑)·유허비(遺墟碑), 또는 기적비 등의 명칭으로 표석을 세워 기념한다.

또 지방의 관찰사나 부·목·군·현의 장관인 부사·목사·부윤·군수·현령·현감 등에 대하여는 그가 떠난 뒤에 지방 백성들이 돈을 모아서 그의 공적을 칭찬하는 비를 거리에 세운다. 이런 종류의 명칭은 선정비·송덕비·거사비(去思碑)·거사불망비(去思不忘碑), 영세불망비 등으로, 그 체제는 재직자의 관직과 성명을 쓰고 그 밑에 ‘○○비’라고 한 줄로 간단히 새기고 양쪽에 나누어 그의 업적을 요약하여 4자를 1구로 하여 8구

혹은 16구 정도로 새기기도 하며 또 그 쇠구가 없는 것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대개 형식적이며 관례적으로 세우는 것이고, 꼭 그가 재임시에 행정을 잘 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 지방민을 못살게 한 자라도 타의에 의하여 세우는 예도 많았다. 이런 종류의 비는 옛날에는 군이나 현단위로 수십 개씩 세워져 있어서 전국의 것이 수천 개에 달하였으나 많이 없어지고 지방에 따라서는 한곳에 모아서 관리하고 있다.



3) 석비(石碑) 이외의 금석(金石)

우리나라 금석문, 특히 조선시대의 금석은 거의 전부가 석비이고 금속은 동종둘레의 명문(銘文)이 대표적인 것이다. 세조때 조성된 흥천사종(興天寺鐘), 예종 1년에 만든 봉선사종(奉先寺鐘)과 낙산사종(洛山寺鐘)은 종자체도 우수한 공예품이지만 명문도 일대를 대표하는 대가 정난종(鄭蘭宗)이 쓴 글씨로 이루어졌다.

목판에 새긴 것은 원칙적으로 금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나 오늘날에 있어서 옛 글씨를 연구하기 위하여는 현판·주련(柱聯) 등도 함께 다루어야 될 것이다. 가령 안동웅부(安東雄府)와 영호루(映湖樓)의 현판이 고려 공민왕의 글씨로 전하고 있는데 공민왕은 그림을 잘 그리고 글씨가 뛰어나다 하나 그의 글씨는 인쇄되어 전하는 것도 없고 오직 이 두 가지만이 전하고 있으니 가치가 매우 크다하겠다.

목판에 새긴 것은 원칙적으로 금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나 오늘날에 있어서 옛 글씨를 연구하기 위하여는 현판·주련(柱聯) 등도 함께 다루어야 될 것이다. 가령 안동웅부(安東雄府)와 영호루(映湖樓)의 현판이 고려 공민왕의 글씨로 전하고 있는데 공민왕은 그림을 잘 그리고 글씨가 뛰어나다 하나 그의 글씨는 인쇄되어 전하는 것도 없고 오직 이 두 가지만이 전하고 있으니 가치가 매우 크다하겠다.

씨가 뛰어나다 하나 그의 글씨는 인쇄되어 전하는 것도 없고 오직 이 두 가지만이 전하고 있으니 가치가 매우 크다 하겠다.

그 외 흰 사기판(沙器版)에 문자를 써서 구운 자기가 있는데 이는 주로 묘지에 쓰였다. 고려시대의 묘지는 석판만을 사용하였고 조선시대에도 돌에 새긴 것이 많았으나 돌에 새기는 데는 석재를 다듬고 글씨를 새기는 공력이 많으므로 차츰 간편한 백자에 청색 글씨를 써서 만드는 것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조선시대 초기에 시작되어 조선시대 말기에 까지 사용되었다. 그런데 돌은 큰 것을 사용하므로 내용이 길더라도 한 개의 돌에 다 새길 수 있으나, 사기는 큰 것을 만들 수 없으므로 두 장에서 십여장까지 이르게 된다. 이들은 자기연구에도 중요하지만 금석문에서도 또한 중요한 것이다.

4) 금석문의 글자

금석문에 나타나는 글자는 대개가 한자이다. 훈민정음의 창제가 15세기 초이므로 그 이전에는 우리 글자가 없고 그 이후에도 훈민정음으로 비갈을 새긴 예는 없다.

다만 한자를 사용하면서 이두식(吏讀式) 표현방법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두는 향찰(鄕札)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명칭으로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두를 사용한 금석문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성석각(平壤城石刻), 신라의 남산신성비와 무술오작비를 비롯하여 일본에 있는 조선종기(朝鮮鐘記) 등 통일신라에까지 많이 쓰였다. 고려시대는 밀양·무안과 양산 통도사 입구에 있는 석장생표(石長牲標)와 예천 개심사(開心寺) 석등 명문이 모두 이두를 사용하였고, 옛 칠곡군 약목면 정도사 탑에서 나온 정도사 오층탑형지기(淨兜寺五層塔形止記)는 1031년(고려 현종 22)때의 것으로 이두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관공문서에 이두를 사용하였으나 금석에 사용한 예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1945년 광복이후에야 우리 말로 비문을 쓰는 사람이 많아졌고 과거의 비문을 우리 말로 번역해 다시 세우는 예도 많아졌다.



5) 석재(石材)

신라나 고려시대에는 돌의 질을 식별하는 안목이 매우 높아 1천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풍화작용을 받지 않아 글자가 마멸된 것이 없다. 그러나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강암으로 비를 만들어 석질이 좋지 않아 비문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매우 적다. ㉔

신라나 고려시대에는 돌의 질을 식별하는 안목이 매우 높아 1천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풍화작용을 받지 않아 글자가 마멸된 것이 없다. 그러나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강암으로 비를 만들어 석질이 좋지 않아 비문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매우 적다.



‘우리문화 · 역사마을만들기’ 1단계 사업추진 현황

우리 마을이 반만년 조상의 얼이 깃든 문화역사마을로 새롭게 태어난다.

문화관광부는 21C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문화입국 진입을 위한 기초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선진국을 건설코자 ‘우리문화 · 역사마을만들기’ 사업을 2002년 10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조상들의 고결한 숨결과 체취가 스며든 5000년 전통문화를 복원 · 보존 · 관리하고 마을마다 독특한 전통과 민족정서를 담은 다양한 지역문화를 가꾸어 문화차지실현을 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우리문화 · 역사마을만들기’는 문화관광부에서 수립하고, 전국 215개 지방문화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순수민간단체인 전국문화원연합회(지원심의위원회)가 사업지원주체가 된다.

또한 사업시행주체는 지방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향토사연구단체, 향토기업,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추진협의회가 맡는다.

2002년도는 ‘우리문화 · 역사마을만들기’ 사업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1단계 사업(권역별 10개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하는 해로서 각 지역에서 32건이 응모된 가운데 전국문화원연합회 지원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당초계획인 10개 사업보다 적은 7개 사업을 예비지원사업으로 선정했다.

예비지원사업은 우선 ‘우리문화 · 역사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사업 가운데 창의성과 역사성 · 합목적성 · 가치성 등을 고려하고, 추진주체의 의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추진,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감안해 선정됐다.

이어 문화관광부와 전국문화원연합회는 7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 주체의 설명은 물론 질의응답을 거치는 등 지원심의위원회의 4회에 걸친 토론 끝에 5개 사업만 1단계사업으로 지원토록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 5개 사업은 △충남 태안의 ‘반도의 역사 소금마을만들기’와 △전북 장수의 ‘산촌의 전통적 생활문화보존마을만들기’ △전남 해남의 ‘배춧마을 : 군곡리 문화 · 역사마을만들기’ △경남 함천의 ‘땀마리 오광대 발상지마을만들기’ △경기 고양의 ‘행주나루마을만들기’이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응모 사업의 최종 선정에 있어 △전통문화자원으로서의 특성 △현재의 삶이 유지되는 ‘사람이 사는 마을’로서의 상존 가능성 △주민 참여도의 크기 △사업체계의 적정성을 가장 중요시 했다고 밝혔다.

강민철 기자

반도의 역사 소금마을만들기

- 사업지역 :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귀리 냥금마을
- 사업주체 : 태안군 추진협의회

□ 조사경위

2002년 12월 태안 현장에 들어가 문화원장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을 두루 접촉하여 현지 사정을 알아본 결과 다음의 결론이 도출하였기에, 이를 1차 전체 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재정리하여 최종 보고한다.

□ 조사결론

1. 역사문화적 근거

태안은 예로부터 조선 후기 ‘호산록’을 위시한 여러 문헌에 소금생산지로 이름이 높았던 곳이다. 따라서 소금에 관한 태안의 소금마을지정을 역사적 근거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지역민의 선도적인 준비

사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천일염 이전의 전통적인 소금생산방식인 전오염(활염)은 비단 태안에만 존재하던 것은 아니었다. 가령, 인근 서산이나 아래쪽의 부안 등지에도 활발한 편이었다. 그러나 전오염은 매우 일찍이 사라졌

다. 이를 전국 최초로 복원시켰다는 선도적인 안목과 노력, 문화적 마인드를 높게 사야할 것이다.

3. 역사마을만들기사업의 적합성

문화관광부의 지정 원칙에 있어, 단순히 마을만을 지정하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소금마을, 더 넓게는 해양문화의 일 상징물로 태안의 소금마을 지정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4. 지역적 입지의 적합성

현지조사결과, 소금마을의 위치는 태안반도 해상국립공원의 근접지역으로 문화관광권

역에 위치한다. 그러면서도 생태적으로 소금 생산에 적합한 지역이며, 실제로 마을에는 전래 천일염 염전이 현재도 가동중이다. 따라서 마을의 입지는 매우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5. 앞으로의 가치

잘만 해낸다면 자체적으로 소금박물관까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문화관광적 미래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특히 현장교육차원에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여겨진다.

6. 몇가지 과제

위원회에 보고한바대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태안문화원 측에도 충분히 전달하였다.

1)소금작업에서 마을주민들과의 연계성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이 점은 앞으로도 사업 진척 과정에서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2)단순히 소금만이 아니라 갯벌을 끼고 있는 포구마을의 성격상 해양문화 전반에 걸친 새로운 차원에서의 문화적 사고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

3)현재의 고증은 지역단위의 고증이므로 전문가의 보다 철저한 역사문화적 고증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4)예산의 묶에서 시설비 등의 인프라비용은 금번 예산에서는 불가하며, 이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되어야함을 강조하였으며, 이 점은 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된 바대로다.

□ 종합결론

위의 제 사안으로 미루어 위원회에 기 보고한 바대로 몇가지 점만 보완하고 앞으로의 추진과정을 정밀하게 감독하고 지도한다면 역사문화마을로 한국 최초의 소금마을이 탄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촌의 전통적 생활문화보존 마을만들기

- 사업지역 : 전북 장수군 번암면 성암부락
- 사업주체 : 장수군 번암면 성암부락 환경·생태적 문화마을 만들기추진협의회

□ 사업대상마을의 전통성 및 역사성

장수군 번암면 논곡리 성암마을은 해발 500여 m에 위치하고 있는 산촌마을로서 가옥 구조는 물론 이와 관련하여 뿔나무로 난방을 하고 여기에서 나온 재를 비료로 사용하는 등 전통적인 생활방식의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취지에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판단된다.

□ 사업의 합목적성

전통생활문화양식의 유지·보존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자체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대안이 설립되어야 하는바 사업목적적 전통마을 모습유지에 두면서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의 지원에 두고 있어 본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할 수 있다.

□ 추진주체의 능력과 주민의 참여 가능성

전통주거문화시설복원, 산촌 고유의 민속놀이나 세시풍속, 식생활 내용에 대한 조사 및 주변일대의 테마기행 등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작업은 사업목적적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는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바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진다.

□ 기대효과

과거의 모습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마을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마을의 전통성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기초자료수집 및 시설보존을 위한 기술 등에 대한 기록 작업은 바람직한 역사마을만들기를 위해 미리 제대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계획이 요구된다.

단지 자료의 제작 및 교육 등은 주민 참여를 전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 또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 속에 시설보존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이를 기록으로 남겨 전통생활유지에 필요한 기술이전이 세대간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체험프로그램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프로그램이 추진가능하다고 보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전통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역사마을로서, 현장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컨텐츠로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선정사유 요약

- 전통 산촌마을의 전형을 보존하고 이어갈 수 있는 전통성과 여건을 갖춘
- 전통마을 보존과 관련한 본 사업의 목적과도 부합됨
- 관광및 문화콘텐츠 소재개발 가능성이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산촌전형의 모습을 간직할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이를위한 지원이 필요한 곳임
- 인프라 투자가 전통 훼손으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지역의 전통문화 관계자 및 전문가의 지도와 협조가 필요한 곳임

패총마을 : 군곡리 문화·역사마을만들기

- 사업지역 : 전남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 사업주체 : 해남군추진협의회

□ 역사성과 상징성

해남 송지면 군곡리는 국사교과서에 수록

소개될 만큼 유명한 '군곡리 패총'이 소재한 마을로서, 이 마을은 패총과 함께 백포만 일대의 해안지역 마을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전하

는 마을이다(유적 분포 참조)

□ 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가능성

따라서 이 마을의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면 성공, 차별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서남해안 해로와 관련된 해안지역의 지리 환경관련 자원, 군곡리 패총으로 대표되는 선사문화유적,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승되는 다양한 민속문화를 종합된 군곡리 마을문화로 정리 체계화하여, 이를 문화체험, 유적 탐방, 역사교육, 문화지리 체험 등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특화가 가능하다고 보여, 인접한

관광자원들과의 연계도 수월하여 향후 발전, 계승의 전망도 좋다고 판단된다.

□ 사업 추진주체의 구성과 의지

추진협의회가 가능 분담적으로 잘 이루어져 지속성과 주민 여론의 형성, 그리고 전문성과 역할 분담이 비교적 보장되어 있으며, 해남군의 의지와 지원도 충실한 편이다.

□ 프로그램의 다양성

군곡리의 문화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살려 특화하되, 특히 ① 문화자원별 ② 수요자별 ③ 자원활용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절

하게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에서 지적한 것을 총괄하여 평가할 때, 해남군 군곡리 패총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은

(1)전체적으로 문화자원의 역사성이 특별하고, 기초조사와 고종의 철저함, 프로그램 개발의 적절함, 활용의 가치와 기능성 등의 면에서 문화 역사마을 만들기기에 적합한 마을로 평가됨.

(2) 특히 해남군에서는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해남군의 문화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마을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밤마리 오광대 발상지마을만들기

○ 사업지역 : 경남 합천군 덕곡면 울지리(밤마리)

○ 사업주체 : 밤마리오광대발상지추진협의회

□ 오광대 발상지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마을

덕곡면(소재지, 울지)은 지리적으로 경남북 내륙의 중심지로서 洛東江의 중류에 위치하고 있어 조선시대에 낙동강변의 포구마을로 수로 교통이 주축을 이루고 있을 때, 울지포구를 중심으로 서부의 경제 중심지가 되어 인근에서는 고령, 창녕, 초계, 현풍에서부터 멀게는 거창, 함양 지역과 전라도까지 생활 필수품 공급은 물론 농산물 교역장이었고, 전국의 유랑연예인들이 모여 탈춤을 놀았다고 전한다. 현재는 마늘과 감자 등을 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 탈춤과 관련한 전설이 있는 마을이 있다.

옛적 어느 해 대홍수때의 일이다. 큰 나무 꺾히다가 초계(草溪) 밤마리(지금의 덕곡면 울지리)에 떠내려 왔었다. 마을 사람들이 건져서 열고 보니 그 속에는 가면이 가득하게 들어있고 그것과 같이 '영노전 초권(初卷)'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들어 있었다. 그 당시 그 마을에는 여러 가지 전염병과 기타 재앙이 그치지 않으므로 좋다는 방법을 다해봐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의 말대로 탈을 쓰고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놀음을 하여 보았더니 이상하게도 재앙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 뒤로 이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탈을 쓰고 해왔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낙동강 하류에 전하는 오광대와 들놀이(야류)의 발상지로서 역사적 의의가 깊은 곳이다.

□ 마을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 마을 조성

이 마을이 오광대의 발상지이지만, 그 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였으나, 2000년부터 합

천군과 덕곡면에서는 이 마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밤마리 문화관광마을조성 종합계획수립」(2000~2001년)을 수립하여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탈제작 체험학습장 개관 등 기반 시설을 일부 갖추었고, 오광대 발상지 탈춤 축제 등을 개최하여 오광대 발상지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주민들이 스스로 찾고,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그 동안 합천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지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왔다는 점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기초적인 기반시설이 된 이 마을에 오광대와 관련한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면, 열악한 지방재정에 한 층 더 성공적인 문화·역사마을로 가꾸어나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주변 지역(우포늪 자연 학습관 등)과 연계하여 관광과 문화가 만나는 장소로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한 마을이다.

행주나루마을만들기

○ 사업지역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 사업주체 : 고양시 추진협의회

□ 현장답사

경기 서북부, 한강 하구에 위치한 고양시는 구석기 시대 이래 사람이 거주해 온 곳으로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의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한강 하류라는 특성상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었고 한양으로 들어가는 뱃길로 많은 물자와 새로운 문화가 통과하는 곳이었기에 그 사회경제적 비중이 지대한 곳이었다.

행주산성과 인근 행주내동과 외동은 휴전

선과 인접하여 군사보호구역이란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DMZ 지역의 생태자원과 함께 한강하류의 생태자원은 전 세계의 자랑거리로 손색이 없는 곳이다.

원래 강안(江岸)은 맨돌포, 결석(結石), 흰돌포(白石), 이산포 등 포구와 늪지대가 연해 있어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낮에는 물이 불어 배로 이동할 수 있으나 밤에는 늪지대로 변해 수렁이 되는 지형이다.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이 요새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지리적 여건 때문이다.

행주산성 나룻터에서는 예로부터 웅어가 많이 잡혔고 이를 공골에 진상했다고 한다. 근자 웅어가 다수 잡히고 참게마저 많이 잡혀 행주산성 나룻터의 옛 생태적 면모를 되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마을의 먹거리 품목을 웅어와 참게로 잡아 행주산성은 온통 장어마을이라는 이미지를 씻어내야 할 것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3월 月內에 보면, 소어(蘇魚)는 경기도 안산(安山) 앞바다에서 나고, 제어(魚)는 속명으로 위어(鰲魚)라고 하는데 한강 하류인 고양(高陽)과 행주(幸州)에서 나온다.

늦봄에 사옹원(司饔院)의 관리가 그물을 던져서 잡아다가 진상한다. 생선장수들도 이것을 파느라고 거리로 돌아다니며 소리친다. 위어는 횡감으로 많이 이용한다. (蘇소소蘇魚產安山內洋 魚俗名鰲魚 產漢江下流高陽幸州 春未司饔院官 網捕進供 魚商邏街 呼賣 於爲膾材)

이 제어(위어)도 이곳에서는 속칭 웅어라 하고 안산뿐 아니라 강화도 등지까지 많이 잡히는데 5월 단오 전까지는 횡감으로 좋다고 하니 앞으로 (먹거리 축제)판이 이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한강변에 유명한 삼해주(三海酒)와 고양시민의 가양주(家釀酒)와 용(龍)떡 등을 개발하면 좋을 것이다.

이곳 나룻터 시장은 매년 단오제가 벌어져 씨름대회와 그네타기를 즐겼으며, 각종 연회패들이 모여 줄타기 등을 했고, 난장이 섰던 곳이기도 하다. 또 정월 대보름날에는 행주 내동과 외동이 치열한 햇불싸움을 했던 흔적도 보인다.

그런가하면, 구한말 마포나루 불한당패들이 이곳에 자주 나타나 노략질해 가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12지 가면을 쓰고 야경을 서면서 <12지 진법놀이>를 하였다.

이 때의 무서운 탈의 기능은 전쟁가면(war mask)의 기능을 하고 있다. 심지어 마포나루 불한당패들의 행패를 막기 위해 택견이 이곳에서 발생했다는 고로상전(故老相傳)까지 있다.

이곳 고양시는 나루가 발달했던 곳인데다가 늪지대이기 때문에 곡식이 잘 돼 배꼽은 이가 없었던 곳이다. 특히 행주나루는 배도 많고 수산물과 농산물의 집결장이었으므로 그들이 눈독을 들였던 것이다.

이 곳 고양에는 <쌍그네 놀이>라는 독특한 그네놀이가 있고, 강과 연관된 <구구재 민속놀이>가 있어 이들 강변축제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이 가능하다. 또 고양시에서도 고양시 박물관터와 향토민박촌 부지를 이곳에 일찍부터 마련해 두고 있어 이미 기반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강변 철조망도 선박장 개장과 함께 제거된다.

이곳 박물관에는 강촌(江村) 어망, 어구 등을 수집하는 특화된 박물관을 조성함과 더불어 강촌민속체험장을 세울 예정이다.

앞으로 강안에는 황포돛배를 띄워 마포나루와 행주를 연결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일한 황포돛배 선유배가 복원되고, 양반들이 기생을 동반하며 놀았던 선유배의 풍류가 되살아날 것이 분명하다. 한강 유람선의 기착장인 선착장은 이미 세워져 있다.

고양시 강안에는 원래 29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정자 터가 확인된 곳이 19지점이나 된다. 원래, 고양시 일대는 서울 중앙관리들이 말년에 별장지인 별사지를 조성해 놓은 곳이 많다.

이것 또한 고양시 자체의 복원 계획이 되어 있다. 마포나 용산에서부터 행주나룻터로 올라오면서 한강의 역사와 풍류를 배우고, 누정을 감상하게 된다면 과거의 강촌마을 역사와 전통문화를 동시에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산교육의 장(場)이 될 것이다.

오늘날 초·중등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나 강촌

(江村)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별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차체에 한강유람선과 황포돛배 선유놀이와 어시장 풍물, 그리고 먹거리, 놀거리, 할거리, 즐길거리를 조화시켜 준다면 행주나루 마을의 민속은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는 모범 강촌마을이 될 것이다.

행주산성나룻터 복원이야말로 한강어촌마을의 복원이자 어촌민속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개발한다면 성공적인 사례를 남길 것이다.

□ 사업명과 목적

계획서에 있는 한강마을 만들기는 여타 한강 주변 도시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행주나루 마을로 명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하고, 한강변의 강촌(江村)나룻터의 전통마을 모습을 부각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함.

□ 사업내용과 필요성

사업내용은 위의 필자 조사본(調查本)을 참조하길 바람.

□ 소요예산과 집행계획

이곳은 주차장 시설 등 기반시설공간과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전통 강촌마을의 옛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마을의 전통성을 찾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차료수집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마을지도 작성, 어로 도구 실측 및 제작기록, 어촌 가족구조 연구, 민속놀이와 축제의 옛모습 찾기 등을 조사·연구해야 할 것임.

· 전통 강촌 마을의 모습을 되살릴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충분함.

· 금번 우리 문화 역사 만들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함.

· 소재 개발 항목이 다양하고 문화 관광 코스로 가능함.

· 일반인은 물론이고 초·중고생들의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가능함.

· 행주산성과 연계된 문화콘텐츠 개발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음.



사업을 시작하며

문화정책과 서기관
박영대

전국의 232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마을마다 자신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문화와 역사의 복원·보존·관리 및 일반공개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역사의 창조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19일 강원도 양구를 다녀왔다. 하늘이 높푸르고 햇살은 맑은데 바람이 코 끝에 차가운, 전형적인 한국의 초겨울 날씨속에 때늦은 가을 체육의 날 행사를 갖게 된 것이다.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관람에 앞서 찾아보았던 양구 선사박물관은 일제시대인 1944년 축조된 파로호 수몰지역이 평화의 댐 건립으로 일부 물이 빠지면서 출토된 구·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유물을 전시하고 있었다.

이 땅에 구석기 인류의 흔적이 없다고 강변하던 일본 강점기에 만들어진 파로호에 의해 물 밑에 감추어졌던 선사시대의 생활문화유적이 결국 우리의 손에 되돌아오게 된 경위가 자못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다. 우리가 섬 지방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인구수로 보아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 양구군을 찾게된 것은 지금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문화·역사마을 만들기』사업과 관련이 있다.

지난 10월 25일 개관한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이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문화시설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어느 추천인의 추천사가 우리의 흥미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두타연』 돌아보기와 제4땅굴 견학으로 이어진 이번 가을 체육의 날 행사를 통해 이제 막 시작된 『우리문화·역사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또 다른 소득이었다.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로 정의하는데 세계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문화적 정체성을 제대로 갖춘 민족이나 국가만이 존립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 인식에서 도출된 새로운 세기의 대표화두가 바로 『문화』인 것이다. 우리민족은 본래 5천년의 오랜 역사와 동북아를 대표할 수 있는 뛰어난 문화를 창출해 냈던 특별한 문화민족이었다. 따라서 『문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곧 우리 한민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 20세기 초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의 문명을 16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동북아를 대표하는 문명으로 중국문명, 일본문명과 함께 한국문명을 명시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경제적 삶의 수준이 크게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문화와 역사가 국민들의 생활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생기를 잃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아마도, 근세의 산업화 경쟁에서 뒤쳐지면서 우리민족의 삶에 드리워졌던 불행한 역사와 이를 극복해 나오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경제발전 지상주의정책,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남북분단의 현실이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제는 이러한 과거의 음영을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만 할 때가 되었다. 이것은 문명사적 대 격변기, 전면적인 문화 패러다임의 변환기에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최우선의 과제인 것이다.

또한, IMF 경제위기의 효과적 극복, 2002 한·일 공동월드컵과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 한국과 한국인의 위상을 세계속에 드높여 줌으로써 우리에게 최적의 기회와 최고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 실례로, 우리의 영화와 음악과 패션은 중국과 동남아에 “韓流”라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조차도 새로운 풍조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이러한 좋은 여건들을 바탕으로 참으로 우수하고 독창적인 5천년 문화역사를 제대로 복원하고 보존하며 관리하여 우리의 문화적 창조성을 현실속에 되살려 낼 때가 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시발점은 기초생활공동체인 마을단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야말로 문화와 역사가 실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요, 환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문화·역사마을 만들기』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어떤 방향을 목표로 하여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마을단위의 문화역사 복원·보존·관리 종합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232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마을마다 자신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문화와 역사의 복원·보존·관리 및 일반공개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역사의 창조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둘째, 주변 프로그램의 운용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농촌문화마을사업 및 지자체의 문화거리·역사거리 조성 프로그램 등과 연계되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의 지원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완벽한 DB구축을 통해 자료센터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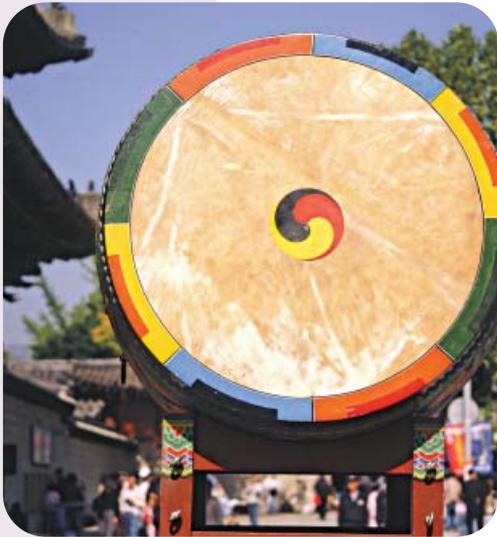
셋째, 사업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2006년 이후에도 최소한의 지원체제는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창의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프로그램의 경우 장기 지원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넷째, 중앙과 지역의 효율적 역할분담의 모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사업의 기본개념과 사업추진방향 등 기본 틀과 사업의 발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드머니를 제공하며, 최종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창의력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사업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해 보고자 한다.

첫째, S/W 중심으로 추진방향을 설정 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입에 이르기까지 높아진 경제력을 배경으로 H/W인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정책의 중심이 있었으나, 이제는 H/W의 실질적 구동에 필요한 S/W의 개발에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종전의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수동형·관람형이었다면, 앞으로는 능동형·참여형으로 바뀌어 나가야 하며,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사업의 경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 될 것이다.

※ 2002 월드컵에서 분명한 목표 <첫승, 16강 진입>와 구체적인 참여방법(붉은악마, 거리응원)이 목표이상의 성과를 내는데 기여했던 점을 참고

셋째, 사회 지도층이 솔선하여 참여하는 분위기가 우선 조성되어야 한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절실한 과제이며,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하는 태도인 것이다.

넷째, 사업선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효과가 크게 예상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업 성공의 관건인 바, 그 선정과정의 투명성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 지역협의회(·시·군·구별) 차원에서부터 마을단위로 추천되는 사업에 대한 공모와 심사과정을 통해 경쟁력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어야 함.

다섯째,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간섭이 아닌)가 필요하다. 단기간에 완성되고 종료되는 사업이 아닌 한,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사업의 발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상의 과제이외에도,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진행과정에서 계속하여 찾아내어 부지런히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

언론을 통해, 중국당국의 무관심 속에 훼손되고, 사라져 가는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분노와 자괴의 느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신의 생활주변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문화와 역사에 대해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스스로 복원·보존·관리 작업에 참여하며 애쓰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박수근 미술관』을 박수근의 정신적인 모태라고 할 비봉산과 완벽하게 갈라놓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스스로가 건축한 고층 아파트군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문화와 역사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번 사라진 문화와 역사는 또 쉽게 복원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우리가 변하여 문화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우리문화·역사마을 만들기』는 비록 크지 않은 사업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소중한 창의적 노력이다.

전국문화원연합회와 전국의 문화원이 힘을 합쳐 추진중인 『우리문화·역사마을 만들기』에 우리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한민족이 문화의 세기를 열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문**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우리가 변하여 문화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우리문화·역사마을
만들기』는 비록 크지 않은
사업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소중한 창의적 노력이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창립40주년 기념식 및 제17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 이수홍)는 지난 11월 21일 세종문화회관(세종홀)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 창립40주년 기념식 및 제17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를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화관광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국사편찬위원회·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후원으로 개최하였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에 진행된 이날의 모임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부〉 '전국문화원연합회 창립40주년 기념식' (11:00 ~11:30)에서는 고경재 전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양양문화원장)의 창립40주년 경과보고에 이어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7명(문화원장 10명, 사무국장 16명, 외부인사 1명), 전국문화원연합회장 공로패 29명(문화관광부 1명·문화원장 4명·사무국장 14명·지방문화원 간사 9명·문화가족 1명) 등에 대한 시상과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이어서 이수홍 연합회장의 인사말과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의 간곡한 축사가 있었다. 40주년과 관련된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 문화원장 - 10명

김영남(서울중구), 채수목(대구달성), 김동순(인천), 류해상(대전 대덕), 김종기(수원), 이상윤(안양), 이인호(익산), 박승진(완주), 박준영(나주), 이길생(포항)

- 사무국장 - 16명

이윤석(동작), 손필현(대구중구), 김봉수(인천), 사공문웅(충주), 김문희(예산), 김용순(김제), 채규병(부안), 이대열(진안), 박홍철(구례), 김용호(광양), 정용순(문경), 한영웅(영천), 조수남(함안), 하영면(창녕), 이재철(하동), 이남중(창원)

- 외부인사 - 1명

정병철(특수AV 대표)

전국문화원연합회장 공로패

- 문화관광부 - 1명

최천식(전통지역문화과장)

- 원장 - 4명

조한영(의정부), 장영(조치원), 김길수(김천), 박종환(진해부원장)

- 사무국장 - 14명

김진학(노원), 채한식(달성), 송요환(강화), 지천일(광주북구), 유경삼(대덕), 이영구(과천), 홍성진(횡성), 이영신(평창), 이만철(인제), 이문기(진천), 김희선(정읍), 이석홍(남원), 박승배(무안), 윤승창(청송)

- 간사 - 9명

이충기(송파주임), 백부원(도봉탐집), 임영미(부천), 김영철(충남 지회), 강은영(영광과장), 오영순(광양), 전의숙(청도), 조은희(창녕)

- 문화가족 - 1명

이영옥(예산)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이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2부〉 ‘제17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11:30~15:00)는 이성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정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의 축사에 이어 향토문화 논문부문의 8명과 향토문화 자료부문의 6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고, 장을 병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의 ‘한국문화의 흐름과 지방문화원’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이 있었다. 끝으로 금년도 수상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시상식과 발표회가 맺음되었다.

금년도 심사위원장은 임동권(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심사위원에는 정구복(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김선풍(중앙대학교 교수)·이해준(공주대학교 교수)·이영춘(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원) 등 제씨가 수고하였다.

대상(국무총리상) 수상자인 김중규씨의 ‘18세기 군산지

역 봉수대의 폐지 및 이설에 따른 위치 및 명칭확인’은 작은 주제를 밀도 있게 정리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현장조사와 문헌정리를 겸한 종합적인 연구가 돋보인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중앙사의 시각에서 보면 연구범위와 주제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일관된 논리와 성실한 연구자세가 향토사연구의 구체적 모델과 방법론을 예시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년도 응모자 가운데 학교 교사가 7명이나 응모하여 교육과 향토사가 연계된다면 매우 바람직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반가운 현상이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말이다.

구체적인 수상자 명단과 수상작품명은 다음 표와 같다.

제17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향토문화논문·자료 공모전 수상작

상격	부문	성명(소속)	수상작	상금(만원)
향토문화논문부문	대상 (국무총리상)	김중규 군산시청 학예연구사 군산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18세기 군산지역 봉수대의 폐지 및 이설에 따른 위치 및 명칭확인	300
	최우수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유승광 공주사대부고 교사 서천문화원 향토사연구회 회원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례연구-서천지역을 중심으로-	200
	우수상 (문화예술진흥원장상)	오홍일 목포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木浦의地名由來에對한小考	150
	우수상 (국사편찬위원회장상)	심현용 경북과학대박물관 주임연구원 울진문화원 울진역사연구소 연구위원	울진지역 佛敎文化財에 대한 小考-石造物을 中心으로-	150
	장려상 (문화원연합회장상)	이재풍 양양문화원 회원 현산문화제위원회 위원장	襄陽詩歌의 背景과 敎訓의 時文 精選	100
	장려상 (문화원연합회장상)	이영식 황성문화원 향토사료조사위원	태종이 각림사에서 '召慰古老' 한 것에 대하여-강림 지역의 지명유래전설을 중심으로-	100
	장려상 (문화원연합회장상)	김태수 삼척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삼척문화원 실직문화연구회	삼척지역 '제사 모셔가기' 고찰	100
장려상 (문화원연합회장상)	금창현 강릉시청 학예연구사 강릉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江陵 屈山寺에 대하여	100	
향토문화자료부문	최우수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이상훈 장수고등학교 교사 진안문화원 회원	鎭安地域 마을 풍수에 관한 연구-비보풍수를 중심으로-	200
	우수상 (문화예술진흥원장상)	이동선 남해문화원 원장	神祕의 徐市過此-南海 徐市過此에 對한 郷土史的 考察	100
	우수상 (국사편찬위원회장상)	황의천 대천여고 교사 대천문화원 회원	윤석봉(尹錫鳳) 선생의 홍경일기(洪京日記)	100
	장려상 (문화원연합회장상)	박대현 영월책박물관장 영월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1950·60년대 영월의 생활풍속 연구-송광용 만화일기를 중심으로-	50
	장려상 (문화원연합회장상)	김성준 울진군청 공무원 울진문화원부설 울진역사연구소장	蔚珍의 驛·院에 대한 小考	50
	장려상 (문화원연합회장상)	임원택 진위중학교 교사 평택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平澤의 城郭遺蹟에 관한 研究-평택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0

2002년도 문화의 날 기념행사가 “침묵에서 땅울림으로”라는 슬로건 하에 10월 19일 국립극장에서 다채롭고 성대하게 펼쳐졌다.

이날 오후 3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기념식은 대통령 영상 메시지 전달, 문화정책 영상자료 상영, 문화선언문 낭독, 서훈 및 시상, 문화관광부 장관 치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문화의 세기에는 문화가 국가경쟁력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국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일이 바로 우리문화와 역사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일이 아닌가 한다”며 이는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어야 ‘문화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행사

문화의 날 기념행사 다채롭게 펼쳐지다



사진설명

한편 문화의 달 행사추진위원회 차범석 위원장은 지면을 통한 인사말에서 “우리의 현실은 사뭇 살벌하다. 문화라는 탈을 쓰고 낭비와 전시효과와 향락적인 분위기로 물고가는 꼴이다. 진솔하고 차분하고 겸허한 것은 낡고 생명이 없다하여 절규하고 몸부림치고 소란한 이벤트화가 곧 현대 감각이라고 오인하고 있다. 문화정책도 순간적인 발광과 높고 큰 기념탑만 세움으로써 전시효과만 노리는 경향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잔치가 아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것은 외형적인 볼거리가 아니다. 무릇 예술이 작가의 영혼을 불사름으로써 창조되듯이 모든 문화는 바로 정신적 유산이자 결정일인데, 과연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 오늘날은 생각을 가다듬어 봐야 한다”고 문화의 달의 참 뜻을 되새겨보자고 강조하였다.

이날의 문화훈장서훈에서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이 은관문화훈장을, 허종성 마산문화원장·최종규 포천문화원장·정호돈 강릉문화원장·이창교 문경문화원장·김진원 대전서구문화원장이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어려운 여건아래서 문화원의 내실화와 향토문화의 보존과 창달,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향수기회의 신장에 노력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기념식에서는 「시와 가락과 춤이 하나 되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시인의 상징적, 이념적 시들을 가곡과 낭송, 연주 등으로 구성하고 그에 알맞는 춤사위를 만들어 공연함으로써 계층과 지역과 단체가 별을 허물고 하나로 거듭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31회를 맞이하는 문화의 달을 더욱 빛나게 한 축하공연이었다.

기념식에 이어 오후 4시~5시에 국립극장 야외광장에서 부대행사로 줄타기(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 진도 강강술래(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문화소원지쓰기, 문화그리기(붓으로 그리는 나의 문화생활) 등이 펼쳐졌다. 오후 5시~8시에는 국립극장 야외특설무대에서 전국 ‘강강술래’ 한마당야외축하무대가 전국의 이름있는 무용단이 출연하여 화려하게 펼쳐졌다. 



진솔하고 차분하고 겸허한 것은 낡고 생명이 없다하여 절규하고 몸부림치고 소란한 이벤트화가 곧 현대 감각이라고 오인하고 있다. 문화정책도 순간적인 발광과 높고 큰 기념탑만 세움으로써 전시효과만 노리는 경향이다.

은관을 수상한

-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과 권용태 서울시지회장, 정호돈 강릉문화원장, 최종규 포천문화원장, 이창교 문경문화원장, 김진원 대전서구문화원장, ▼이영철 도봉문화원장.





양띠해



양띠해 양 이야기

정초가 되면 그 해의 수호 동물이
 할 수 있는 십이지의 띠 동물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통해
 한해의 운수를 점치는 게 옛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라 할 수 있다.
 평화와 정의를 상징하는 양띠 해를
 맞아 양의 습성이라든가, 양꿈,
 양자리 등 양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더불어 올해의 운수를 점쳐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동서양 문헌 속에 등장하는 영험스럽고 상서로운 동물

무릎을 꿇고 젖을 먹는 양은 은혜를 아는 동물이다. 늙은 아버지에게 젖을 물리며 노후를 봉양하는 양의 모습에선 효를 연상케 한다. 상형 문자인 羊(양)자가 생기게 되자, 양(羊)은 인간의 모든 기쁨을 포괄하는 글자가 되어 '좋은 것' 또는 '상서로운 것'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것은 '크게 좋고 상스럽다'는 것을 요즘처럼 '大吉祥'이

라 쓰지 않고 '大吉羊'이라 썼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음력 2월과 8월,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인 석전대제에서 도마 위에 담은 희생으로 양머리(羊膍)를 사용했다고 한다. 곧 동양에서 일찍부터 영험스러운 동물로 알려진 양은 유교의 대표적인 희생물이라 할 수 있었다.

양의 가죽 옷은 임금이나 대부 등 높은 신분엔 있는 사람만 입을 수 있다. 곧 논어에 이른바 염소 가죽옷에 검은 관을 썼다는 '羔裘玄冠'이 그것을 잘 말해 준다.

한자의 미(美)는 '羊'과 '犬'가 모여 이뤄지고 선(善)자 의(義)자 등에도 羊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양이란 동물은 본시 먼 옛날부터 착하고 의로움의 상징이었던 게 틀림없다. 그래서 양날 곧 미일까지도 '좋은 날' '탈 없는 날'로 통용된다. 12지날에 여러 금기가 있지만 양날만은 아무 금기도 없다고 한다.

또한 우리 속담에 '양띠는 부자가 못된다'라는 말이 있다. 양띠 사람은 양처럼 너무 정직하고 정의로워서 부정을 못 보고, 너무 맑아서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양은 서양의 정신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동물이다. 서구의 기독교 문명을 받쳐 온 성경에서 양이야기는 무려 500번 이상이나 인용된다. 고대 이스라엘인의 생활에서 양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제의(祭儀)의 필수품이었다. 양의 머릿수가 곧 재산을 뜻했다. 또한 양고기는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최



고의 음식이었다.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의 마굿간을 양치던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에게 인도했다는 것도 양의 상징적 기능을 말해 준다. 또한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뒤 이스라엘이나 서양에서 양을 제물로 삼는 번제(燔祭)가 없어진 것은 예수와 양이 동일시된 성서의 유산이다. 이처럼 기독교 문화에서 양은 선량한 사람이나 성직자를 상징해 왔으며, 일상생활에서 소나 말에 못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일찍이 고대의 수메르인이나 이집트인들을 비롯 그리스, 로마, 게르만 민족도 양을 신의 신성수(神聖獸)로 생각했다. 유목민족에게 양은 특히 뇌우(雷雨)의 신이 가장 좋아하는 제사용 동물로 여겨졌다. 고대 로마에서는 양은 미래를 점치는 동물로 활용했다. 따라서 서양인들은 양을 가리켜 인간의 이로움을 위해 희생하고자 태어난 동물로서 높은 경지의 도덕성과 생생한 진실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다.

남을 공격하지 않는 온순함과 이로움 그리고 정직성의 상징

양은 성격이 순박하고 온화하여 좀처럼 싸우는 일이 없다. 무리를 지어 군집 생활을 하면서도 동료간의 우위 다툼이나 암컷을 독차지하려는 욕심따윈 내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순한 양도 일단 성이 나면 참지 못하는 다혈질의 기질 또한 가지고 있다.

양은 똑같은 길을 몇 번이고 반복해



왕래해도 싫증을 모른다. 양치기가 내버려두면 수백 번이라도 그 길을 왔다갔다 해서 황무지가 될 정도다. 하루종일 먼 곳을 돌아다니다가도 꼭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이것은 양이 고지식하고 정직하며 귀소성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은 자신의 적으로부터 방해를 받았던 길은 두 번 다시 가지 않는다. 또 물을 잘못 먹고 배탈이 났을 경우 그 근처에는 얼씬도 않는다. 이 습성은 양이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양은 식물성 음식이면 무엇이든 잘 먹는다. 그러나 기생충이 생길 위험이 있는 풀은 절대 안 먹는다. 풀잎도 깨끗한 것으로 가려 뜯는다. 양은 떼를 지어 살며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한다. 알프스의 험준한 급경사를 로프도 없이 오른다. 산양은 네 발로 자기 몸의 중심을 잡으면서 거뜬히 올라간다. 새끼를 낳으면 새끼에게 등산 훈련까지 시킨다.

양은 순한 동물이다. 발톱이 있으나 할퀴지 않고 이빨이 있어도 물지 않으며 뿔이 있어도 받아치는 일이 없고 남을 공격하지 않는

다. 그래서 양의 해에는 딸을 낳아도 구박 받지 않는다는 얘기도 이러한 성향에서 기인한 게 아닐까 한다.

양꿈은 길몽이다

이성계가 초야에 묻혀 지내던 시절의 얘기다. 이성계가 어느 날 양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양을 잡으려 하자 뿔과 꼬리가 몽땅 떨어져 나갔다. 깜짝 놀라 꿈을 깬 이성계는 무학대사(無學大師)를 찾아가 꿈 이야기를 했다. 무학대사는 이 꿈을 이성계가 임금에 오를 꿈으로 풀이했다. 곧 한자의 ‘羊’ 자에서 양의 뿔과 양의 꼬리를 떼고 나면 “王”자만 남게 되어 곧 임금이 된다는 것이다. 이 해몽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 이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여 왕위에 올랐다.

꿈에 ‘양을 끌고 오면 부자가 될 징조다’ ‘양과 돼지가 짝을 지어 다니면 행운이 온다’ ‘양을 타고 걸으면 재물을 얻는다’ ‘양이 새끼를 거느리면 장수하고 재수가 좋다’ 등 양꿈은 옛부터 좋은 꿈으로 풀이되고 있다.

로마 사람들은 아침에 양떼를 보면 행운이 온다고 믿었다. 또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양을 보면 불행의 징조라 믿었다. 처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외양간 문을 3번 두드려서 먼저 오는 양을 보고 언제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을 점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금까지도 양꿈에 대한 해몽은 희생, 제물, 종교인, 선량한 사람 등으로 해석한다. 이런 연유는 목축 민족에게는 양이 재산의 척도가 되고, 제단에 바치는 희생물이었다. 양의 성품이 티 없이 온순해 착한 사람에 비유되며 기독교 문화에서는 성서에 나오는 양과 관련하여 종교인의 상징이 된 것이다.

불타는 정의감으로 이상을 추구하는 양자리

12월의 저녁 때 머리 위보다 남쪽에 보이는 별자리가 양자리다. 모양새가 뒤돌아보면서 뛰어가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양은 계모에게 살해 될 뻔한 불쌍한 남매 프릭소스와 헬리를 구출한 황금빛 털을 가진 잘 생긴 양이다. 하늘 높이 뛰어올라 두 신을 안전한 곳까지 운반하려고 했으나 너무 빨리 가느라 동생 헬리가 바다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급히 달리면서도 바닷속에 빠진 헬리가 가엾어 몇 번이고 뒤돌아 보는 것이다. 태양이 이 성좌를 통과하는 3월 21

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양자리의 지배를 받아 불타는 정의감으로 약자를 도우며 이상을 추구해 돌진해야 한다고 한다. ☞

김지영 (자유기고가)

〈이 글은 www.nonghyup.com에 올린 천진기씨(국립민속박물관)의 ‘12지신’에 관한 글과 이종환씨(교육자)의 ‘누구나 주어진 띠 열두 동물이야기’에서 발췌 정리했습니다.〉

역사로 본 양의 해

- 179년 고구려 신대왕이 죽고 9대 고국천왕이 즉위.
- 359년 서양에서는 로마제국과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남.
- 1019년 강감찬 귀주에서 금안군을 대파함.
- 1919년 3·1운동 등 자주독립을 외쳤던 정수의 해.
- 1559년 황해도에 의적 임꺽정 일당이 횡행. 사임당씨가 죽음.
- 1955 바르샤바 조약기구 설립.
-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 발발.
-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살해.

겨울풍경



제1회 한국자연예술 명품 대전

분재·수석·난·꽃꽂이·야생화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자연예술 명품대전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산호수공원내 고양국제꽃전시장에서 열렸다.

한국자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분재협회·한국분재문화예술협회·애석인협회·한국수석회·한국난문화협회·한국전통꽃예술연구회·한국꽃문화진흥협회 등 7개 단체가 공동주관한 이번 대전에는 손학규 경기도 지사를 비롯 문화예술계 인사가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개막식에서 곽진희 회장은 그동안의 어려움과 고마움을 말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바쁜 도정에도 불구하고 동석했던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곽회장님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점필재, 김종직 선생 학술회의

밀양문화원은 10월 15일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청 대강당에서 점필재(店畢齋) 김종직 선생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김종직 선생의 도학사상과 그 유학사상의 위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장동표 밀양대 교수와 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발표와 토론이 각각 활발하게 진행됐다.

다음은 발표·토론자 명단

●발표

- 기 조 강 연 : 李 佑 成 (민족문화추진회 회장)
- 기 조 연 설 : 점필재 선생에 대한 연구와 그 과제

- 발표자 : 鄭羽洛(영산대) 김종직 문학정신과 東國文化에 대한 自覺

金忠烈(남명학연구원원장) : 한국유교의 도통과 김종직의 위상

李樹煥(영남대) : 점필재 · 김종직의 자아의식과 역사의식

金泰永(경희대) : 점필재 · 김종직의 자아의식과 역사의식

朴丙鍊(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점필재 · 김종직의 정치사상과 사람파의 계승양상

●토론

최근덕 교수 (전 성균관 관장)

전재강 교수(동아대학교 교양학부)

김일수 교수(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권오영 교수(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곽진 교수(상지대학교 교양학부) 



“김종직, 官學 - 士林 모두 포용했다”



학술회의서 제기

“밀양(密陽) 선비와 안동(安東) 선비가 만났다. 안동 선비가 밀양 선비를 두고 ‘밀양도 명망 있는 학자가 꽤 나왔으니 소(小)안동 아닌가’라고 짐짓 놀리는 척 말을 꺼내자, 밀양 선비가 ‘작은 안동이 아니라 안동을 두고 웃는다는 소(笑)안동일세’라고 받았다.”

동국대 사학과 조영록 명예교수가 전하는 ‘밀양 선비’의 이야기다. 밀양 출신 사람이 지어낸 듯 하지만, 이 말에서 퇴계의 고향 안동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밀양의 선비 정신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경남 밀양의 대표적 선비가 바로 점필재 김종직(Point 畢齋 金宗直 · 1431~1492). 밀양에는 김종직의 생가와 묘소, 그를 사숙하던 후학들의 교육기관인 예림서원이 자리잡고 있다.

15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는 ‘점필재 김종직의 도학 사상(思想)과 유학 사상(史上)의 위치’라는 주제로 ‘김종직 학술회의’가 열렸다.

밀양 문화원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학계 인사들뿐 아니라 김종직의 후손인 선산(善山) 김씨 종친회원 등이 참관해 성황을 이뤘다.

김종직은 조선조 사림 전통을 확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조선 전기의 유학자. 영남 사림파를 대표하는 김종직은 조선 성리학에서 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김숙자(金叔滋)의 뒤를 잇고, 김광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이항(李滉)의 앞에 선 도통(道統)의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이우성 민족문화추진회장, 김충렬 남명연구회장(고려대 명예교수), 최근덕 전 성균관장, 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 등 학계 원로들이 참여해 비중을 높였다. 김충렬 원장을 비롯해 이수환(영남대) 김태영(경희대) 정우락(영산대) 박병련(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김종직의 생애와 정치 사상, 문학적 성과, 역사 의식 등을 다각도로 재조명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박병련 교수의 견해가 눈길을 끌었다.

박교수는 ‘점필재 김종직의 정치사상과 사림파의 계승 양상’이라는 주제 논문을 발표하면서 “김종직은 부친 김숙자(金叔滋)를 통해 당시 관학(官學)계의 태두였던 번계량(卍季良)을 비롯해 조옹(趙雍) 윤상(尹祥) 김말(金末)의 영향도 받았다”며 김종직이 관학과 사림의 맥락을 함께 수용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김종직을 사림의 종장(宗匠)으로만 보던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정교수처럼 사회과학(행정학)을 전공한 학자가 김종직을 고찰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박교수는 “김종직을 길재의 학통만을 이은 사람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명분론적 이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김충렬 원장은 “조선 유교 도통의 특징은 학문과 문장을 바탕으로 절의가 더해진 것”이라며 “역사 기록이나 시문을 통해 불의를 고발하고 후세를 경계한 김종직은 이런 조선 유교 도통의 관철적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교수는 “김종직은 일반적으로 문학인으로 알려졌으나 실은 성리학에 진작부터 조예가 깊었으며 ‘치심지학(治心之學)’을 갖추고 있었던 학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손기현 밀양문화원장은 “앞으로 2년간 김종직 학술 회의를 2차례 정도 더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김종직의 학문과 생애를 심도있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10월 17일자)

詩의거리 문화축제

마산시민의 사랑을 받는 문화공간 마산문화원에서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시의 거리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최근 우리 문화예술이 국제적으로 전례없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문화 창세기'의 조짐을 보인다고들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라 '생활문화의 시대'를 앞당기고 있어 이제 '문화폭발의 시대'로 자연스럽게 접어들고 있는 때에 즈음하여 시민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문화원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마산문화원에서는 시의 거리 문화축제의 하나로 10월 13일 산호공원에서 훈민정음 반포 556돌을 기념하는 전국 남녀한글백일장대회를 개최했다.

또 10월 18일 문화원에서는 서막제 공연으로 '문화원 예술단'의 장고춤, 가야금 병창, 사물놀이 공연과 시낭송, 산문낭송 등 순수 우리 것에 대한 발표회를 열었다. 이와 함께 전시회로는 시화전과 격동의 구한말 역사의 사진전에 각각 200여 점, 1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그런가 하면 향토 증견작가 회화전과 회원 작품전도 열려 향토문화예술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특히, 구한말 사진전은 1904년 당시 프랑스 중군 기자들이 우리나라 현장에서 촬영한 생생한 사진으로 과거와 현재의 대화속에서 미래를 창조,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됐다.

또한 21일부터는 옛 선조들의 생활집기로부터 사대부의 장식품 등에 이르기까지 도내에서 첫 공개되는 도민 소유의 가치 있는 물품, 회화, 도자기 등 고미술품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10월 24일에는 전국의 한학자들이 모여 고운 최치원 선생의 유허지 월영대와 한강선생의 유허지(서당) 관해정을 상기하는 심성으로 전국 한시백일장대회를 마무리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공간에 대한 투자는 클수록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진리를 새삼 강조하고 싶다.

진작 삼성 이견희 회장께서는 "문화가 없는 상품은 더 이상 팔리지도 않고 문화가 없는 기업은 존립할 수도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우리 모두 하루가 다르게 넓어져 가는 정보문화공간과 친숙해져야 할 때다.



제7회 갑천문화제 개최 성료

대전 서구문화원(원장 김진원)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주최하고 대전 서구문화원이 주관하는 제13회 구민의날 기념식 및 갑천 문화제 행사를 지난 10월 10일~13일까지 4일간 대덕대교변 갑천잔디광장과 샘머리공원에서 개최했다.

첫날인 10일에는 갑천 잔디광장에서 구서기시대 등 역사의 변천사를 재현하는 선사시대여행과 갑천수신제, 구민의날 행사로 널뛰기, 물동이지기, 지게등집등의 민속놀이가 각 동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그와 더불어 민요합창단의 민요한마당, 댄스크립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이뤄졌다.

둘째날인 11일에는 각 동별 풍물경연대회가 열렸으며 가수원동이 장원을 차지했고 오후에는 실버노래자랑이 임주리 등의 초대가수 공연과 함께 노인분들의 흥겨운 장이 됐다.

셋째날에는 ‘서구사랑 작은음악회’가 금관 5중주의 연주로 그 막을 열었으며 댄스크립의 공연과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잘 알려진 “느티나무” 등의 공연이 이뤄졌다. 2부 순서로 주민들의 노래자랑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연출되었다. “서구사랑 작은음악회”는 샘머리공원에서 매주 화요일 18시에 개최되며 서구민들의 작은쉼터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마지막날인 13일에는 샘머리공원에서 올해로 8회째 개최하는 샘머리백일장이 초·중·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운문에 코스모스와 산문에 외갓집이라는 글제로 많은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초등학교생들의 꾸밈없는 순수한 글들로 참신한 작품이 많이 선보였다. 지난 10월 19일 발표

한 입상자의 시상식은 11월 2일 토요일 오후3시 서구청 중회의실에서 이뤄졌다.

50만 서구민의 화합과 번영의 축제인 갑천문화제가 회가 거듭될수록 미래에 남길 화려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되길 바래본다. **문**



전국문화원 소식

전국문화원연합회

지난 여름 물난리에 지방문화원 3천여만원 성금모아

지방문화원은 지난 여름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온 나라가 물난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과 수해를 당한 문화원에 총 3천여만원의 성금과 구호물품을 모금하여 훈훈한 인심을 전했다.

수재의연금을 모은 문화원 중에는 문화원 회원이나 문화학교 수강생의 성금모금을 통해 많게는 6~7백만원을 전달한 곳도 있고 연합회 회장과 지방문화원장들은 개인 주머니를 털어 수백에서 수십만원의 수재의연금을 기탁 했다. 또한 문화원간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패해를 입은 문화원에 복구비용을 전달했으며, 충북, 전북도 등

은 수해를 입은 도내 문화원에 관내 문화원들이 십시일 반으로 성금을 모아 지원하기도 했다. 일부 문화원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지원에 나선 경우도 있다.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수재를 입은 강릉, 양양 등 10개 문화원에 복구비를 지원했다.

이번 물난리로 가장 피해가 심했던 문화원은 강원도 정선과 양양문화원으로 두곳 모두 문화원이 침수되어 컴퓨터 등 집기나 향토문화 관련 수집자료가 훼손 되는 등 커다란 피해를 당했다. 또 강원지역 일부 문화원 관계자는 가옥파손과 농경지가 유실되기도 했다.

천안문화원

2002 특별기획 '한국미협 천안지부 초대전'

천안문화원이 주최한 2002 특별기획 '한국미협 천안지부 초대전' 이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문화원 전시실에서 개최됐다.

도봉문화원

최영근 선임 사무국장, 백부원 팀장 임명

도봉문화원은 최근 총회를 열고 최영근 과장을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또 이번 인사이동에서 백부원 간사는 팀장에 임명되어 문화원 핵심 업무를 맡게된다.

마포문화원

신임 최경한 사무국장

마포문화원은 최근 총회를 열고 고만호 사무국장 후임으로 최경한총무과장을 신임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신임 최경한 사무국장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마포구 5개 동장(성산2, 연남, 대흥, 동교, 성산), 마포신문사 업무·편집국장을 지낸 후 마포문화원 총무과장으로 일해왔다.

제5회 삼개시 낭송회 개최

마포문화원은 11월 19일(화) 오후2시 마포문화체육센터 3층 공연실에서 황금찬, 신달자, 홍금자씨 등 유명시인과 마포 여성합창단원, 국악·성악인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삼개시

낭송회를 개최했다. 삼개는 마포의 옛 이름이다.

문경문화원

제31회 문경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제31회 문경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11월 15일 오후 7시 문경시 주최 문경문화원 주관으로 문경시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경북지회

제9회 경상북도 향토민요경창대회

경북지회는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1시 약 5백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경상북도 향토민요경창대회를 개

전국문화원 소식

최했다. 다음은 입상내역

* 대상 = 김금이의 3명 · 경주시 · 논
매는 소리

* 최우수상 = 임분희외 5명 · 청도
군 · 모심기 노래

* 우수상 = 육창수 · 상주시 · 지신포이

* 우수상 = 서행원의 6명 · 김천시 ·
나물노래

* 장려상 = 주영자외 7명 · 경주시 ·
새야새야 각노새야

* 장려상 = 조석탑외 3명 · 안동시 ·
저전농요

경주문화원

2002년 문화인물강연회

경주문화원은 12월 7일 문화원 강
당에서 '술거와 그 시대' 라는 주제로
2002년 문화인물강연회를 열었다.

완도문화원

제7회 향토작가합동전시회

완도문화원은 11월 12일 완도군문
화체육센터에서 제7회 향토작가합동
전시회를 개최했다.

유성문화원

서포 김만중 추모 문화제

유성문화원은 11월 16일 오전 10시
문화원 다목적실에서 서포 김만중 추모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오후 2시부터
는 유성구 전민동 김반의 묘사적지에서

서포 김만중 추모 효 백일장을 열었다.

연주문화원

제1회 가족문화제

연주문화원은 개원 1주년 기념으로
11월 16일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제1회
가족문화제를 개최했다.

과천문화원

제8회 과천향토작가 작품전람회

과천문화원은 11월 21일부터 26일
까지 제8회 과천향토작가 작품전람회
를 개최했다.

오산문화원

이기룡 제3대 문화위원장 선출

오산문화원은 제3대 문화원장에 이
기룡 이사를 선출했다.

철원문화원

김철암 사무국장 임명

철원문화원은 최근 총회를 열고 신
임사무국장에 김철암씨(44)를 임명했
다.

원주문화원

박종락 신임 문화원장

원주문화원은 11월 3일 제15대 원
장에 박종락 이사를 선출했다. 신임

박원장은 춘천농과대학 졸업후 인제
군 · 원주시 등에서 공직생활을 했
다.

거창문화원

제8회 거창합창제

거창문화원은 11월 25일 오후 7시
거창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제8회 거
창합창제를 개최했다.

경북지회

2002년 경상북도내 문화원장 · 사 무국장 연석 연찬회

경북지회는 11월 28일과 29일 양
일간 한국국학진흥원 소회의실에서
2002년 경상북도내 문화원장 · 사무
국장 등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가졌
다.

경기도 광주문화원

이상복 신임 문화원장

경기도 광주문화원은 최근 총회를
열고 제5대 문화원장에 이상복 전 광
주문화원 부원장이자 한국양묘협회회
장을 선출했다.

진해문화원

주소이전

645-090

경남 진해시 중평동 8-1

전국문화원 소식

(전화)055-544-8880
(FAX)055-543-4148

고양문화원

오수길 신임 문화원장

고양문화원은 신임원장에 오수길씨(65)를 선출하고 사무국장에는 이진진씨를 임명했다.

순창문화원

설동찬 원장 재임

순창문화원은 임시총회를 열고 문화원장에 설동찬씨를 재선임하고 사무국장에는 설재천씨를 임명했다.

종로문화원

최용주 신임 사무국장

종로문화원은 전종실 사무국장 후임으로 신임 사무국장에 최용주씨(55)를 임명했다.

당진문화원

정정희 신임문화원장

당진문화원은 신임 문화원장에 정정희 부원장(50)을 선출했다.

관악문화원

주소 이전

151-858 서울 관악구 신림9동

209-1 관악문화관 1층
(전화) 02- 885-5975, 878-1931
(FAX) 02- 886-1660

부안문화원

김원철 신임 부원장

부안문화원은 신임 부원장에 김원철(62) 전 부안여중 교장을 선출했다.

송파문화원

신중식 신임 문화원장

송파문화원은 신임 문화원장에 신중식씨(68)를 선출했다.

무안문화원

주소변경

534-802
전남 무안군 무안을 교촌리 127-4(송달문화예술회관 내)
(전화) 061-452-8648 (FAX) 061-454-4001

태안문화원

태안문화원 이·취임식



태안문화원은 9월 14일 이갑춘 전 문화원장과 정우영 신임문화원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

의정부문화원

원용목 신임 사무국장

의정부문화원은 신임 사무국장에 원용목씨를 임명했다.

울산동구문화원

허량 신임 문화원장

울산동구문화원은 신임 문화원장에 허량 문화단체 객석공동대표를 선출했다.

경남지회

고성문화원장 이·취임식 개최

전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회(지회장 허종성)는 2002년 9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 전임 제두근 제4대 고성문화원장과 신임 김권조 제5대 고성문화원장의 이·취임식을 고성문화원에서 개최하였다.

마산문화원

산청군 일원 문화탐방

마산문화원은 지난 11월 5일 회원 1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명 조식선생을 비롯 문익점, 유의태, 성철스님 등 많은 선인을 배출한 선

전국문화원 소식

비의 고장 산청군 일원을 탐방했다. 이날 답사자들은 목면시배유지, 성철대종사 생가, 남명 조식사적지, 지리산빨치산도벌전시관, 대원사를 탐방했다.

공주문화원

우공서예전 등 개최

우공서예전

- △ 일시 : 11월 2~4일
- △ 장소 : 제1전시실
- △ 주관처 : 우공서예학원

공주영상정보대 애니메이션과 졸업 작품전

- △ 일시 : 11월 5~8일
- △ 장소 : 강당, 제1, 2전시실
- △ 주관처 : 공주영상정보대 애니메이션과

빨간산타 피아노학원 음악회

- △ 일시 : 11월 9일 16:00
- △ 장소 : 강당
- △ 주관처 : 빨간산타 피아노학원

공주대학교 건축과 건축전

- △ 일시 : 11월 12~15일
 - △ 장소 : 제1, 2전시실
 - △ 주관처 : 공주대 건축과
- #### 효학생백일장 시상식
- △ 일시 : 11월 14일 15:00
 - △ 장소 : 강당
 - △ 주관처 : 공주문화원

공주먹그림회 '난' 그림전

- △ 일시 : 11월 16~19일
- △ 장소 : 제1전시실
- △ 주관처 : 공주먹그림회

건반피아노학원 연주회

- △ 일시 : 11월 23일 18:00
- △ 장소 : 강당
- △ 주관처 : 건반피아노학원

숙명음악아카데미 연주회

- △ 일시 : 12월 14일 14:00
- △ 장소 : 강당
- △ 주관처 : 숙명음악아카데미

미래종합교육센터 미술작품전시회

- △ 일시 : 12월 20~21일
- △ 장소 : 제1전시실
- △ 주관처 : 미래종합교육센터

크로스웨이21문화선교회 기독교행사

- △ 일시 : 12월 28일 18:00
- △ 장소 : 강당
- △ 주관처 : 크로스웨이21 문화선교회

의령문화원

제2회 의령군민회화대회 개최



의령문화원은 10월 문화의 달을 기념해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남산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의령군민회화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전통문화의 계승창달과 문화원부설 각 지역 서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예인구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의령군과 군의회, 의령교육청, 각기관단체가 후원하고 연목회, 서우회, 향목회, 연서회, 정목회, 주부서예교실, 주부목화교실에서 협찬했다. 참가부문은 남·녀 일반부와 초·중·고 학생부이며 자격은 의령군내 거주자로 제한했다. 입상된 작품은 의령문화제11호에 게재되고 시상식은 당일 3시30분경 군민문화회관 2층회의실에서 실시했다. 포이날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도 전달하며 200여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시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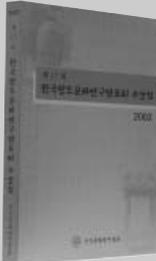
전국문화원연합회

전국문화원연합회 4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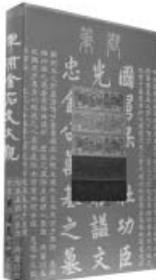
1962년 8월 8일에 창립되어 금년으로 40년을 맞이한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전국문화원연합회 40년사」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제1부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어제와 오늘' 에는 역대회장, 사진으로 보는 40년사 등 연합회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있다. 제2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제언에서는 문화원 외부인사와 문화원 관계자들의 제언을 수록하였다. 제3부에는 전국 215개 지방문화원의 현황을, 제4부에서는 연합회의 주요사업실적을 정리하였으며 제5부에서는 각종통계자료, 제6부는 부록으로 관련법규 등을 수록하였다.

제17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수상집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2002년도 제17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수상집을 발간하였다. 논문부문에서는 대상 「18세기 군산지역 봉수대의 폐지 및 이설에 따른 위치 및 명칭 확인」(김중규), 최우수상 「향토 사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례연구」(유승광), 우수상 「목포의 지명 유래에 대한 소고」(오홍일), 우수상 「울진지역 불교문화재에 대한 소고」(심현용)를 비롯 장려상 4인의 논문과 자료부문의 최우수상·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수록되어 있다.

군포금석문대관



군포문화원

군포문화원에서는 군포관내에 산재해 있는 39점의 비문을 채택하여 원문과 번역문을 사진과 함께 편집·수록한 군포금석문대관을 발간하였다. 수록범위는 1945년 이전에 건립된 것 중 음기가 있는 것에 한하였으며, 금석문의 소재지는 2002년 1월 현재의 법정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록 순서는 어필(1점), 신도비(6점), 묘갈(16점), 묘표(15점), 묘지석(1점)의 순으로 편집·수록하였으며, 비의 건립연대가 빠른 것부터 수록하였다. 부록으로 군포금석문 일람에는 50점의 비문 일람표가 정리되어 있다.

경상도 기장현 문헌지



기장문화원

기장문화원에서는 그동안 기장의 역사와 문화, 기장현의 각사 등록초, 기장현관계 문헌집성, 동서역사조감록, 기장군지 등 문헌 발간사업의 뒤를 이어 금년에는 기장현문헌지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경상도기장현문헌지」에 수록된 자료의 출처는 경상도기장현읍지를 비롯하여 삼국사기지리지, 경상도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경상도), 경상도속찬지리지, 여도비지(1),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하), 대동지지, 한국근대도지(7)·(13), 영남읍지, 조선환여승람, 동래군지 등이었다.



황성의 구비문학(Ⅰ)·(Ⅱ)

황성문화원에서는 황성군 전지역에 구비전승되고 있는 구비문학 및 민속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채록·정리하여 2권으로 간행하였다. (Ⅰ)권에는 갑천면·강림면·공근면·문내면·서원면의 5개면, (Ⅱ)권에는 안흥면·우천면·청일면·황성읍의 4개 읍·면을 수록하고 있다. 수록된 자료들은 민속·설화·수수께끼·농사개관·농요개관·민요 등 6가지로 분류하여 설화나 민요뿐만 아니라 농사에 대한 구술, 복술에 관한 구술, 주막집·민간치료법에 관한 구술들까지 정리·수록하고 있다.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역사넷

이 책은 예술경영과 문화정책을 전공하는 일본학자(이토오 마사오·아마자키 토시에·고바야시 마리·카리야 마 타이스케·나카가와 이쿠오)들이 공저한 「ARTS MANAGEMENT」를 이흥재(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장) 번역으로 출간된 것이다. 내용은 서장으로 '예술경영을 배운다는 것은', 제1부 기초(이념)편으로 '문화예술과 사회', '문화예술과 법', '예술경영으로의 경제학적 접근', '문화예술과 정책', 제2부 응용(실천)편에는 '공영단체의 경영', '공공문화시설의 경영', '추진기관과 경영'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별, 글 숲에 모이다

장흥문화원

장흥문화원에서는 '2002 장흥군 문화예술인대회 기념 작품집'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장흥 출신 문인들의 작품을 모아 「별, 글 숲에 모이다」를 발간하였다. 장흥은 옛부터 '장흥기단'이라 불릴 만큼 기봉 백광홍(1522~1582)을 효시로 하는 가시문학의 전통을 이어온 '문림고을'이었다 한다. 이번에 발간된 작품집에는 이 고장출신 시인 25명의 작품과 송기숙·이청준·한승원 등 24인의 산문 등 총 49인의 작품이 작가의 출생년대 순으로 수록되었다.



민요와 한국인의 삶 ①

거창문화원

거창문화원에서는 박종섭교수(계명대)의 채록에 의한 '거창민요'를 출간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누구나 민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흥미를 기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민요와 한국인의 삶」을 발간하기로 하고 그 첫권을 발간하였다. 일소리(노동요) 12개 소리, 저항노래 8개, 한노래 1개, 정노래 6개, 의식소리 3개 등 30개 소리를 해설과 곁들여 노랫말을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불멸의 충절

영월문화원

1974년 2월 2일, 예비역 육군 병장 김익한이라는 젊은 청년이 국립묘지 월남 참전용사 묘역에 잠들어 있는 옛 중대장 고 육군소령 김용강의 묘 앞에서 "중대장님. 생전에 부하로서 다하지 못한 충성을 이제 중대장님 곁으로 가서 다하겠습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순사한 사실이 있었다. 그 청년은 역시 국립묘지에 안장되었고 육군 본부는 「불멸의 충절」(1974. 10 발간)이라는 책을 만들어 정훈교재로 활용하였다. 영월문화원에서는 이 곳 출신인 김병장을 기리기 위하여 육군본부의 승인 아래 「불멸의 충절」을 원본대로 재발간하였다.

김포의 인물지

김포문화원

김포문화원은 김포시 금석문대관, 심포설화집의 후속으로 「김포의 인물지」를 출간하였다. 김포출신 및 김포 관련인물로서 2000년 이전에 작고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김포에서 출생하였거나 성장·우거·유택이 있는 인물과 김포를 위해 업적을 남긴 인물, 김포와 양천이 본관인 인물 및 관내를 본관으로 하고 있는 인물들을 출생년을 기준으로 고려시대 인물(15일), 조선시대인물(401인), 근·현대인물(23인) 등 총 439인의 생몰연대와 가족관계 및 행적과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 사료를 통해 본 고성(Ⅰ)·(Ⅱ)

고성문화원

고성문화원에서는 강대덕 편저의 「조선시대 사료를 통해 본 고성(高城)」을 두권으로 출간하였다. <1권>에는 조선왕조실록 태조~선조까지, <Ⅱ권>에는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순종까지(1396~1907)의 강원도 전반에 걸친 일반사료와 고성·간성 지역 관련자료를 발췌·번역문을 엮은 조선시대 고성·간성의 역사자료집이다. 사료의 배열은 편년순으로 하였으며, 각 왕조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고성문화원은 이것을 계기로 연차적으로 고성관련 기본자료집을 속간할 계획이라 한다.



사마방목과 여주/삼국·고려시대와 여주

여주문화원

여주문화원에서는 「사마방목과 여주」, 「삼국·고려시대와 여주」라는 2권의 사료집을 발간하였다. 사마방목(司馬榜目)은 조선시대의 생원·진사시험 합격자 명단으로 여주출신의 합격자 명단을 왕조별로 가려 뽑고 그 인적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삼국·고려시대와 여주」는 삼국사기·고려사·고려시절요 등의 역사서에서 찾아낸 여주관련의 인사들을 삼국사기·고려사·고려시절요·동국이상국집·동문선·고승비문·묘지명의 순서로 수록·정리하여 여주인들의 긍지와 삶의 지표로 삼고자 하였다.



역주 보림사 중창기

장흥문화원

장흥문화원에서는 우리 역사의 큰 구심점이자 정신문화의 산실이었던 구산선문의 중창 보림사에 대한 중창기록을 우리말로 옮기고 원문과 더불어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간행했다. 1658년부터 1955년에 이르는 300여년간의 중창기록을 비롯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장흥도호부조를 필사해 놓은것, 그리고 보림사의 사찰운영과 승려들의 활동상황을 기록한 <취변록>을 수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림사의 연표와 역대 주지 명단도 정리수록하였다. 고경스님 감수, 김희태·최인선·양기수의 역주로 되었다.



구암집(천)

사천문화원

사천문화원에서는 이 고장이 낳은 국현 구암 이정(龜巖 李稭 : 1512~1571)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991년에 「성리유편(惺理遺編)」, 1994년에 「구암연보」를 발간한 바 있었으며, 그 후속사업으로 이번에 「구암집(천)」(龜巖集 天)을 이인섭 역해로 발간하였다. 구암 이정선생은 4조(四祖 : 중종·인종·명종·선조)를 섬긴 유신이며 성리학자로서 퇴계·남명의 사우이기도 하였으며 선덕을 베푼 목민관으로 공경을 받았다. 이 책에는 구암선생문집의 원집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누어 번역, 수록하고 원문사본을 첨부하였다.





강진의 갯마을

강진문화원

강진문화원에서는 탐진바다와 그곳에 사는 갯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김해동 시인에게 집필뢰하여 「강진의 갯마을」을 발간하였다. 지은이는 서문에서 “꼬막등을 하고 누워있는 쓸쓸한 갯마을들을 여행하면서 잊혀져가고 지워져 가는 풍경들을 많이 다루었다. 그리고 사라져 가는 여백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파하였다. 충분히 예상은 하였지만 실제로 맞닥뜨려보니 상처들은 깊이 더나 있었다. 부라부라 치유하면 회복될 수 있는 상처들도 있었지만 영원히 곪아 잘라내야 하는 상처도 있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진안의 마을 숲

진안문화원

진안문화원에서는 박재철(우석대 교수)·이상훈(장수고교 교사) 양팀에 의해서 조사 기록된 「진안의 마을 숲」을 발간하였다. 책의 내용은 제1부 진안지역 마을 숲 총괄, 제2부 진안지역 마을 숲의 실태, 제3부 마을별(읍·면·동·리) 숲의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 숲은 신앙적 대상으로서, 풍수지리적 구조물로서, 경관의 장소로서, 주민의 휴가·집회·놀이 공간으로서, 비람과 홍수의 조절장치로서, 마을의 영역을 경계짓는 역할을 하는 등 마을문화가 오랜 세월을 걸쳐 집적된 마을의 역사와 문화의 상징이다.



점필재 김종직의 도학사상과 유학사상의 위치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에서는 점필재 김종직(店畢 金宗直 : 1431~1492)선생 학술회의 자료집을 출간하였다. 점필재 선생에 대한 연구와 그 과제(이우성), 한국유교의 도통과 김종직의 위상(김종렬), 점필재 김종직의 생애와 교육활동(이수환), 점필재의 자의의식과 역사의식(김태영), 점필재 김종직의 정치사상과 사립파의 계승양상(박병련) 등의 논문과, 부록에는 유학의 학맥과 사승관계도, 조의제문, 무오사화사적, 점필재 김종직연보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내고장 용인 지명·지지

용인문화원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서는 「내고장 용인 지명(地名)·지지(地誌)」를 이인영·김성환 편자로 발행하였다. 제1편 지명에서는 용인의 옛지명, 산, 고개, 길, 교량, 하천, 저수지들의 지명을 비롯하여 군내 읍·면·동·리의 지명과 속지명, 구한국시대의 지명등을 조사·정리·수록하고 있으며, 제2편 지지에서는 용인현편, 양지현편, 죽산현편으로 나누어 각각 삼국사기·고려사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동국여지·각현읍지·군지 등에 나타난 지명들을 소개하고 있다.



수지읍지(水枝邑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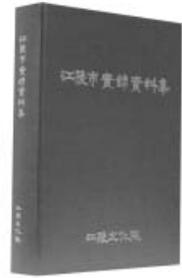
용인문화원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서는 최근 몇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모되고 있는 수지읍의 옛 자료들을 조사·수집하여 「수지읍지」를 발표하게 되었다. 수지읍의 행정연혁 및 지명유래를 비롯하여 환경(자연·인문), 역사, 정치(행정·사업·치안), 산업·경제, 보건사회, 교육, 종교, 언론·출판·인쇄, 문화예술, 문화재(유물·유적), 민속, 민속놀이, 성씨와 인물 등에 관한 내용을 지명의 전문가 및 학자가 동원되어 집필하였다. 총 1400쪽에 달하는 수지읍지는 신홍도시 수지읍의 유일한 자료지가 될 것이다.

강릉시 실록자료집

강릉문화원

강릉문화원에서는 「강릉시 실록자료집」을 박도식 편저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조선왕조실록·고종실록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강릉과 관련있는 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발췌 정리한 것이다. 서론격인 〈강릉시의 연혁〉 항목에서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강릉시의 개괄적 역사를 서술하였고, 본문에서는 관직·인물·사건·지명등에 대한 주석을 첨부하고 색인을 달아서 찾기 쉽게 하였다.



삼척 민속지 제4집(도계편) · 제5집(신기면)

삼척문화원

삼척문화원에서는 삼척민속지 제4집 도계 사람들의 삶과 문화 「육백산 곧드레 개미추 육백마지기 씨앗 육백말」과 제 5집 신기사람들의 삶과 문화 「오십천 사람들」 2권을 김진순 편저로 출간하였다. 도계읍과 심기면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탄광지역으로 유명한 곳이며 신기면은 도계읍에서 분리된 면이다.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민요, 설화, 전설, 세시풍속, 토속신앙, 생활문화, 녀의집과 굴피집, 통방아 등을 원형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이 지역이었다고 한다. 신기면에서는 신기의 옛 이름대로 환선굴 등 새로운 동부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모습도 담고 있다.



거제시지(상권) 〈하권〉

거제시지편찬위원회

거제시에서는 1964년도에 거제군지가 발행된 이후 시 탄생 이래 처음으로 「거제시지」를 상·하 2권으로 편찬 간행하였다. 〈상권〉에는 거제시의 자연, 역사, 행정, 교육, 선거, 경제, 농업의 7편을 수록하고 있으며, 〈하권〉에는 해양수산, 종교, 문화예술·체육, 문화재, 민속문화, 조상의 얼, 문헌자료, 기관 및 사회단체의 8편, 합계 15편의 내용을 원문과 번역문으로 수록하고 있다. 수록대상은 200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평택시사(상권) 〈하권〉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지역에는 1984년의 「평택군지」와 1994년의 「송탄시사」가 있었으나 1995년 송탄시·평택시·평택군이 통합된 이래 「평택시사」가 없었던 것을 이번에 상·하 2권으로 발간하였다. 〈상권〉에는 연혁과 자연환경 및 역사, 문화재, 성씨와 인물 및 민속과 지명유래의 3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하권〉에는 정치·행정, 시의회와 사법 및 국방·안보, 산업·교통·통신·관광·해운·항만, 사회 및 환경과 교육·문화 등 4개편, 도합 7개편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215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지회(02-518-1294)
- 종로문화원(02-731-0628)
- 중구문화원(02-775-3001)
- 용산문화원(02-703-0052)
- 성동문화원(02-2290-7714)
- 광진문화원(02-447-9364)
- 동대문문화원(02-2241-9300)
- 중랑문화원(02-492-0066~7)
- 성북문화원(02-765-1611)
- 강북문화원(02-984-8086~7)
- 도봉문화원(02-905-4026)
- 노원문화원(02-938-1244)
- 은평문화원(02-383-9300~2)
- 마포문화원(02-312-1100)
- 양천문화원(02-651-5300)
- 강서문화원(02-3661-8233)
- 동작문화원(02-822-8500)
- 관악문화원(02-885-5975)
- 강남문화원(02-518-1295)
- 송파문화원(02-414-0354)
- 강동문화원(02-476-6681)
- 금천문화원(02-896-8553)
- 영등포문화원(02-846-0155)
- 서대문문화원(02-3217-1592~3)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지회(051-555-1441)
- 동래문화원(051-555-1441)
- 북구낙동문화원(051-301-2710)
- 강서문화원(051-972-6369)
- 연제문화원(051-759-3113)
- 기장문화원(051-724-2224)

- 사상문화원(051-316-9111)
- 금정문화원(051-581-9071~2)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지회(053-744-7950)
- 중구문화원(053-255-5123)
- 달성문화원(053-611-0010)
- 남구문화원(053-652-4450)
- 북구문화원(053-326-2555)
- 서구문화원(053-563-9066)
- 달서구문화원(053-553-4800)
- 동구팔공문화원(053-984-8774)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지회(032-761-2778)
- 인천문화원(032-761-2778)
- 인천서구문화원(032-582-4341)
- 부평문화원(032-505-9001)
- 강화문화원(032-932-0011)
- 연수문화원(032-821-6229)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지회(062-527-7701)
- 동구문화원(062-225-5815)
- 서구문화원(062-652-4148)
- 남구문화원(062-361-7256)
- 북구문화원(062-527-7701)
- 광산문화원(062-941-3377)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지회(042-627-7517)
- 동구문화원(042-274-2135)
- 중구문화원(042-256-3684)
- 서구문화원(042-488-5474)
- 유성문화원(042-862-6969)
- 대덕문화원(042-627-7517)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지회(052-229-7953)
- 울산동구문화원(052-234-2202)
- 울산남구문화원(052-266-3786~7)
- 울주문화원(052-279-0527)
- 울산중구문화원(052-244-2007~8)

경기도

- 경기도지회(031-239-1020)
- 수원문화원(031-244-2161~3)
- 성남문화원(031-781-1020)
- 의정부문화원(031-872-5678)
- 안양문화원(031-449-4451)
- 부천문화원(031-651-3739)
- 광명문화원(031-618-5800)
- 평택문화원(031-655-2184)
- 동두천문화원(031-865-2923)
- 안산문화원(031-480-9823~5)
- 고양문화원(031-963-0600)
- 과천문화원(031-504-6513)
- 구리문화원(031-557-6383)
- 남양주문화원(031-592-0667)
- 오산문화원(031-375-7755)
- 시흥문화원(031-315-6465)
- 군포문화원(031-397-0195)
- 하남문화원(031-795-1020)
- 용인문화원(031-335-2033)
- 파주문화원(031-941-2425)
- 이천문화원(031-635-2316)
- 안성문화원(031-673-2625)
- 김포문화원(031-984-6550)
- 양주문화원(031-840-6467)
- 여주문화원(031-883-3450)

- 화성문화원(031-353-6330)
- 광주문화원(031-764-0686)
- 연천문화원(031-834-2350)
- 포천문화원(031-532-5055)
- 가평문화원(031-582-2016)
- 양평문화원(031-771-3866)
- 의왕문화원(031-456-4994)

강원도

- 강원도지회(033-255-5105)
- 춘천문화원(033-254-5105)
- 원주문화원(033-764-3794)
- 강릉문화원(033-648-3014)
- 동해문화원(033-531-3298)
- 태백문화원(033-553-3161)
- 속초문화원(033-632-1231)
- 삼척문화원(033-573-2882)
- 홍천문화원(033-434-2080)
- 횡성문화원(033-343-2271)
- 영월문화원(033-373-3434)
- 평창문화원(033-332-3546)
- 정선문화원(033-563-5471)
- 철원문화원(033-452-6235)
- 화천문화원(033-442-2607)
- 양구문화원(033-481-2681)
- 인제문화원(033-461-6678)
- 고성군문화원(033-681-2922)
- 양양문화원(033-461-6678)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회(043-733-5588)
- 청주문화원(043-256-3624)
- 충주문화원(043-847-3906)
- 제천문화원(043-646-3646)

‘지역문화’가 궁금하면 노크하십시오

- 청원문화원(043-298-2858)
- 보은문화원(043-544-2314)
- 옥천문화원(043-733-5588)
- 영동문화원(043-742-2215)
- 진천문화원(043-533-2744)
- 괴산문화원(043-832-3588)
- 음성문화원(043-872-4084)
- 단양문화원(043-423-0701)
- 증평문화원(043-836-3400)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회(041-667-0417)
- 천안문화원(041-575-3004)
- 공주문화원(041-852-9005)
- 서산문화원(041-669-5050)
- 논산문화원(041-732-2395)
- 금산문화원(041-754-2724)
- 부여문화원(041-835-3318)
- 서천문화원(041-953-0123)
- 청양문화원(041-943-4774)
- 홍성문화원(041-632-3613)
- 예산문화원(041-335-2441)
- 태안문화원(041-674-2192)
- 당진문화원(041-354-2367)
- 대천문화원(041-934-3061)
- 온양문화원(041-545-2222)
- 조치원문화원(041-865-2411)
- 아우내문화원(041-564-1022)
- 성환문화원(041-581-2101)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회(063-287-5509)
- 전주문화원(063-288-7500)

- 군산문화원(063-451-2138)
- 익산문화원(063-835-0120)
- 정읍문화원(063-532-8723)
- 남원문화원(063-633-1582)
- 김제문화원(063-547-4659)
- 완주문화원(063-263-4335)
- 진안문화원(063-433-1674)
- 무주문화원(063-324-1300)
- 장수문화원(063-351-5349)
- 임실문화원(063-642-2211)
- 순창문화원(063-653-2069)
- 고창문화원(063-564-2340)
- 부안문화원(063-583-2101)

전라남도

- 전라남도지회(062-223-0019)
- 목포문화원(061-244-0044)
- 여수시문화원(061-682-5388)
- 순천문화원(061-723-4563)
- 나주문화원(061-332-5115)
- 광양문화원(061-763-0496)
- 담양문화원(061-383-6066)
- 곡성문화원(061-362-0890)
- 구례문화원(061-782-8802)
- 고흥문화원(061-835-5245)
- 보성문화원(061-852-2629)
- 화순문화원(061-374-3333)
- 장흥문화원(061-863-6362)
- 강진문화원(061-433-7373)
- 해남문화원(061-533-5345)
- 영암문화원(061-473-2632)
- 무안문화원(061-452-8648)

- 함평문화원(061-322-0505)
- 영광문화원(061-351-3255)
- 장성문화원(061-392-1796)
- 완도문화원(061-552-4834)
- 진도문화원(061-542-1108)
- 신안문화원(061-242-8131)

경상북도

- 경상북도지회(054-556-5234)
- 포항문화원(054-242-4711)
- 경주문화원(054-743-7182)
- 김천문화원(054-434-4336)
- 안동문화원(054-859-0825)
- 구미문화원(054-482-5422)
- 영주문화원(054-631-3300)
- 영천문화원(054-334-3030)
- 상주문화원(054-535-2339)
- 문경문화원(054-555-2571)
- 경산문화원(054-815-0593)
- 군위문화원(054-383-2003)
- 의성문화원(054-834-5048)
- 청송문화원(054-873-2527)
- 영양문화원(054-682-1378)
- 영덕문화원(054-734-2456)
- 청도문화원(054-371-2514)
- 고령문화원(054-954-2347)
- 성주문화원(054-933-0700 ~ 1)
- 칠곡문화원(054-974-0450)
- 예천문화원(054-654-3833)
- 봉화문화원(054-673-2350)
- 울진문화원(054-783-2270)
- 울릉문화원(054-791-0245)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회(055-2293-1186)
- 창원문화원(055-284-8870)
- 마산문화원(055-243-5222)
- 진주문화원(055-746-5001)
- 진해문화원(055-544-8880)
- 통영문화원(055-645-7755)
- 사천문화원(055-833-3163)
- 김해문화원(055-336-2646)
- 밀양문화원(055-352-3010)
- 거제문화원(055-681-2603)
- 양산문화원(055-386-0890)
- 의령문화원(055-573-2034)
- 함안문화원(055-583-2290)
- 창녕문화원(055-533-3777)
- 고성문화원(055-672-3805)
- 남해문화원(055-864-6969)
- 하동문화원(055-884-3929)
- 산청문화원(055-973-0977)
- 함양문화원(055-963-2646)
- 거창문화원(055-942-6166)
- 함천문화원(055-931-2401)

제주도

- 제주도지회(064-722-0203)
- 제주문화원(064-722-0203)
- 서귀포문화원(064-733-3789)

월간 ‘우리문화’

구독 · 광고문의
T. (02) 704-2311

알림

본회 편집실에는 전국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료나 향토지를 비치하고 있어 수시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史料 및 情報資料 提供

전국 시·군지, 향토사 자료등 각종자료 3천여권이 비치되어 있는 본회에 訪問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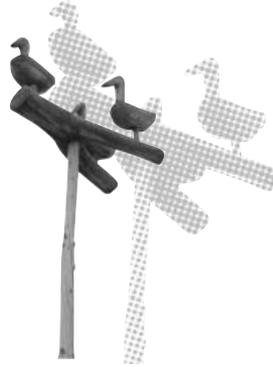
◎ (향토지) 각종 圖書 復刊相談

지방에서 발행할 각종 책자의 편집 및 출간을 위해 자료, 견본 등을 제공하고 편간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 海外 刊行物 交流

해외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을 통해 우리의 文化遺産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자료의 수집을 위해 “海外刊行物交流事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關係者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이나 關係자료 또는 정보의 교류추진을 알선해 드립니다.

편집후기



늘던 들판에 白雪이 내렸습니다.
머잖아 새순이 더 푸릇푸릇하게 돌아나겠지요.
그러기에 겨울은 아름답습니다.

送舊迎新 하소서. (敗)

정기구독안내

<우리문화>는 5천여년 간 숨쉬어 온 民族文化를 아름답게 꽃 피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自矜心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히 海外에서 韓民族의 自矜心을 갖고 곳곳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구독료(권당 3,000원)

국내 : 1년(6회) 정기구독료 18,000원 (우송료 본회 부담)

海外 : 1년(6회) 정기구독료 18,000+우송료

(※문화원 회원은 1권당 2,000원)

● 송금방법

송금은 농협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번호 농협 032- 01- 013084 문화원연합회

● 보낼곳

121- 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 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편집실

컬처플러스의 수익금중 2%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맛있는 지역문화



지방문화원이 발굴한 귀중한 자료,
단행본·잡지·신문·포스터·팸플릿으로
저희가 맛깔나게 디자인해 드립니다.

100-013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24-3 제복빌딩 303호
T.02-2264-9028 F.02-2264-9021 domingo@cultureplus.com



종로문화원 • 중구문화원 • 용산문화원 • 성동문화원 • 광진문화원 • 동대문문화원 • 중랑문화원 • 성북문화원 • 강북문화원

도봉문화원 • 노원문화원 • 은평문화원 • 마포문화원 • 영등포문화원 • 양천문화원 • 강서문화원 • 동작문화원 • 금천문화원

관악문화원 • 강남문화원 • 송파문화원 • 강동문화원 • 동래문화원 • 북구낙동문화원 • 강서문화원 • 연제문화원 • 기장문화원

원 • 중구문화원 • 달성문화원 • 남구대덕문화원 • 인천문화원 • 무평문화원 • 강화문화원 • 동구문화원 • 광주서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 • 광산문화원 • 북구문화원 • 동구문화원 • 중구문화원 • 서구문화원 • 유성문화원 • 대덕문화원 • 울산문화원

원 • 수원문화원 • 고양문화원 • 과천문화원 • 구리문화원 • 남양주문화원 • 오산문화원 • 시흥문화원 • 군포문화원 • 아산시문화원

문화원 • 고성문화원 • 파천문화원 • 구리문화원 • 남양주문화원 • 오산문화원 • 시흥문화원 • 군포문화원 • 아산시문화원 • 용

인문화원 • 파주문화원 • 이천문화원 • 안성문화원 • 김포문화원 • 양주문화원 • 이주문화원 • 화성문화원 • 광주문화원 • 연

천문화원 • 포천문화원 • 가평문화원 • 김천문화원 • 영월문화원 • 원주문화원 • 강릉문화원 • 동

해문화원 • 태백문화원 • 속초문화원 • 삼척문화원 • 홍천문화원 • 횡성문화원 • 영월문화원 • 평창문화원 • 정선문화원 • 철

원문화원 • 화천문화원 • 양구문화원 • 인제문화원 • 고성문화원 • 임실문화원 • 정주문화원 • 충주문화원 • 제천문화원 •

보은문화원 • 옥천문화원 • 영동문화원 • 진천문화원 • 음성문화원 • 단양문화원 • 증평문화원 • 천안문화원 • 공주문화원 •

서산문화원 • 논산문화원 • 금산문화원 • 부여문화원 • 서천문화원 • 조치원문화원 • 이우내문화원 • 성환문화원 • 전주문화

원 • 군산문화원 • 익산문화원 • 장흥문화원 • 남원문화원 • 김제문화원 • 전주문화원 • 진안문화원 • 무주문화원 • 장수문화

원 • 임실문화원 • 순창문화원 • 고창문화원 • 부안문화원 • 이서문화원 • 순천문화원 • 니주문화원 • 광양무

화원 • 담양문화원 • 곡성문화원 • 구례문화원 • 고흥문화원 • 보성문화원 • 화순문화원 • 장흥문화원 • 강진문화원 • 해남문

화원 • 영암문화원 • 무안문화원 • 함평문화원 • 영광문화원 • 장성문화원 • 완도문화원 • 진도문화원 • 신안문화원 • 포항문

화원 • 경주문화원 • 김천문화원 • 안동문화원 • 구미문화원 • 영주문화원 • 영천문화원 • 삼주문화원 • 문경문화원 • 경상문

화원 • 군위문화원 • 의성문화원 • 청송문화원 • 영양문화원 • 영덕문화원 • 청도문화원 • 고령문화원 • 성주문화원 • 칠곡문

화원 • 예천문화원 • 봉화문화원 • 울진문화원 • 울릉문화원 • 창원문화원 • 마산문화원 • 진주문화원 • 진해문화원 • 통영문

화원 • 사천문화원 • 김해문화원 • 밀양문화원 • 거제문화원 • 양산문화원 • 의령문화원 • 함안문화원 • 창녕문화원 • 고성문

화원 • 남해문화원 • 하동문화원 • 산청문화원 • 함양문화원 • 거창문화원 • 합천문화원 • 제주문화원 • 서귀포문화원 • 전국



전국문화원연합회 창립 40주년



전국문화원연합회 창립 40주년을 전국의 문화원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두 철

울주문화원장

전국문화원연합회울산시지회장